작은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06. 12

국 립 중 앙 도 서 관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작은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 발전방안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2. 5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연구진

연구책임자 : 남영준(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곽승진(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현태(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조현양(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윤옥(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요 약 문

Ⅰ. 연구제목

작은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Ⅱ.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정보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세계 주요 국가는 자국의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 수단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정보격차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복지향상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완벽하게 담당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의 건립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 높고, 주민친화성을 높일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주민과의 개인적 관계형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과 장점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1만여개의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 확대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복지를 실행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를 국가차원에서 마련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1)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확립과 운동확산을 위한 기본적 구상 2) 작은도서관의 향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 제안한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비롯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수요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중 약 75%가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장점으로는 가까운 거리와 장서구성의 충실도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92%로 절대적으로 나타났다.

2. 작은도서관의 현황: 국내 작은도서관은 해외의 사례와 운영주체(해외: 자치단체, 국내: 민간운동)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국내 작은도서관은 사립문고가 상대적으로 공립문고보다 많았으며, 공공도서관에 비해 매우 영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주요 도시에서 운영되는 이러한 영세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공공도서관의 관리와 협력을 받는 작은도서관이 상대적으로 좋은 운영결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순천시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 모델, 부천시 중앙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 모델 등을 들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공공도서관이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적절할수록 그 운영실태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3. 작은도서관의 기본적인 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은 다음과 같다.
- 공간 작은도서관은 30평 이상 50평 내외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작은도서관의 필수시설공간은 자료실과 독서열람공간, 문화강좌공간이고, 선택권장공간은 인터넷방과 학습자료실, 주민토론방과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
- 시설: 작은도서관은 일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A형과 B형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한다. A형의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분관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써 50평 내외의 공간과 3,000권의 장서, 연간 300만원 이상의 장서구입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때 상근인력은 사서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B형의 작은도서관은 대출을 위한 서비스 포인트로써, 1,000권이상의 장서를 갖추고 상근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4. 작은도서관의 특성화 전략
- 특성화 전략: 특성화 전략은 지역별, 주제별, 계층별,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성화의 기본사상은 이용자 특성을 파악하여 한정된 예산과 인력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서비스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대표적인 작은도서관의 특성화 범주는 다음과 같다.
  · 지역 문화복지 복합형 작은도서관
  · 순회·복합형 작은도서관

5. 작은도서관의 조성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실정법상 문고의 범위에서 운영
- 공립 공공도서관의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공공도서관 활성화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도서관의 발전 및 확장과 함께 지역의 공립도서관서비스체제로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 분관평가지표에 따라 공공도서관 분관으로 지정되어 협력하는 작은도서관은 장기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공립분관으로 편입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 민간운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추진
- 시민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운동으로 추진: 국립중앙도서관이 전면에 나서는 사업방식보다는,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가지는 민간단체와 시민운동조직들을 연합한 전위조직을 통해, 이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압력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
-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사업으로 추진
-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모델로 추진
- 지자체 조례를 통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
- 공공도서관과의 협력망 연계로 국가디지털자원에 대한 접근시설로
- 도서관중장기발전방안과 연계한 실현가능한 전략수립: 전국 읍면동 단위 3,500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최종목표는, 문화관광부 도서관중장기발전방안의 2011년 공공도서관의 보급목표 800관과 추후에 추진되는 도서관건립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되어야 하며, 과도하게 설정된 민간부분의 조성규모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공공부문에서 1,215(약60%)개관을 하고, 민간부문에서 785(약40%)개관의 보급을 목표로 최대 2,000여관 조성으로 현실성 있게 검토·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 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

2.1 연구 내용 ····· 3

2.2 연구 방법 ····· 3

3.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 4

제2장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원리 ····· 6

1. 작은도서관의 기원 ····· 6

2. 작은도서관의 개념설정 ····· 11

2.1 법과 기준에 의한 작은도서관 ····· 11

2.2 해외 도서관 기준의 최소조건 ····· 14

2.3 한국적 이념형으로서의 '작은도서관' ····· 15

3. 작은도서관의 운동원리와 커뮤니티 형성 ····· 17

3.1 마을문고운동을 통한 작은도서관의 운동원리 ····· 17

3.2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의미와 운동추진전략 ····· 19

4.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수요분석 ····· 20

4.1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개요 ····· 20
4.2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22
4.3 결과분석 및 시사점 ····· 40

제3장 국내외 작은도서관 현황과 분석 ····· 43

1. 국내 작은도서관 현황 ····· 43
1.1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종류 ····· 43
1.2 작은도서관 현황 ····· 44
1.3 우수운영사례 ····· 49
1.4 정부의 작은도서관 추진현황 ····· 69
1.5 시사점 ····· 73

2. 국외 작은도서관 현황 ····· 74
2.1 미국 ····· 74
2.2 일본 ····· 87
2.3 브라질 ····· 102
2.4 세계 도서관 서비스 포인트 비교 ····· 105
2.5 시사점 ····· 107

3. 결과분석 및 시사점 ····· 108

제4장 작은도서관 협력 및 네트워킹 ····· 110

1. 도서관협력 ····· 110
1.1 도서관 협력의 의의 ····· 110

1.2 협력 대상 도서관 ····· 112
1.3 협력 대상 업무 ····· 116
1.4 협력 추진 방안 ····· 118

2. 작은도서관 네트워킹 ····· 120
2.1 계층형 모형 ····· 120
2.2 분산 운영관리 모형 ····· 121
2.3 중앙 운영관리 모형 ····· 122
2.4 서비스 센터 모형 ····· 123
2.5 컨소시엄 중심의 상호서비스 모형 ····· 125

3. 작은도서관 협력 체계 구상 ····· 126

4. 결과분석 및 시사점 ····· 127

제5장 작은도서관의 모델과 운영방안 ····· 129

1. 작은도서관의 모델 ····· 129

2. 작은도서관의 설립 ····· 132

3. 작은도서관의 운영 ····· 136
3.1 인력 ····· 136
3.2 예산 ····· 137
3.3 운영조직과 구성 ····· 139
3.4 기본 시설 장비 ····· 140
3.5 자료 ····· 142

3.6 이용자봉사 ····· 143

4. 작은도서관의 특성화 ····· 145
4.1 특성화 전략 ····· 145
4.2 특성화 모델 ····· 147

제6장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향 ····· 160

1. 비전과 목표 ····· 160

2. 작은도서관의 조성사업의 활성화 전략 ····· 161
2.1 도서관중장기발전방안과의 전략적 연계 ····· 161
2.2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사회적 활용 ····· 163
2.3 공공 디지털자원에 대한 접근시설로의 개발 ····· 164
2.4 주민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의 유연화 ····· 165

3. '작은도서관'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 167
3.1 작은도서관의 행정적 개념설정 ····· 167
3.2 법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 ····· 168
3.3 공공도서관 진흥사업의 부문 ····· 172
3.4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평가모델 ····· 174

4. '작은도서관운동'의 범사회적 추진전략 ····· 178
4.1 민관협력 파트너쉽 정립 ····· 178
4.2 민간 도서관운동의 자율성 보장 ····· 181
4.3 대중매체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캠페인 ····· 183
4.4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 혜택의 중점개발 ····· 185

5.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추진체계 ····· 186
5.1 국가도서관정보정책 추진체제와 관계 ····· 186
5.2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 189
5.3 건립 및 운영재원의 안정적 확보 ····· 192

제7장 결론적 제언 ····· 195

참고문헌 ····· 199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모든 국민은 성별 혹은 나이, 지역, 재산 등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정보 접근과 문화적 혜택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의 지식 격차와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정보서비스 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 교육을 비롯한 평생 교육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함양하고,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정보제공 기관을 통하여 국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 기반과 제도를 확립하고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세계 주요국가 도서관들은 모든 국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 수단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정보격차가 점차 커지면서 이것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작은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기존의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정보이용자에 대한 인식이 주로 정보서비스의 공식적 채널에 속해 있는 표준적 계층(Standard Population)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어린이, 노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정보취약계층(Core Information Poor)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제한되고, 이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지속적 연구나 조사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가운데 하나로써 접근성이 높고, 주민친화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문화 복지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게 된 것이다. 지난 2006년 8월 25일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작은도서관 - 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에서 덴마크 도서관시스템에 대하여 발표한 덴마크 국립도서관청장 Jens Thorhauge도 작은도서관은 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고객과 가깝게 간다는 것과 개인적 관계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 인식되고 발전되어 온 문고형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아래 문화관광부에서는 2002년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1]과 「문화비전21 :창의한국(문화관광부 '04.6.)」을 통하여 주민접근성을 고려한 1만개의 작은도서관을 확충하기 위한 운동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에 복권기금 25억원을 투입(추진 근거 : 복권기금법 제23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4호 문화·예술진행 및 문화유산보존사업)하여 전국 각지에 작은도서관 25개관을 시범 조성하였으며, 이 시범사업이 지식정보 양극화 해소 및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됨에 따라 2006년부터 작은도서관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06년 2월 27일에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계획」이 포함된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였으며, 대통령 지시('06.2.27, 제55호) 에 따라 도서관 관련 예산의 획기적 증액 방안 및 구체적 정책 패키지를 중장기 계획 전까지 정리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과 단위의 「작은도서관진흥팀」이 신설 ('06.4.6 직제시행규칙 개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많은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10평 이상 80평 미만의 소규모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작은도서관은 기존 도서관과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문화 소외지역이나 서민 주거지역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관리소 등 공공시설 내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급자 중심의 기존 도서관 건립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중요한 문화적 역할에 비해 국내에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적으로 지원·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연구와 현황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확립과 운동 확산을 위한 기본적 구상 2) 작은도서관의 향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작은도서관의 중장기 발전방안은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설정할 것이며,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2년에 세워진 문화관광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02.8)' 과 2004

1) 김세훈. 『도서관중장기발전방안』.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년에 발표된 '문화비전21 :창의한국(문화관광부 '04.6.)'에서 제시한 계획과 상호관련성을 갖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계획에 따라 수행된다.

2.1 연구 내용

(1) 이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정립한다.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작은도서관 정책수립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측면, 작은도서관의 정보화 및 협력망 형성과 특성화 전략, 작은도서관의 인력·재정·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운영적 측면 등 작은도서관 사업에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2) 국내외 작은도서관 운영 모범사례를 조사·비교·분석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및 우리나라 지자체에 맞는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각종 과제를 구체화시킨다. 또한 해외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국내의 상황과 비교하여 개선점을 제시한다.

(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그 운영 모델을 제시한다.

(4) 작은도서관 이용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홍보활동과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인식제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를 제안한다.

2.2 연구 방법

(1) 사회적 여론조사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내 작은도서관(문고 포함) 현장방문 및 실무자 그룹과의 면담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2)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는 문고 및 작은도서관 운동에 종사하는 활동가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점 및 개선사항을 중점 수집하고, 민관협력사업의 참여 당사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도서관행정실무자, 작은도서관 활동가, 공공도서관 담당자 등과 수시로 면담을 실시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나가는데 있어 당면하는 행정지원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3) 국내외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및 사례조사를 위해 각종 문헌 및 인터넷상의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 조사한 문고현황조사 결과와 우수운영사례집 발간내용 등을 중심으로 선진외국의 작은도서관 활동현황과 조성사업의 참고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4)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한 국내 도서관법 및 행정지원체제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도서관중장기발전방안과 연계한 작은도서관 중장기발전방안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5) 본 연구는 일차로 문헌조사와 인터넷 탐색 등을 통해 수집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의 분석 검토를 실시하고, 이차로 방문조사, 실무자 및 연구자간담회, 관계자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3.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주민 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적실성 있는 이론과 단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 및 지식정보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지식강국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서비스의 확대 모델로써 작은도서관 활용과 연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공간 속에서 독서 및 생활문화를 향상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작은도서관 협력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 자치적 운영방식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봉사, 기부문화 등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기여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설립이 부진한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가정 자녀 등에 대한 문화 복지적 서비스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 개발을 구현할 수 있다. 즉,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가적 시책을 실현하는 사회통합 기능을 촉진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지원협력프로그램을 마련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실천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자치단체 도서관행정 담당자, 지역도서관정보정책 실무자,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종사자 등에게 협력사업의 추진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 도서관정보서비스체제의 지방분권형 체제로서의 전환 시점에서, 지역대표도서관 및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근거한 공공도서관서비스체제의 주민밀착형 거점망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작은도서관 활동을 공공도서관과 연계하고, 선진적 공공도서관서비스 모델을 실현하는 정책지침을 도출할 수 있다.

개정 도서관법에서 국가 도서관정보정책의 수립, 심의, 조정의 중책을 부여받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도서관발전수립계획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협력사업 추진체계를 상세히 제시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건립과 지원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기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원리

1. 작은도서관의 기원

현재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부르는 도서관은 규모 면에서 볼 때 공공도서관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일 뿐 역할은 공공도서관과 동일하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복권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문화관광부가 추진하였던 이 사업을 평가한 보고서에서는 <작은도서관>이란 용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서 '도서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은 법규상으로 '도서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규모나 조직, 운영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문고'의 범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이라고 하고, '문고'라고 하지 않은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을 인근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되게 함으로써 각기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거점' 또는 '분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관광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수행 보조사업단체 / 한국도서관협회, 2004. 1-2)

이 글을 통해서 보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작은도서관>은 결국 지역주민 밀착형으로서의 독서공간이며, 문화공간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장차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작은도서관을 특별한 형식으로 규정했다기보다는 일정한 취지에 따라 추진하는 프로젝트 명(사업 명)으로 사용한 것이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사업에 이어 여러 형태로 작은도서관 사업을 지원 또는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한 작은도서관 사업과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개념적으로 많이 부합되는 순수 민간 주도의 작은도서관 사업도 있다. (사)어린이와 도서관,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 >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대표 : 김수연 목사)에서는 "좋은 책이 있으면 책을 읽는다." 는 슬로건 아래 산간벽지에 마을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네이버의 협찬을 받아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http://www.readersclub.or.kr/sub/campain/campain_library.html)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고를 엿볼 수 있다.

"..... 산간벽지. 농어촌. 섬마을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책이 없어 읽지 못하는 산간벽지. 농어촌. 섬마을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에게 작은도서관을 개설하여 책 읽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도시와의 문화평준화를 기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좋은 책을 읽음으로써 순수한 심성을 잃지 않고 자라 날로 혼탁해지는 우리 사회를 맑고 밝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벌이는 사업입니다.....중략.....그래서인지 작은도서관이 개설되는 날은 마을잔치가 벌어지고.....중략.....
시골 어린이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인형극 공연, 동화 구연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과 주민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강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 글에 따르면 산골마을에 설립하는 작은 규모의 마을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며, 역할은 산골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책을 읽게 하고, 도시와의 문화평준화를 꾀하는 시골마을의 문화사랑방이다. 이러한 의도의 도서관 역할 수행은 비록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어도 이미 1960년대에 출발한 마을문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농어민에 대한 독서진흥과 공공도서관 혜택의 제공을 위해 1961년 민간운동 체제로 창설된 마을문고는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독서운동에 의하여 전국 농어촌 마을에 설치·육성된 것이다. 주민의 독서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개발도상국 농촌을 대상으로 한 농촌 독서운동이었던 마을문고 운동은 근대화와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왔던 도서관 황폐화 현상을 극복하고, 문맹을 퇴치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한 도서관 운동이기도 하였다. 이 운동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의 인생경험을 통하여 갖게 된 독서 및 도서관에 대한 신념과 우연히 접하게 된 <圖書館の 運營と實際>라는 책의 영향을 받은 엄대섭이 착상하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이끌었으며,[2] 1970년대에 전국 3만5천이나 되는 방대한 지역의 마을에 설치되어 운영되다가[3],

2) 이용남. 마을문고운동의 초기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4). 2000. pp. 32-35.

1981년 새마을운동 체제에 흡수·통합되어 새마을문고라는 이름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4].

비록 마을문고가 시작되던 1960년대에는 공공도서관이 전국에 18개관밖에 없었고, 국민들의 문맹률도 높았으며,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여건이 지금과는 매우 많이 다른 형편이었지만 도서관이 부족한 곳에서 주민에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지역의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는 현재의 작은도서관 운동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하여 오랫동안 마을문고 운동을 이끌었던 주역의 하나인 이용남도 "…. 마을문고 운동은 공공도서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열악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려는데 궁극적인 이상을 둔 운동이므로 장차 공공도서관이 양과 질 면에서 충실해지고 관외봉사 중심의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될 때에는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흡수되어 '공공도서관망'을 형성, 마을단위의 최 일선 조직 또는 봉사거점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벌이는 소도서관 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5].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1960년대의 마을문고는 현재의 작은도서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을문고가 그러했던 것처럼 작은도서관도 결코 공공도서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관종은 아니며, 서비스 접점으로써 이용자로서 주민과 운영자로서 주민사이에 자발적 운동의 성격이 내포된 봉사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 일어난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인하여 이것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전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의 모범적인 운영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민관협동의 사례로 잘 알려진 부천의 작은도서관을 비롯하여 창원, 순천, 부산 등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주민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대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그 지역 주민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일부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별도로 작은도서관의 개념이나 법적근거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작은도서관의 특성과 표기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을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라고 정의를 내린 김준[6]은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문고'라는 말 대신에 '도서관'을 사용한다

3) 이용남. 마을문고운동의 초기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4). 2000. p.28
4) 이용남. 마을문고 운동 추진전략과 행태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새마을운동 체제로의 통합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2002. p.92.
5) 이용남. 『마을문고의 이념과 원리 : 공공도서관 운동의 측면에서』. 국회도서관보 16(3). 1979. pp. 63-69
6) 김준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근무하는 행정주사이다. 그는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전담할

는 점을 들었다. 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7]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은 시설과 규모면에서 문고에 해당되고 있으나,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고와의 차별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차별화의 크기가 작은도서관이 문고에 비해 상대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이 수혜자인 동시에 자원봉사, 기부, 프로그램 진행참여 등을 통한 운영주체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주역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는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시설 중심'[8]보다는 '운영 중심'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운동가나 시민단체들에 의해 시작된 작은도서관 사업을 관에서도 추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하기는 하였지만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신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지역문화의 발전, 지식의 평등화를 통한 계층 양극화의 완화 등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작은도서관을 도서관이나 문고 같은 '시설' 개념이 아닌 '운동'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 즉, 작은도서관을 운동이라고 보게 되면 이러한 운동의 취지에 따르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을 - 공사립문고,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시설, 어린이도서관, 소규모의 공공도서관이나 분관 등 - 명칭에 상관없이 모두 작은도서관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할 경우 현행법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법률적 규정이나 절차도 필요하지 않게 되며, 또 일정한 수혜계층에 한정될 필요도 없이 시대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성격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적 설정은 법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으나,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장이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2006년 9월 8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도서관법에서는 문고를 공공도서관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어 잠정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상기의 논리에 근거하여 개념적 정의를 내림으로서 특별한 형식으로 작은도서관을 규정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시설이면 작은도서관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1) 설립주체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도서관의 3대요소인 시설, 직원, 장서를 갖

별도의 작은도서관진흥팀이 구성되는 것을 계기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느끼고, 도서관계에 게재할 연중기획물을 준비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유인물로 나온 그의 글 <'작은도서관 개념'에 대한 이해>를 구하여 참고하였다.

7) 2006년 9월8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도서관법에는 문고에 대한 규정이 없다.

8)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의 문고 및 도서관의 최소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고 : 건물 33㎡(약10평),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 도서관 : 공공도서관 - 건물 264㎡(약80평), 열람석 60석 이상, 기본장서 3,000권 이상 및 연간 300권 이상 증가, 사서 3인 이상. 전문도서관 - 열람실 165㎡(약50평), 전문분야 자료 3,000권 이상, 사서 3인 이상. 이 기준으로 본다면 법에는 도서관과 문고의 두 가지 형태만 존재할 뿐이다.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하면 자연히 문고가 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도 미달하게 되면 미등록시설이 되는 것이다. 자연히 작은도서관이라는 범주나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추고 있으며, 도서관적인 시각으로 그 지역주민에게 비영리적으로 봉사한다는 목적을 추구하면 작은도서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립된 소규모의 생활친화적인 독서 및 문화공간이다.

(3)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목적으로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4) 주민의 독서습관을 신장시키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 지역의 공공도서관과의 협조를 도모하며, 상호대차 등 장차 지역의 공공도서관 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상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과 함께 고려할 것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표기문제이다.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에 관한 선행 연구와 이론에 따르면,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작은도서관이 띄어쓰기를 통하여 <작은 도서관> 혹은 <작은도서관>의 두 경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자는 문법상으로 볼 때 차이가 있다. 즉 전자는 '작은'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도서관을 수식하게 되는 것이고, 후자는 도서관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 그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우리 동네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다. 이 도서관에는 아주 좋은 장서가 갖추어져 있고, 1,000석의 열람석이 마련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우리 학교에 교직원과 학생들이 친근하게 드나들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개관하였다. 방과 후에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 있는 스터디 룸을 비롯하여 음악과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전자 영상실도 있고, 주말 독서프로그램이 있어서 친구들과 읽은 책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이상의 내용은 일반 이용자에게 있어 지역 혹은 학교에 자리 잡은 도서관을 중앙의 큰 도서관과 비교하여 작다고 생각했든지 또는 그저 드나들기 쉬운 곳에 자리하고 있는 친근한 도서관으로 보아 "우리 동네에 있는 공공도서관" 혹은 "우리 학교에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의 작은도서관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명칭으로 아직 정확한 개념정립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표현한 것이다. 이용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즉 접근이 용이하고, 생활 친화적이고,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문화 공간적 성격이 강한 소규모의 도서관을 이용자들은 작은도서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 도서관은 특정 기관에 속하거나 목적에 지배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작은도서관은 '작은' 과 '도서관' 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명사로서 친근함이 넘치는 사랑방과 같은 도서관을 강조한 표현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작은도서관도 이런 개념의 도서관으로 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으로 표기한다.

2. 작은도서관의 개념설정[9)]

2.1 법과 기준에 의한 작은도서관

2006년 9월 개정된 도서관법과 개정 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는 공공도서관과 문고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을 뿐 작은도서관에 대한 별도의 법적 개념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는 '문고' 를 도서관의 일반적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서관기준에 미달되는 독서시설로서 규정하였다. 이에 비해 개정 도서관법 제2조(정의) 제4항에서는 '문고' 를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시설의 하나이나, 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시설로서 정의하고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는 문고와 도서관은 엄격한 구분이 제시되었지만, 개정법에서는 문고를 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독서시설로 정의하면서,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광의의 해석으로는 문고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공공도서관 시설로서 도서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법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서는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킨 비영리 독서시설 공사립문고는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

9) 이 장은 작은도서관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2006년 10월 20일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 2층 대강의실)에서 발표된 자료의 일부분을 이용하였다. 정현태. 2006.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집 제21집. 217-253.

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기존의 문고에 있어 뚜렷한 개선내용 없이, 문고에 있어 일방적으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전용될 수 있다. 또한 문고를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시설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공공도서관 관련조항이 모두 문고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다소 의문점을 가지는 해석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선 사립문고의 등록과 폐관에 대한 일반규정을 법 제31조(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에 적용하는 것은, 문고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공공도서관업무를 규정한 법 제28조(업무),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관장임명과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사용료 징수를 규정하는 제33조(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과 원칙을 문고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문고와 공공도서관이 같은 기능과 업무로 정의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으며, 법에 따라 공립문고에 사서직 관장을 적용하는 것이나, 문고활동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 문고운영에서 사용료 징수범위의 설정 등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법리 해석상 공공도서관 관련 규정 중 문고운영에 관해서는 필요한 부분만을 적용한다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관련조항이 모두 문고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고와 관련해서는 동법 상에 공공도서관과 구분되는 별도의 명확한 조항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의 시기를 고려하여 필요 조항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정의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 신구 도서관법에서의 문고관련 조항

구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 도서관법
법적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문고**"라 함은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말한다. 4."**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4.“**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시설인 "**문고**."
관련조항	제7장 문고 제39조 (문고의 설립)-> 삭제 제40조 (문고의 운영)-> 삭제	제4장 공공도서관 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제28조(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제33조(사용료)

개정 도서관법에서는 이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제시하는 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의 개정을 유보하고, 이전의 기준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현행법상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비영리 독서시설인 문고에 주로 해당한다. 작은도서관을 표방하는 민간 독서시설의 대부분은 도서관법상 면적10평, 열람석 6석, 장서 1,000권 등을 최소기준으로 요구하는 문고보다는 운영규모가 크고, 면적 80평, 열람석 60석, 장서 3,000권, 사서직원 3인 등을 최소기준으로 요구하는 공공도서관보다는 작은 운영규모로 인지되고 있다.

<표2> 공공도서관과 문고의 법적 기준

	공공도서관	문 고
시 설	(인구2만 미만 일 때) -면적 264㎡(약80평), -열람석 60석 이상	-면적 33㎡(약10평)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 료	-장서 3,000권 이상 -연간 증가 300권 이상	-장서 1,000권 이상
직 원	(330㎡(약100평)이하) -사서직원 3인	-규정 없음

참고로 2004년 복권기금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문고형도서관을 말하며,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50평 내외의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다."고 정의하여, 작은도서관의 시설 규모는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에 마련된 50평 내외 문고형 도서관'으로 요약하고 있다.

실제 복권기금지원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 25개소의 평균면적은 47평, 평균장서

를 5,000책으로 나타났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지원모델은 30평 이상, 장서 3,000권 이상 규모로 설정되고 있다. 간혹 장서 수나 시설면적 등에서 공공도서관의 규모에 이른 곳도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영세한 규모의 문고에 독서, 문화활동을 도서관 서비스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시설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시설규모 80평에 미달하고, 문고로 신고된 10평 이상의 독서시설 중 일정수준의 시설과 자료를 갖춘 공사립문고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한 수준이란 특별히 정해진 경계는 주어져 있지 않으며, 복권기금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전례에 비추어 대략 30평 내지 40평 이상의 시설규모로 설정되고 있다. 이 때 공간에 80평은 명확히 규정된 상한선이기 보다 공공도서관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일부 작은도서관은 이 이상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작은'은 공공도서관의 기준의 미달이라는 법적 개념과 같이 기존 공공도서관에 비해 여러 자원의 미달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해외 도서관 기준의 최소조건

작은도서관의 개념설정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작은도서관 규모에 대한 최소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IFLA/UNESCO가 제시한 공공도서관서비스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저개발국의 공공도서관 운영현실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최소조건으로서, 면적 370㎡(112평), 장서 2,500권, 상근직원1명을 요구하고 있다.(<표 3> 참고)

<표3> IFLA 공공도서관 최저가이드라인

구 분	최 저 기 준	비 고
자 료	-최소봉사거점을 위한 최저 장서수준 2,500권 -인구1인당 1.5~2.5권	
시 설	-개별도서관 최저크기 370㎡(112평)이상 (캐나다 온타리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구 5,000명당 컴퓨터 1대(캐나다, 호주)	
직 원	-인구 2,500명당 1명의 상근직원 -직원의 1/3은 사서	cf.전체예산 0.5%~1%는 훈련비

미국 Wisconsin주에서는 지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권장되는 공공도서관으로써 요구하는 최소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Wisconsin Public Library Standards).

*직원 : 상근직원 1명, 주당25시간이상 유급 근무하는 관장
*자료 : 장서8,000권, 정간물 30종, 연간구입 10,000달러(1,000만원) 이상
*시설 : 면적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 다만 주당 최소 25시간 개방
*예산 : 2005년 기준 최소 연60,000달러(6,000만원)이상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설정된 위스콘신주의 기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최소면적이나 시설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반면, 상근직원 1명, 최소장서 8,000권, 주당 25시간 이상 개방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운영예산에서 상근직원 1명의 임금 18,100달러와 자료구입비 10,000달러, 사무경비 16,000달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웨잉앤드(D. E. Weingand)교수는 자신의 저서 [Administration of the Small Public Library, 3판]에서 작은도서관의 조건을 봉사인구 2만5천명 이하의 공공도서관(Small Public Library)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표 4> 공공도서관 운영단위 용어비교

행정단위	도서관단위	우리말	비고
국가(國家, National)	National Library	국립도서관	
시도(市道, Provincial)	Regional Library	광역도서관	
시군구(市郡區, Municipal)	Community Library County Library	지역도서관 공공도서관	
읍면동(邑面洞, Township)	Branch Library Neighborhood Library	분관도서관 근린도서관	작은도서관
통리(統, 里, Village)	Village Library	문고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분관서비스체제가 발달한 미국 및 영국 등에서 공공도서관 운영단위와 관련한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은 선진국의 가장 작은 규모 공공도서관 분관을 지칭하는 근린도서관(Neighborhood Library)보다 작은 규모의 문고형 도서관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교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보급이 부진한 가운데 자생적으로 발생한 우리나라에서 작은도서관은, 선진외국의 공공도서관 분관시스템 발전경험을 참고할 때, 지역의 공공도서관시스템과 연계한 공공봉사 거점을 확대하는 서비스 접점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외국과 달리 공공도서관과 분리되는 별도의 문고개념이 통용되고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작은도서관의 법적 및 행정적 해석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한국적 이념형으로서의 '작은도서관'

국내외 공공도서관 법규와 기준에서 확인되는 작은도서관의 최소기준은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작은도서관의 개념과는 일정한 거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려는 작은도서관은 법에서 규정하는 도서관기준에 미달하는 공사립문고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문고들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볼 때는 공공도서관과 연계되어 있지 못한 공립문고와 민간부문에서 활동하는 사립 문고를 포함하는 활성화된 문고활동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과거 마을문고운동으로 표현되었던 지역의 소규모 문고 및 도서관 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 스스로 기금을 모으고, 자원봉사를 통해 꾸려가는 동네 사랑방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독서서비스와 어린이 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지역 문화강좌 등의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공공도서관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자생적 시민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작은도서관 운동의 의의는 주민의 도서관서비스 욕구를 주민스스로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이들의 협동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주민들의 풀뿌리 공동체 문화와 민주적인 자치문화 형성, 그리고 공동체 현안에 대한 대화와 토론의 통로로서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는 통합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에 있다.

즉 관주도적 계몽운동이었던 과거 마을문고 운동을 주민 자치적 지역문화운동으로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과거 마을문고에서 독서 진흥과 국민계몽운동과 같이 교육적 성격에서 출발하다가, 작은도서관시대에 문화운동과 문화 복지와 같은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적 측면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능적인 면과 해당 서비스 공간, 시설 등에서 과거의 문고에 비해 작은도서관은 서비스 대상이 지역주민이라는 점 이외에 확대되고, 발전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5> 참고)

이와 같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을 기초자치단체, 민간의 공, 사립문고 및 사립도서관 활동가들에 의해 조성된 일종의 도서관운동을 지칭하는 이념형적 명사로 보며, 면적이나 인력, 자료 등의 수준으로 설정되는 공식 개념이라기보다는, 도서관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문고시설을 지역의 공공도서관 분관수준에서 활성화시키고,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여백을 메워주는 공, 사립도서관으로 기능하는 독서시설로 본다.

<표5> 작은도서관과 마을문고 비교

구 분	마을 문고		작은도서관
목 적	독서진흥, 국민계몽운동		독서진흥, 지역공동체문화운동, 문화 복지
기 능	독서		독서, 독서교육, 정보탐색, 방과 후 과제학습, 주민모임, 문화강좌
봉사 대상	지역 주민		지역주민(특히 어린이, 소외계층)
면 적	10평 이상		30~40평 이상
자 료	도서 1,000권 이상		도서3,000권 이상, 정간물 10종 이상
인 력	비상근		상근인력1인 + 비상근 봉사인력
시 설	서가, 열람석		서가, 열람석, 인터넷PC, 모임방
운영 주체	마을문고본부	새마을문고중앙회	기초자치단체, 민간단체, 개인
활동시기	60~70년대	80년대 이후	90년대 중반 이후
추진방식	민간 주도	관주도	민간 주도 참여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민간주도의 다양한 문고 및 도서관활동을 장려하고 이들의 자발적 봉사와 헌신으로 형성된 작은도서관 운동을 공공도서관 분관체제로 연계하여 지역사회 풀뿌리 문화로 형성된 자치문화운동을 고양하는 한국적 도서관 운동의 오랜 전통을 반영하는 이념형적 개념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책 및 행정상의 혼란을 줄이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수준의 권장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시설과 장서, 인력의 최소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함께, 작은도서관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의 최소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협력 파트너로서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3. 작은도서관의 운동원리와 커뮤니티 형성

3.1 마을문고운동을 통한 작은도서관의 운동원리

마을문고 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에는 공공도서관은 18개관에 불과하였으며, 국민 대다수가 문맹자로서 독서습관이나 도서관 경험이 거의 없는 후진국 상태였다는

것이 지금의 작은도서관 여건과는 매우 달랐지만 운동 근저에 흐르는 정신은 같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문고 운동원리를 살펴보는 작업은 작은도서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계획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초기 마을문고 운동을 발전시킨 원동력은 창설자 엄대섭 개인의 인성과 추진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문고운동 추진 전략은 독서운동을 관념적인 명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의 문고설치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그것의 양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질적인 육성을 도모하려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의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설치 대상 지역을 주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부락 단위로 설정하였으며, 해방 직후에 벌어졌던 일방적인 책보내기 운동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보고 싶은 책을 구입해 나가면서 문고를 자율적인 방법으로 관리 운영하는 독서운동을 표방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을 대치하고자 하는 독서시설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도서관 시스템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이상을 지녔다[10].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마을문고는 ①책을 넣어 관리할 수 있는 문고함 ②문고 운영주체가 되도록 주민으로 조직한 독서회 ③쉽고 재미있는 선정도서의 세 가지를 기본요소로 구성하였다. 말하자면 도서관의 3대요소인 시설, 직원, 장서를 마을문고의 기본요소로 적용하여 책장은 마을 도서관 건물구실을 하고 독서회는 도서관 직원구실을 하도록 개념을 설정하였던 것이다[11]. 마을문고 운동에서는 문고의 지도 육성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마을 단위에 독서회 조직을 권장, 지도하여 합리적인 문고관리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매월 발간하여 무상 배부하는 잡지형 기관지를 많이 이용하였으며. 문고 지도자 교육행사와 순회지도 등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운동 전개에 필요한 재정은 초창기에는 창설자의 사재로 충당하였으며, 63년부터 사업비는 정부보조금, 관리운영비는 창설자의 사재로 분담해 오다가 67년 후반부터는 유력한 회장과 이사진이 관리운영비를 출연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마을문고운동은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념은 다음과 같은 마을문고 운동의 추진원칙에도 잘 나타나 있다[12].

- 도서관의 축소 형태로서 운영한다.
- 농어촌 자연부락(마을) 단위로 설치한다.

---

10) 이용남. 마을문고운동의 초기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4). 2000. p.45.
11) 이용남. 마을문고 운동 추진전략과 행태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새마을운동 체제로의 통합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2002. p.94.
12) 이용남. 마을문고운동의 초기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4). 2000. pp.36-38.

- 자율적인 관리 운영을 수행하도록 한다.
- 공공도서관의 보완적 운동이다.

작은도서관의 명확한 개념이 설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원칙은 매우 중요하게 보인다. 즉 공공도서관의 봉사 혜택이 부족한 최소 지역단위인 마을에 도서관의 축소 형태로서 마을문고를 운영하며, 공공도서관을 보완한다는 원칙들은 현재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 아래 운영되는 도서관에서도 적용해야 할 중요한 원칙적인 개념들이다.

3.2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의미와 운동추진전략

현대사회에서의 작은도서관이 갖은 의미를 커뮤니티 형성에 두는 것은 작은도서관의 운동원리에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실 현대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옛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보의 혜택 속에 일상생활이나 전문적 활동에서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인간과 인간 간에 교류나 관계에서는 나날이 개인화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황폐해지는 경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개인화 경향을 적절한 계기를 마련하여 공동체적인 커뮤니티 형성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는 지역주민들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생활 속에 새로운 유대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주민의식이자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Bernard는 커뮤니티의 구성요소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13].

첫째, 한정된 장소로서의 지역성 또는 정주성
둘째, 공통의 유대(common ties)로서의 공통의 가치, 목표, 사상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으로서 거주자간의 상호작용 및 거주자와 주변 지역사회의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책읽기 운동의 거점이 되는 것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입각한 주민들의 공통의 가치와 사상에 의한 상호 작용체로 볼 수 있다.

13) J. Bernard. 1973. 『The sociology of community』. Scott, Foresman and company. <http://www.readersclub.or.kr/sub/campain/campain_library.html> [cited 2006.11.13]

이미 이것을 관 체제로 이전하기 전의 마을문고 운동을 통하여 경험하였으며, 현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서도 볼 수 있다.

사실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즉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에 입각한 책읽기 운동의 전개가 핵심인 만큼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작은도서관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만 하면 진정한 공동체적인 커뮤니티를 형성시키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제이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 시설을 이용 중심의 환경으로 구축함으로써 지역, 책, 주민이 공생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동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개관 이후의 이용 과정 참여는 물론이지만 개관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작은도서관 계획과 개관 준비에 참여하도록 하여 위치선정에서부터 서비스 프로그램 선정, 공간구성 등에 이르기 까지 함께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면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자체의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들 간의 인간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이루어진 지역공동체가 완성되도록 하는 지대한 의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수요분석

4.1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개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2006년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 전국의 중소도시 이상 소재 작은도서관 이용고객 중 초등 고학년 이상 만 70세 이하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이용실태와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는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와 당일 도서관 이용자 출구 조사(Exit Survey)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작은도서관 만족도 조사는 작은도서관 이용관련 만족 및 불만족 요소를 파악하여 도서관운영서비스 개선요소를 도출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사업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추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조사의 내용은 크게 작은도서관 이용만족도, 작은도서관 운영 효과 및 활성화 방

향, 작은도서관의 인지 및 이용행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515명으로 지역 및 평형대를 고려한 임의할당방식으로 조사대상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추출되었다.

<표 6 > 응답자 특성

도서관 이용자		사례수	%
		515	100.0
평형대별	30평 미만	80	15.5
	30-50평 미만	271	52.6
	50평 이상	164	31.8
지역별	서울/인천/경기	110	21.4
	부산/울산/경남	110	21.4
	대구/경북	99	19.2
	대전/충청	97	18.8
	광주/전라	99	19.2
지역 규모별	대도시	398	77.3
	중소 도시	96	18.6
	읍면 지역	21	4.1
도서관 유형별	공립	66	12.8
	사립	449	87.2
조사대상별	초등	222	43.1
	중고 이상	293	56.9
이용자 유형별	초등생	222	43.1
	중/고생	37	7.2
	주부	146	28.3
	기타	110	21.4
초등생 학년별	초4	82	36.9
	초5	75	33.8
	초6	65	29.3
회원 여부별	회원	341	66.2
	비회원	174	33.8
성별	남성	171	33.2
	여성	344	66.8
연령별	10대	261	50.7
	20대	35	6.8
	30대	139	27.0
	40대	59	11.5
	50대 이상	21	4.1
학력별	중졸 이하	272	52.8
	고졸	89	17.3
	대졸 이상	154	29.9
결혼 상태	기혼	213	72.7
	미혼	77	26.3
	무응답	3	1.0
이용도서관 만족도별	만족	382	74.2
	보통	119	23.1
	불만족	14	2.7

작은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추출된 응답자의 두드러진 특성은, 남자(33.2%)보다는 여자(66.8%)가 많고, 초등학생(43.1%)과 주부(28.3%)가 전체의 71.4%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77.3%)이, 도서관유형별로는 사립(87.2%)이, 평형대별로는 30평~50평형(52.6%)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4.2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4.2.1 전반적 만족도

작은도서관 이용자 515명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반적 만족율은 74.2%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규모에서 도시지역에 비해서 읍면지역의 불만족(33.4%)이 두드러지고, 초등생이나 주부들에 비교해 중고생들의 불만(13.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회원에 비해서 회원의 만족(78.6%)이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 노령 층의 불만(9.6%)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7> 도서관 만족도

전체		사례수	1.매우 만족 (5.00)	2.만족 (4.00)	3.보통 (3.00)	4.불만족 (2.00)	5.매우 불만족 (1.00)
Total		515	**17.1%**	**57.1%**	23.1%	2.3%	0.4%
평형대	30평 미만	80	23.8%	58.8%	17.5%	0.0%	0.0%
	30-50평 미만	271	14.8%	60.5%	22.9%	1.8%	0.0%
	50평 이상	164	17.7%	50.6%	26.2%	4.3%	1.2%
지역	서울/인천/경기	110	15.5%	60.9%	23.6%	0.0%	0.0%
	부산/울산/경남	110	9.1%	67.3%	20.0%	2.7%	0.9%
	대구/경북	99	25.3%	44.4%	21.2%	8.1%	1.0%
	대전/충청	97	15.5%	58.8%	25.8%	0.0%	0.0%
	광주/전라	99	21.2%	52.5%	25.3%	1.0%	0.0%
지역 규모	대도시	398	17.8%	60.1%	20.6%	1.3%	0.3%
	중소 도시	96	17.7%	52.1%	29.2%	1.0%	0.0%
	읍면 지역	21	0.0%	23.8%	42.9%	**28.6%**	**4.8%**
도서관 유형	공립	66	12.1%	63.6%	22.7%	0.0%	1.5%
	사립	449	17.8%	56.1%	23.2%	2.7%	0.2%
조사대상	초등	222	14.4%	59.5%	24.3%	1.8%	0.0%
	중고등 이상	293	19.1%	55.3%	22.2%	2.7%	0.7%
이용자 유형	초등생	222	14.4%	59.5%	24.3%	1.8%	0.0%
	중/고생	37	5.4%	56.8%	24.3%	**10.8%**	**2.7%**

	주부	146	19.2%	57.5%	20.5%	2.1%	0.7%
	기타	110	23.6%	51.8%	23.6%	0.9%	0.0%
초등생 학년별	초4	82	19.5%	59.8%	20.7%	0.0%	0.0%
	초5	75	6.7%	61.3%	29.3%	2.7%	0.0%
	초6	65	16.9%	56.9%	23.1%	3.1%	0.0%
회원 여부	회원	341	**21.4%**	**57.2%**	20.5%	0.6%	0.3%
	비회원	174	8.6%	56.9%	28.2%	5.7%	0.6%
성별	남성	171	16.4%	56.7%	25.1%	1.8%	0.0%
	여성	344	17.4%	57.3%	22.1%	2.6%	0.6%
연령별	10대	261	13.4%	59.0%	24.1%	3.1%	0.4%
	20대	35	11.4%	71.4%	17.1%	0.0%	0.0%
	30대	139	18.0%	56.1%	24.5%	1.4%	0.0%
	40대	59	**28.8%**	**47.5%**	22.0%	1.7%	0.0%
	50대 이상	21	**33.3%**	**42.9%**	14.3%	**4.8%**	**4.8%**
학력별	중졸 이하	272	15.4%	58.1%	23.2%	2.9%	0.4%
	고졸	89	22.5%	52.8%	20.2%	3.4%	1.1%
	대졸 이상	154	16.9%	57.8%	24.7%	0.6%	0.0%
결혼 상태	기혼	213	20.7%	53.5%	23.5%	1.9%	0.5%
	미혼	77	13.0%	61.0%	19.5%	5.2%	1.3%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절대다수(96.2%)가 향후 계속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작은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타인에게 도서관이용을 권유할 의향이 있는 등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전망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규모에서 50평 이상, 지역적으로 대구/경북지역과 읍면지역, 이용자 유형 중 중고생 등은 향후 이용에 대한 유보적 태도로서 보통의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작은도서관 서비스 및 홍보 전략에서 이들 의견유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이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8> 향후 이용의향

전체		사례수	1.매우 그렇다 (5.00)	2.그렇다 (4.00)	3.보통이다 (3.00)	4.그렇지 않다 (2.00)
Total		515	24.7%	71.5%	2.9%	1.0%
평형대	30평 미만	80	26.3%	72.5%	1.3%	0.0%
	30-50평 미만	271	24.4%	71.6%	2.6%	1.5%
	50평 이상	164	24.4%	70.7%	**4.3%**	0.6%
지역	서울/인천/경기	110	19.1%	79.1%	1.8%	0.0%
	부산/울산/경남	110	28.2%	69.1%	1.8%	0.9%
	대구/경북	99	33.3%	58.6%	**8.1%**	0.0%
	대전/충청	97	20.6%	77.3%	0.0%	2.1%
	광주/전라	99	22.2%	72.7%	3.0%	2.0%
지역 규모	대도시	398	27.4%	69.1%	2.3%	1.3%
	중소 도시	96	18.8%	78.1%	3.1%	0.0%
	읍면 지역	21	0.0%	85.7%	**14.3%**	0.0%

도서관 유형	공립	66	21.2%	78.8%	0.0%	0.0%
	사립	449	25.2%	70.4%	3.3%	1.1%
조사대상	초등	222	0.0%	98.6%	0.0%	1.4%
	중고등 이상	293	43.3%	50.9%	5.1%	0.7%
이용자 유형	초등생	222	0.0%	98.6%	0.0%	1.4%
	중/고생	37	18.9%	56.8%	**24.3%**	0.0%
	주부	146	48.6%	47.9%	2.1%	1.4%
	기타	110	44.5%	52.7%	2.7%	0.0%
초등생 학년별	초4	82	0.0%	100.0%	0.0%	0.0%
	초5	75	0.0%	98.7%	0.0%	1.3%
	초6	65	0.0%	96.9%	0.0%	3.1%
회원 여부	회원	341	31.7%	66.3%	1.5%	0.6%
	비회원	174	10.9%	81.6%	5.7%	1.7%
성별	남성	171	13.5%	83.6%	1.8%	1.2%
	여성	344	30.2%	65.4%	3.5%	0.9%
연령별	10대	261	3.1%	92.3%	3.4%	1.1%
	20대	35	31.4%	65.7%	2.9%	0.0%
	30대	139	51.1%	46.0%	2.2%	0.7%
	40대	59	47.5%	47.5%	3.4%	1.7%
	50대 이상	21	42.9%	57.1%	0.0%	0.0%
학력별	중졸 이하(초중고포함)	272	6.6%	89.0%	3.3%	1.1%
	고졸	89	39.3%	57.3%	2.2%	1.1%
	대졸 이상	154	48.1%	48.7%	2.6%	0.6%
결혼 상태	기혼	213	48.4%	48.8%	1.9%	0.9%
	미혼	77	28.6%	57.1%	14.3%	0.0%

작은도서관 이용요소별 만족도 측정결과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성/응대서비스’ 만족도가 77.0%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 및 컨텐츠구비’ 만족도는 60.7%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도서관 이용에서 마음에 드는 점으로는, 도서가 많다(17.1%), 집에서 가깝다(15.7%), 직원이 친절하다(9.1%), 깨끗하다(7.0%), 책을 쉽게 빌릴 수 있다(5.8%)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용에서 불만스런 점으로는 신간이 더 많았으면(9.5%), 도서 종류가 더 다양했으면(7.6%), 더 넓었으면(7.4%), 책이 많았으면(6.0%),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3.7%), 오래된 컴퓨터(3.3%), 분위기 산만(3.1%) 등이 지적되었다. 전반적으로 구비자료와 관련된 관심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도서 및 컨텐츠 구비 관련 세부 항목 만족 율은 50~40%대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도서구비 만족 율이 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30평 미만의 작은도서관 이용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50평 이상의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다. 이는 도서관 규모에 따른 고객의 기대 수준 차이에 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4.2.2 운영효과 및 활성화 방향

작은도서관이 어린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이 92.1%로서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읍면지역(72.8%)보다는 중소도시지역(94.6%), 대도시지역(92.5%)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고, 도서관의 평형대가 클수록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주부(64.4%)들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중고생들(27%)은 매우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이용효과에 대해 나이가 많을수록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효과에서 작은 차이이나 생활의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어린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미비하나마 긍정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특히 '매우 도움이 된다'에 50평 이상의 작은도서관이용자가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어, 시설의 크기에 따라 자녀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광주/전라지역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설문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정확한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규모면에서도 대도시에 이용자들이 자녀들에 대한 공공도서관 이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소득 수준과 공공도서관 자녀교육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도서관 이용에 적극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도서관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효과는 미국의 실험조사에서 공공도서관의 실제 이용자는 정보격차의 해소와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보다 대학졸업이상의 중산층들이 공공도서관의 절대 다수(70%)를 차지하는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도서관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을 이용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도서관의 적극적 활용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작은도서관에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도움'조사에서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이용자 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표 9> 어린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된다

중고생이상		사례수	1.매우 도움이 된다 (5.00)	2.도움이 되는 편이다 (4.00)	3.반반이다 (3.00)	4.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2.00)
Total		293	58.0%	34.1%	7.5%	0.3%
평형대	30평 미만	46	**54.3%**	34.8%	10.9%	0.0%
	30-50평 미만	151	**57.6%**	35.8%	6.6%	0.0%
	50평 이상	96	**60.4%**	31.3%	7.3%	1.0%
지역	서울/인천/경기	58	56.9%	36.2%	6.9%	0.0%
	부산/울산/경남	56	64.3%	30.4%	5.4%	0.0%
	대구/경북	78	60.3%	32.1%	6.4%	1.3%
	대전/충청	52	69.2%	28.8%	1.9%	0.0%
	광주/전라	49	36.7%	44.9%	18.4%	0.0%
지역 규모	대도시	227	**59.5%**	**33.0%**	7.5%	0.0%
	중소 도시	55	**56.4%**	**38.2%**	5.5%	0.0%
	읍면 지역	11	**36.4%**	**36.4%**	18.2%	9.1%
도서관 유형	공립	35	57.1%	34.3%	8.6%	0.0%
	사립	258	58.1%	34.1%	7.4%	0.4%
조사대상	중고등 이상	293	58.0%	34.1%	7.5%	0.3%
이용자 유형	중/고생	37	**27.0%**	**35.1%**	**35.1%**	**2.7%**
	주부	146	**64.4%**	**32.2%**	3.4%	0.0%
	기타	110	60.0%	36.4%	3.6%	0.0%
회원 여부	회원	209	66.5%	30.1%	3.3%	0.0%
	비회원	84	36.9%	44.0%	17.9%	1.2%
성별	남성	71	43.7%	50.7%	5.6%	0.0%
	여성	222	62.6%	28.8%	8.1%	0.5%
연령별	10대	39	**28.2%**	35.9%	33.3%	2.6%
	20대	35	**37.1%**	57.1%	5.7%	0.0%
	30대	139	**68.3%**	28.8%	2.9%	0.0%
	40대	59	**66.1%**	32.2%	1.7%	0.0%
	50대 이상	21	**57.1%**	33.3%	9.5%	0.0%
학력별	중졸 이하(중고생포함)	50	46.0%	28.0%	24.0%	2.0%
	고졸	89	53.9%	38.2%	7.9%	0.0%
	대졸 이상	154	64.3%	33.8%	1.9%	0.0%
결혼 상태	기혼	213	64.3%	32.4%	3.3%	0.0%
	미혼	77	39.0%	40.3%	19.5%	1.3%

작은도서관의 역할 및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대다수(90.8%) 응답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 특히 작은도서관

의 규모가 클수록,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고른 관심과 평판을 보이고 있었으며, 어린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령대인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10> 사회적 기여도

중고생이상		사례수	5.매우 그렇다 (5.00)	4.그렇다 (4.00)	3.보통이다 (3.00)
Total		293	45.7%	45.1%	7.8%
평형대	30평 미만	46	**43.5%**	43.5%	13.0%
	30-50평 미만	151	**44.4%**	49.7%	6.0%
	50평 이상	96	**49.0%**	38.5%	8.3%
지역	서울/인천/경기	58	34.5%	56.9%	8.6%
	부산/울산/경남	56	48.2%	44.6%	7.1%
	대구/경북	78	51.3%	37.2%	6.4%
	대전/충청	52	42.3%	48.1%	9.6%
	광주/전라	49	51.0%	40.8%	8.2%
지역 규모	대도시	227	**45.3%**	46.3%	8.4%
	중소 도시	55	**50.9%**	43.6%	5.5%
	읍면 지역	11	**63.6%**	27.3%	9.1%
도서관 유형	공립	35	40.0%	45.7%	14.3%
	사립	258	46.5%	45.0%	7.0%
조사대상	중고등 이상	293	45.7%	45.1%	7.8%
이용자 유형	중/고생	37	**27.0%**	**40.5%**	21.6%
	주부	146	**47.9%**	**44.5%**	7.5%
	기타	110	**49.1%**	**47.3%**	3.6%
회원 여부	회원	209	51.2%	43.1%	5.7%
	비회원	84	32.1%	50.0%	13.1%
성별	남성	71	40.8%	52.1%	7.0%
	여성	222	47.3%	42.8%	8.1%
연령별	10대	39	**25.6%**	43.6%	20.5%
	20대	35	**34.3%**	62.9%	2.9%
	30대	139	**52.5%**	41.7%	5.8%
	40대	59	**50.8%**	42.4%	6.8%
	50대 이상	21	42.9%	47.6%	9.5%
학력별	중졸 이하(중고생포함)	50	40.0%	36.0%	16.0%
	고졸	89	33.7%	55.1%	11.2%
	대졸 이상	154	54.5%	42.2%	3.2%
결혼 상태	기혼	213	49.3%	43.7%	7.0%
	미혼	77	35.1%	49.4%	10.4%

작은도서관 운영에 자원봉사자로써 주민들에게 참여할 의향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중고생 이상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61.4%가 참여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작은도서관 활동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높은 참여의사를 표시하였고, 읍면지역보다 대도시지역의 자원봉사 참여의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자원봉사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인 (매우 있다) 연령은 학력과 연령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사를 '반반이다'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오히려 읍면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의지를 갖고 있었다. 도서관유형에 있어서 공립과 사립에 대한 자원봉사의지는 사립형태의 작은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었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지역주민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소속감과 자신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책임감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차이는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의지에 대한 것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회원의 경우에 참여봉사의지에 대해 '매우 있다'라는 응답이 약 3.4배정도로 높게 조사되어 회원으로써 소속감을 갖는 이용자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충성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원봉사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있다'로 표현한 이용자 그룹을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기준으로 할 경우에, 지역 혹은 재산유무, 성별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과 무의미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의미한 것으로는 지역규모와 도서관의 유형, 이용자 유형, 회원여부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무의미한 것으로는 작은도서관 크기와 지역, 연령별, 학력별, 결혼상태 등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 혹은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은 회원으로 가입된 주민가운데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할 경우에, 충성도가 높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자원봉사자의 모집에 있어, 성별과 기혼여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단, 이 조사결과는 동일한 사례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적 결과로 활용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1> 작은도서관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

중고생이상		사례수	1.매우 있다 (5.00)	2.있다 (4.00)	3.반반 이다 (3.00)	4.없다 (2.00)	5.전혀 없다 (1.00)
Total		293	**16.7%**	**44.7%**	22.5%	13.7%	2.4%
평형대	30평 미만	46	28.3%	43.5%	8.7%	19.6%	0.0%
	30-50평 미만	151	15.2%	44.4%	27.8%	9.9%	2.6%
	50평 이상	96	13.5%	45.8%	20.8%	16.7%	3.1%
지역	서울/인천/경기	58	6.9%	41.4%	27.6%	20.7%	3.4%
	부산/울산/경남	56	17.9%	53.6%	14.3%	12.5%	1.8%
	대구/경북	78	**25.6%**	**39.7%**	19.2%	14.1%	1.3%
	대전/충청	52	15.4%	51.9%	19.2%	11.5%	1.9%
	광주/전라	49	14.3%	38.8%	34.7%	8.2%	4.1%
지역 규모	대도시	227	**18.5%**	**45.8%**	22.5%	12.3%	0.9%
	중소 도시	55	**12.7%**	**41.8%**	18.2%	20.0%	7.3%
	읍면 지역	11	**0.0%**	**36.4%**	45.5%	9.1%	9.1%
도서관 유형	공립	35	17.1%	42.9%	5.7%	31.4%	2.9%
	사립	258	16.7%	45.0%	24.8%	11.2%	2.3%
조사대상	중고등 이상	293	16.7%	44.7%	22.5%	13.7%	2.4%
이용자 유형	중/고생	37	10.8%	29.7%	43.2%	8.1%	8.1%
	주부	146	17.8%	53.4%	17.1%	10.3%	1.4%
	기타	110	17.3%	38.2%	22.7%	20.0%	1.8%
회원 여부	회원	209	21.1%	47.8%	17.7%	12.0%	1.4%
	비회원	84	6.0%	36.9%	34.5%	17.9%	4.8%
성별	남성	71	15.5%	38.0%	28.2%	14.1%	4.2%
	여성	222	17.1%	46.8%	20.7%	13.5%	1.8%
연령별	10대	39	**10.3%**	33.3%	41.0%	7.7%	7.7%
	20대	35	**11.4%**	40.0%	37.1%	8.6%	2.9%
	30대	139	**18.7%**	49.6%	18.7%	11.5%	1.4%
	40대	59	**16.9%**	45.8%	15.3%	22.0%	0.0%
	50대 이상	21	**23.8%**	38.1%	9.5%	23.8%	4.8%
학력별	중졸 이하(중고생포함)	50	20.0%	26.0%	30.0%	16.0%	8.0%
	고졸	89	16.9%	44.9%	22.5%	14.6%	1.1%
	대졸 이상	154	15.6%	50.6%	20.1%	12.3%	1.3%
결혼 상태	기혼	213	17.4%	49.8%	17.4%	14.6%	0.9%
	미혼	77	14.3%	32.5%	37.7%	10.4%	5.2%

작은도서관 후원활동 의향은, 중고생 이상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57.0%가 참여의사를 보였으며, 작은도서관의 크기가 작을수록 참여의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읍면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이, 연령이 높을수록 작은도서관 후원활동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12> 작은도서관 후원활동 의향

중고생이상		사례수	1.매우 있다 (5.00)	2.있다 (4.00)	3.반반 이다 (3.00)	4.없다 (2.00)	5.전혀 없다 (1.00)
Total		293	12.3%	44.7%	30.0%	11.9%	1.0%
평형대	30평 미만	46	**19.6%**	30.4%	28.3%	21.7%	0.0%
	30-50평 미만	151	**12.6%**	42.4%	34.4%	9.3%	1.3%
	50평 이상	96	**8.3%**	55.2%	24.0%	11.5%	1.0%
지역	서울/인천/경기	58	10.3%	41.4%	34.5%	13.8%	0.0%
	부산/울산/경남	56	14.3%	44.6%	30.4%	10.7%	0.0%
	대구/경북	78	19.2%	43.6%	25.6%	9.0%	2.6%
	대전/충청	52	9.6%	55.8%	19.2%	15.4%	0.0%
	광주/전라	49	4.1%	38.8%	42.9%	12.2%	2.0%
지역 규모	대도시	227	**14.5%**	43.6%	29.1%	11.9%	0.9%
	중소 도시	55	**5.5%**	54.5%	29.1%	10.9%	0.0%
	읍면 지역	11	**0.0%**	18.2%	54.5%	18.2%	9.1%
도서관 유형	공립	35	8.6%	42.9%	14.3%	34.3%	0.0%
	사립	258	12.8%	45.0%	32.2%	8.9%	1.2%
조사대상	중고등 이상	293	12.3%	44.7%	30.0%	11.9%	1.0%
이용자 유형	중/고생	37	5.4%	18.9%	59.5%	8.1%	8.1%
	주부	146	11.6%	47.3%	30.8%	10.3%	0.0%
	기타	110	15.5%	50.0%	19.1%	15.5%	0.0%
회원 여부	회원	209	15.8%	49.3%	25.4%	9.1%	0.5%
	비회원	84	3.6%	33.3%	41.7%	19.0%	2.4%
성별	남성	71	11.3%	45.1%	28.2%	14.1%	1.4%
	여성	222	12.6%	44.6%	30.6%	11.3%	0.9%
연령별	10대	39	**5.1%**	20.5%	59.0%	7.7%	7.7%
	20대	35	**0.0%**	48.6%	40.0%	11.4%	0.0%
	30대	139	**12.2%**	48.2%	30.9%	8.6%	0.0%
	40대	59	**22.0%**	52.5%	8.5%	16.9%	0.0%
	50대 이상	21	19.0%	38.1%	14.3%	28.6%	0.0%
학력별	중졸 이하(중고생포함)	50	10.0%	26.0%	46.0%	12.0%	6.0%
	고졸	89	11.2%	39.3%	33.7%	15.7%	0.0%
	대졸 이상	154	13.6%	53.9%	22.7%	9.7%	0.0%
결혼 상태	기혼	213	15.0%	47.9%	24.9%	12.2%	0.0%
	미혼	77	2.6%	37.7%	45.5%	10.4%	3.9%

작은도서관 후원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는 도서기증(60.4%)이 가장 비중이 높고, 후원회비(28.2%), 서가 등 비품기증(10.2%), 자원봉사(2.4%), 도서관홍보(2.4%), 청소 및 도서정리(0.8%), 학습지도(0.4%) 등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이 도서기증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도시지역은 후원회비지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

심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도서기증 비율이 감소하는데 비해서 후원회비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앞서 자원봉사 참여의사에도 확인되었듯이 대구/경북지역이 자원봉사 형식의 후원활동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표 13> 작은도서관 후원활동 참여분야

유형		사례수	도서기증	비품기증	후원회비지원	청소 및 도서정리	학습지도	자원봉사	도서관 홍보
Total		255	60.4%	10.2%	28.2%	0.8%	0.4%	2.4%	2.4%
평형대	30평 미만	36	58.3%	19.4%	25.0%	0.0%	0.0%	2.8%	0.0%
	30-50평 미만	135	68.9%	8.1%	22.2%	0.7%	0.7%	2.2%	2.2%
	50평 이상	84	47.6%	9.5%	39.3%	1.2%	0.0%	2.4%	3.6%
지역	서울/인천/경기	50	40.0%	10.0%	42.0%	0.0%	0.0%	2.0%	12.0%
	부산/울산/경남	50	74.0%	8.0%	22.0%	2.0%	0.0%	0.0%	0.0%
	대구/경북	69	62.3%	11.6%	21.7%	1.4%	1.4%	**5.8%**	0.0%
	대전/충청	44	65.9%	11.4%	25.0%	0.0%	0.0%	2.3%	0.0%
	광주/전라	42	59.5%	9.5%	33.3%	0.0%	0.0%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198	**61.1%**	10.1%	**27.3%**	1.0%	0.5%	2.0%	3.0%
	중소 도시	49	**55.1%**	10.2%	**34.7%**	0.0%	0.0%	4.1%	0.0%
	읍면 지역	8	**75.0%**	12.5%	**12.5%**	0.0%	0.0%	0.0%	0.0%
도서관유형	공립	23	**73.9%**	13.0%	**8.7%**	4.3%	0.0%	0.0%	0.0%
	사립	232	**59.1%**	9.9%	**30.2%**	0.4%	0.4%	2.6%	2.6%
조사대상	중고등 이상	255	60.4%	10.2%	28.2%	0.8%	0.4%	2.4%	2.4%
이용자유형	중/고생	31	77.4%	9.7%	16.1%	0.0%	0.0%	0.0%	0.0%
	주부	131	58.0%	10.7%	29.0%	0.8%	0.0%	2.3%	3.1%
	기타	93	58.1%	9.7%	31.2%	1.1%	1.1%	3.2%	2.2%
회원여부	회원	189	56.6%	11.1%	31.7%	1.1%	0.5%	2.6%	2.6%
	비회원	66	71.2%	7.6%	18.2%	0.0%	0.0%	1.5%	1.5%
성별	남성	60	68.3%	11.7%	20.0%	1.7%	1.7%	3.3%	0.0%
	여성	195	57.9%	9.7%	30.8%	0.5%	0.0%	2.1%	3.1%
연령별	10대	33	**78.8%**	9.1%	**15.2%**	0.0%	0.0%	0.0%	0.0%
	20대	31	**61.3%**	9.7%	**16.1%**	0.0%	3.2%	6.5%	3.2%
	30대	127	**58.3%**	12.6%	**28.3%**	0.8%	0.0%	0.8%	3.1%
	40대	49	**55.1%**	4.1%	**42.9%**	2.0%	0.0%	2.0%	2.0%
	50대 이상	15	**53.3%**	13.3%	**33.3%**	0.0%	0.0%	13.3%	0.0%
학력별	고졸미만	41	65.9%	7.3%	24.4%	0.0%	0.0%	4.9%	0.0%
	고졸	75	69.3%	13.3%	20.0%	1.3%	0.0%	2.7%	0.0%
	대졸 이상	139	54.0%	9.4%	33.8%	0.7%	0.7%	1.4%	4.3%
결혼상태	기혼	187	55.6%	11.2%	32.1%	1.1%	0.0%	2.7%	3.2%
	미혼	66	74.2%	7.6%	16.7%	0.0%	1.5%	1.5%	0.0%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4.6%로 가장 높았고, 지자체, 공공도서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지원 및 관심(23.5%), 정부의 재정적 지원(19.1%), 작은도서관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15.7%), 작은도서관 관련 홍보 및 캠페인 확대(7.2%), 교통 편의성 등 주민 접근성 제고(4.8%), 정보화 및 네트워크 확대(3.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작은도서관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주민의 자발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실질적 지원제도를 지적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지역에서 지자체 공공도서관 등의 행정적 지원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표 14>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우선조건

중고생이상		사례수	1.작은도서관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	2.지역주민의 자발적 지원 및 관심	3.지자체,공공도서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지원 및 관심	4.정부의 재정적 지원	5.도서관 운영자 및 근무자의 전문성 확보	6.정보화,네트워크 확대	7.교통 편의성 제고 등 도서관의 주민 접근성 제고	8.작은도서관 관련 홍보 및 캠페인 확대	9.기타
Total		293	15.7%	24.6%	23.5%	19.1%	1.4%	3.1%	4.8%	7.2%	0.7%
평형대	30평 미만	46	15.2%	15.2%	21.7%	19.6%	0.0%	13.0%	2.2%	13.0%	0.0%
	30-50평 미만	151	15.2%	27.8%	21.2%	21.9%	2.6%	1.3%	4.6%	4.6%	0.7%
	50평 이상	96	16.7%	24.0%	28.1%	14.6%	0.0%	1.0%	6.3%	8.3%	1.0%
지역	서울/인천/경기	58	19.0%	22.4%	15.5%	20.7%	0.0%	1.7%	8.6%	10.3%	1.7%
	부산/울산/경남	56	19.6%	21.4%	23.2%	21.4%	1.8%	3.6%	3.6%	3.6%	1.8%
	대구/경북	78	15.4%	23.1%	20.5%	23.1%	2.6%	2.6%	6.4%	6.4%	0.0%
	대전/충청	52	9.6%	25.0%	**38.5%**	15.4%	0.0%	0.0%	1.9%	9.6%	0.0%
	광주/전라	49	14.3%	32.7%	22.4%	12.2%	2.0%	8.2%	2.0%	6.1%	0.0%
지역규모	대도시	227	**17.2%**	26.0%	23.3%	19.8%	1.8%	2.2%	2.6%	6.2%	0.9%
	중소도시	55	**10.9%**	16.4%	23.6%	16.4%	0.0%	7.3%	14.5%	10.9%	0.0%
	읍면지역	11	**9.1%**	36.4%	27.3%	18.2%	0.0%	0.0%	0.0%	9.1%	0.0%
도서관 유형	공립	35	14.3%	14.3%	25.7%	25.7%	0.0%	2.9%	5.7%	11.4%	0.0%
	사립	258	15.9%	26.0%	23.3%	18.2%	1.6%	3.1%	4.7%	6.6%	0.8%
조사대상	중고등 이상	293	15.7%	24.6%	23.5%	19.1%	1.4%	3.1%	4.8%	7.2%	0.7%
이용자 유형	중/고생	37	13.5%	27.0%	13.5%	18.9%	2.7%	13.5%	0.0%	10.8%	0.0%
	주부	146	17.1%	21.2%	26.7%	22.6%	0.7%	0.7%	3.4%	6.8%	0.7%
	기타	110	14.5%	28.2%	22.7%	14.5%	1.8%	2.7%	8.2%	6.4%	0.9%
회원여부	회원	209	15.8%	23.0%	25.8%	19.6%	1.4%	1.9%	4.3%	7.2%	1.0%

	비회원	84	15.5%	28.6%	17.9%	17.9%	1.2%	6.0%	6.0%	7.1%	0.0%
성별	남성	71	14.1%	28.2%	21.1%	15.5%	2.8%	5.6%	5.6%	7.0%	0.0%
	여성	222	16.2%	23.4%	24.3%	20.3%	0.9%	2.3%	4.5%	7.2%	0.9%
연령별	10대	39	**12.8%**	**30.8%**	12.8%	**17.9%**	2.6%	12.8%	0.0%	10.3%	0.0%
	20대	35	**8.6%**	**40.0%**	20.0%	**14.3%**	2.9%	2.9%	8.6%	2.9%	0.0%
	30대	139	**16.5%**	**23.0%**	27.3%	**17.3%**	0.7%	0.7%	5.0%	8.6%	0.7%
	40대	59	**18.6%**	**15.3%**	25.4%	**23.7%**	1.7%	3.4%	5.1%	5.1%	1.7%
	50대 이상	21	**19.0%**	**23.8%**	19.0%	**28.6%**	0.0%	0.0%	4.8%	4.8%	0.0%
학력별	고졸미만	50	**12.0%**	**28.0%**	18.0%	20.0%	2.0%	10.0%	0.0%	10.0%	0.0%
	고졸	89	**14.6%**	**25.8%**	27.0%	20.2%	2.2%	1.1%	2.2%	6.7%	0.0%
	대졸 이상	154	**17.5%**	**22.7%**	23.4%	18.2%	0.6%	1.9%	7.8%	6.5%	1.3%
결혼상태	기혼	213	17.4%	22.1%	27.2%	19.7%	0.0%	1.4%	3.8%	7.5%	0.9%
	미혼	77	11.7%	32.5%	14.3%	15.6%	5.2%	7.8%	7.8%	5.2%	0.0%

중고생 이상 작은도서관 이용자 293명이 지적한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요망되는 희망사항으로는, 정부관심과 지원(16.7%), 다양한 서적비치(14.0%), 홍보확대(9.6%), 신간도서 확대(8.5%), 보다 많은 도서(5.5%), 지역주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4.8%), 가까운 거리(4.1%), 지자체의 지원(4.1%), 공간 및 시설확충(4.1%), 지역사회 문화교류(3.1%) 등이 지적되었다.

4.2.3 인지도 및 이용행태

작은도서관 이용자들 515명이 작은도서관을 알게 된 계기로는 29.5%의 응답자가 친구나 주위 자녀 등 주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21.4%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다가(21.0%), 도서관 안내 표지나 간판 등을 보고(15.1%), 지역신문/홍보물을 통해(4.7%), 학교/학원 등을 통해(4.1%), 도서관 홍보물/홈페이지 등을 통해(2.9%), 기타(1.4%), 책을 통해(0.2%) 등의 순으로 작은도서관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경로가 주변인들과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역 홍보물을 통한 인지기회가 많지 않았다.

읍면지역 이용자들이 주변인(52.4%)이나 가족(33.3%)을 통한 인지기회가, 초등학생의 경우 가족(41.0%)을 통한 인지기회가 월등하게 높았다.

<표 15> 도서관 인지경로

전체		사례수	4.친구/주위 자녀 부모 등 주변인을 통해	5.자녀/부모(형재/자매) 등 가족을 통해	7.다른 시설을 이용하다가	1.도서관 안내지나 간판을 보고	2.지역 신문/홍보물을 통해	6.학교/학원 등을 통해	3.도서관 홍보물/홈페이지 등을 통해	8.기타	17.책
Total		515	**29.5%**	**21.4%**	**21.0%**	**15.1%**	**4.7%**	**4.1%**	**2.9%**	**1.4%**	**0.2%**
평형대	30평 미만	80	28.8%	18.8%	22.5%	16.3%	2.5%	10.0%	1.3%	0.0%	0.0%
	30-50평 미만	271	27.7%	21.8%	20.7%	14.8%	5.9%	4.4%	3.0%	1.8%	0.0%
	50평 이상	164	32.9%	22.0%	20.7%	15.2%	3.7%	0.6%	3.7%	1.2%	0.6%
지역	서울/인천/경기	110	29.1%	18.2%	25.5%	13.6%	7.3%	1.8%	3.6%	0.9%	0.9%
	부산/울산/경남	110	25.5%	37.3%	10.0%	9.1%	6.4%	7.3%	3.6%	0.9%	0.0%
	대구/경북	99	32.3%	14.1%	28.3%	13.1%	7.1%	3.0%	2.0%	0.0%	0.0%
	대전/충청	97	25.8%	21.6%	22.7%	21.6%	2.1%	5.2%	1.0%	0.0%	0.0%
	광주/전라	99	35.4%	14.1%	19.2%	19.2%	0.0%	3.0%	4.0%	5.1%	0.0%
지역 규모	대도시	398	26.4%	20.9%	22.1%	15.8%	4.5%	4.8%	3.8%	1.8%	0.3%
	중소 도시	96	37.5%	20.8%	20.8%	13.5%	5.2%	2.1%	0.0%	0.0%	0.0%
	읍면 지역	21	**52.4%**	**33.3%**	0.0%	9.5%	4.8%	0.0%	0.0%	0.0%	0.0%
도서관 유형	공립	66	27.3%	21.2%	22.7%	19.7%	3.0%	4.5%	1.5%	0.0%	0.0%
	사립	449	29.8%	21.4%	20.7%	14.5%	4.9%	4.0%	3.1%	1.6%	0.2%
조사대상	초등	222	25.2%	**41.0%**	14.4%	9.9%	0.0%	6.8%	0.9%	1.8%	0.0%
	중고등 이상	293	32.8%	6.5%	25.9%	19.1%	8.2%	2.0%	4.4%	1.0%	0.3%
이용자 유형	초등생	222	25.2%	41.0%	14.4%	9.9%	0.0%	6.8%	0.9%	1.8%	0.0%
	중/고생	37	35.1%	18.9%	21.6%	18.9%	5.4%	0.0%	0.0%	0.0%	0.0%
	주부	146	40.4%	4.8%	19.9%	16.4%	10.3%	1.4%	4.8%	2.1%	0.7%
	기타	110	21.8%	4.5%	35.5%	22.7%	6.4%	3.6%	5.5%	0.0%	0.0%
초등생 학년별	초4	82	18.3%	53.7%	11.0%	8.5%	0.0%	6.1%	1.2%	1.2%	0.0%
	초5	75	28.0%	45.3%	12.0%	8.0%	0.0%	6.7%	0.0%	0.0%	0.0%
	초6	65	30.8%	20.0%	21.5%	13.8%	0.0%	7.7%	1.5%	4.6%	0.0%
회원 여부	회원	341	28.7%	22.3%	21.4%	12.6%	6.5%	3.8%	3.8%	0.9%	0.3%
	비회원	174	31.0%	19.5%	20.1%	20.1%	1.1%	4.6%	1.1%	2.3%	0.0%
성별	남성	171	23.4%	29.8%	19.3%	17.0%	1.8%	5.3%	3.5%	0.0%	0.0%
	여성	344	32.6%	17.2%	21.8%	14.2%	6.1%	3.5%	2.6%	2.0%	0.3%
연령별	10대	261	27.2%	**37.5%**	15.3%	11.1%	0.8%	5.7%	0.8%	1.5%	0.0%
	20대	35	28.6%	5.7%	**25.7%**	**25.7%**	5.7%	2.9%	5.7%	0.0%	0.0%
	30대	139	**35.3%**	2.2%	21.6%	19.4%	10.1%	2.9%	7.2%	1.4%	0.7%
	40대	59	**32.2%**	8.5%	27.1%	20.3%	6.8%	1.7%	1.7%	1.7%	0.0%
	50대 이상	21	14.3%	9.5%	**61.9%**	4.8%	9.5%	0.0%	0.0%	0.0%	0.0%
학력별	고졸미만	272	26.5%	35.7%	17.6%	11.0%	1.1%	5.9%	0.7%	1.5%	0.0%
	고졸	89	28.1%	7.9%	31.5%	21.3%	4.5%	1.1%	3.4%	2.2%	0.0%
	대졸 이상	154	35.7%	3.9%	20.8%	18.8%	11.0%	2.6%	6.5%	0.6%	0.6%
결혼 상태	기혼	213	33.8%	5.2%	24.9%	16.9%	9.4%	2.8%	5.6%	1.4%	0.5%
	미혼	77	31.2%	10.4%	27.3%	24.7%	5.2%	0.0%	1.3%	0.0%	0.0%

연령별로 10대는 가족(37.5%)을 통해서, 활동성이 높은 20대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다가(25.7%) 혹은 도서관 안내표지나 간판을 보고(25.7%) 알게 되었으며, 30대(35.3%) 및 40대(32.2%)는 주변인을 통해서, 50대 이상의 장년층은 다른 시설을 이용하다가(61.9%) 알게 되는 비율이 가장 높게 지적되었다.

작은도서관 이용자 515명의 도서관 이용은 주말(37.7%)보다는 평일(62.3%)이, 오전(16.1%)보다는 오후(83.9%)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지역이 주말/휴일 이용비율(47.5%)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전/충청지역이 평일이용 집중(90.0%)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읍면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평일이용 비율이 28.6%로 낮은 반면, 주말/휴일 이용비율이 71.4%를 차지했으며, 오후 이용 집중이 90.5%를 보였다. 도서관 유형별로는 공립도서관이 평일이용이 90.9%나 되었지만, 사립도서관들은 주말/공휴일 이용비율이 41.9%나 되어 대조적이었고, 이용시간에 있어서는 공립도서관들이 오후에 무려 97.0%의 편중현상을 나타내었다.

이용자 유형에 있어서는 초등학생들의 학년이 높을수록 주말이용이 높았으며, 중고생 역시 주말이용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평일 이용비율이 높고, 주말 이용비율이 낮았으며, 이용시간에 있어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오전 이용 비율이 높고, 오후 이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이용일시 및 시간대

전체		사례수	주 이용 일시		이용 시간대	
			평일	주말/휴일	오전	오후
Total		515	62.3%	37.7%	16.1%	83.9%
평형대	30평 미만	80	85.0%	15.0%	5.0%	95.0%
	30-50평 미만	271	53.9%	46.1%	19.6%	80.4%
	50평 이상	164	65.2%	34.8%	15.9%	84.1%
지역	서울/인천/경기	110	53.6%	46.4%	21.8%	78.2%
	부산/울산/경남	110	55.5%	44.5%	13.6%	86.4%
	대구/경북	99	52.5%	**47.5%**	23.2%	76.8%
	대전/충청	97	**82.5%**	**17.5%**	9.3%	90.7%
	광주/전라	99	69.7%	30.3%	12.1%	87.9%
지역 규모	대도시	398	64.3%	35.7%	16.1%	83.9%
	중소 도시	96	61.5%	38.5%	17.7%	82.3%
	읍면 지역	21	28.6%	**71.4%**	9.5%	**90.5%**
도서관 유형	공립	66	90.9%	9.1%	3.0%	**97.0%**
	사립	449	58.1%	**41.9%**	18.0%	82.0%
조사대상	초등	222	57.7%	42.3%	11.3%	88.7%
	중고등 이상	293	65.9%	34.1%	19.8%	80.2%
이용자 유형	초등생	222	57.7%	**42.3%**	11.3%	88.7%
	중/고생	37	45.9%	**54.1%**	13.5%	86.5%

	주부	146	80.1%	19.9%	21.9%	78.1%
	기타	110	53.6%	46.4%	19.1%	80.9%
초등생 학년별	초4	82	68.3%	31.7%	9.8%	90.2%
	초5	75	58.7%	41.3%	10.7%	89.3%
	초6	65	43.1%	**56.9%**	13.8%	86.2%
회원 여부	회원	341	65.7%	34.3%	16.4%	83.6%
	비회원	174	55.7%	44.3%	15.5%	84.5%
성별	남성	171	55.6%	44.4%	12.3%	87.7%
	여성	344	65.7%	34.3%	18.0%	82.0%
연령별	10대	261	**55.9%**	**44.1%**	**11.5%**	**88.5%**
	20대	35	**62.9%**	**37.1%**	**20.0%**	**80.0%**
	30대	139	**70.5%**	**29.5%**	**18.0%**	**82.0%**
	40대	59	**64.4%**	**35.6%**	**25.4%**	**74.6%**
	50대 이상	21	**81.0%**	**19.0%**	**28.6%**	**71.4%**
학력별	중졸 이하(초중고 포함)	272	57.4%	42.6%	12.1%	87.9%
	고졸	89	64.0%	36.0%	14.6%	85.4%
	대졸 이상	154	70.1%	29.9%	24.0%	76.0%
결혼 상태	기혼	213	69.5%	30.5%	20.2%	79.8%
	미혼	77	54.5%	45.5%	16.9%	83.1%

작은도서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서비스로는 책읽기(80.8%)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책 빌리기(56.9%), 컴퓨터 이용(12.6%), 독서프로그램(10.9%), 공부방(9.7%), 어린이 문화강좌(2.5%) 등으로 응답하였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이 대출비중이 높은 데 비하여 읍면지역은 컴퓨터이용(57.1%)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고, 독서프로그램은 대도시지역(12.8%)에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유형별로는 초등학생(89.6%)이 열람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데 비하여 주부(69.9%)나 기타 이용자(65.5%)들은 대출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학년이 높을수록 컴퓨터 등 부대시설 이용비중이 높고, 독서프로그램의 이용비중이 낮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또한 이용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열람이용이 낮아지는 반면, 대출이용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작은도서관 이용서비스

전체		사례수	1.도서 열람/책 읽기	2.도서 대출/책 빌리기	3.DVD, 시청각 자료 열람	4.DVD, 시청각 자료 대출	5.독서실/컴퓨터 등 부대시설	6.공부방/학습지도 프로그램	7.독서토론/동화구연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	8.어린이대상 문화강좌	9.성인대상 문화강좌	10.체험학습/캠프 등 프로그램	14.기타
Total		515	80.8%	56.9%	1.9%	0.6%	12.6%	9.7%	10.9%	2.9%	1.6%	2.5%	0.4%
평형대	30평 미만	80	87.5%	68.8%	0.0%	0.0%	3.8%	6.3%	7.5%	1.3%	0.0%	1.3%	0.0%
	30-50평 미만	271	81.9%	50.9%	3.0%	1.1%	12.2%	10.7%	14.8%	4.4%	2.2%	1.8%	0.7%
	50평 이상	164	75.6%	61.0%	1.2%	0.0%	17.7%	9.8%	6.1%	1.2%	1.2%	4.3%	0.0%
지역	서울/인천/경기	110	84.5%	58.2%	6.4%	1.8%	9.1%	5.5%	11.8%	6.4%	1.8%	4.5%	0.9%
	부산/울산/경남	110	85.5%	65.5%	0.0%	0.0%	3.6%	7.3%	33.6%	5.5%	2.7%	0.9%	0.0%
	대구/경북	99	67.7%	55.6%	1.0%	1.0%	22.2%	6.1%	0.0%	1.0%	2.0%	1.0%	0.0%
	대전/충청	97	71.1%	68.0%	0.0%	0.0%	6.2%	17.5%	2.1%	1.0%	1.0%	5.2%	0.0%
	광주/전라	99	93.9%	36.4%	2.0%	0.0%	23.2%	13.1%	4.0%	0.0%	0.0%	1.0%	1.0%
지역규모	대도시	398	83.7%	58.5%	0.8%	0.3%	9.3%	9.0%	12.8%	3.0%	1.8%	2.5%	0.5%
	중소 도시	96	72.9%	59.4%	6.3%	2.1%	16.7%	14.6%	5.2%	3.1%	1.0%	2.1%	0.0%
	읍면 지역	21	61.9%	14.3%	4.8%	0.0%	57.1%	0.0%	0.0%	0.0%	0.0%	4.8%	0.0%
도서관 유형	공립	66	80.3%	68.2%	0.0%	0.0%	4.5%	3.0%	7.6%	1.5%	1.5%	1.5%	0.0%
	사립	449	80.8%	55.2%	2.2%	0.7%	13.8%	10.7%	11.4%	3.1%	1.6%	2.7%	0.4%
조사대상	초등	222	89.6%	48.6%	2.3%	0.5%	14.0%	15.8%	13.5%	0.0%	0.0%	3.2%	0.5%
	중고등 이상	293	74.1%	63.1%	1.7%	0.7%	11.6%	5.1%	8.9%	5.1%	2.7%	2.0%	0.3%
이용자 유형	초등생	222	89.6%	48.6%	2.3%	0.5%	14.0%	15.8%	13.5%	0.0%	0.0%	3.2%	0.5%
	중/고생	37	67.6%	29.7%	2.7%	0.0%	16.2%	2.7%	2.7%	0.0%	0.0%	0.0%	0.0%
	주부	146	76.7%	69.9%	0.7%	0.0%	4.8%	6.8%	13.0%	8.2%	5.5%	1.4%	0.7%
	기타	110	72.7%	65.5%	2.7%	1.8%	19.1%	3.6%	5.5%	2.7%	0.0%	3.6%	0.0%
초등생 학년별	초4	82	82.9%	48.8%	2.4%	0.0%	11.0%	18.3%	17.1%	0.0%	0.0%	1.2%	0.0%
	초5	75	93.3%	52.0%	1.3%	0.0%	14.7%	12.0%	14.7%	0.0%	0.0%	6.7%	0.0%
	초6	65	93.8%	44.6%	3.1%	1.5%	16.9%	16.9%	7.7%	0.0%	0.0%	1.5%	1.5%
회원여부	회원	341	78.3%	69.8%	2.3%	0.6%	8.8%	11.4%	12.0%	3.2%	2.3%	2.3%	0.6%
	비회원	174	85.6%	31.6%	1.1%	0.6%	20.1%	6.3%	8.6%	2.3%	0.0%	2.9%	0.0%
성별	남성	171	84.8%	48.5%	1.8%	0.6%	17.5%	9.4%	9.9%	0.6%	0.0%	2.3%	0.6%

	여성	344	78.8%	61.0%	2.0%	0.6%	10.2%	9.9%	11.3%	4.1%	2.3%	2.6%	0.3%
연령별	10대	261	86.6%	46.0%	2.3%	0.4%	14.2%	14.2%	11.9%	0.0%	0.0%	2.7%	0.4%
	20대	35	80.0%	57.1%	5.7%	2.9%	22.9%	2.9%	0.0%	0.0%	0.0%	0.0%	0.0%
	30대	139	74.8%	71.2%	0.7%	0.0%	7.2%	6.5%	15.1%	7.9%	5.8%	3.6%	0.0%
	40대	59	74.6%	67.8%	1.7%	1.7%	13.6%	5.1%	6.8%	6.8%	0.0%	1.7%	1.7%
	50대 이상	21	66.7%	66.7%	0.0%	0.0%	9.5%	0.0%	0.0%	0.0%	0.0%	0.0%	0.0%
학력별	중졸 이하(초중고 포함)	272	84.9%	46.7%	2.2%	0.4%	14.0%	13.6%	11.4%	0.0%	0.0%	2.6%	0.4%
	고졸	89	80.9%	67.4%	0.0%	0.0%	6.7%	7.9%	6.7%	4.5%	0.0%	2.2%	0.0%
	대졸 이상	154	73.4%	68.8%	2.6%	1.3%	13.6%	3.9%	12.3%	7.1%	5.2%	2.6%	0.6%
결혼상태	기혼	213	73.7%	70.9%	0.9%	0.5%	8.5%	5.2%	11.3%	7.0%	3.8%	2.3%	0.5%
	미혼	77	74.0%	41.6%	3.9%	1.3%	20.8%	3.9%	2.6%	0.0%	0.0%	1.3%	0.0%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중고생 이상 293명의 주 열람 및 대출 이용분야는 아동도서(46.8%), 소설(39.2%), 교양(21.2%), 자기개발(13.3%), 학습(7.5%), 종교(6.5%), 에세이/시(6.1%), 사회/정치(6.1%), 과학(5.5%), 경영/경제(5.1%), 만화(1.4%), 교육(0.7%), 기타(0.3%) 등으로 응답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7.4%)지역과 광주/전라(73.5%)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설이용 비중이 높았고, 이는 도시지역에 비해서 읍면지역(72.7%)의 소설이용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반복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읍면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 달리 아동도서의 이용이 없는 반면, 경제/경영(27.3%)과 사회/정치(18.2%) 등의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성별로 자료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남성들이 소설(46.5%)과 교양(29.6%), 경영/경제(18.3%), 사회/정치(16.9%) 등에서 이용이 많은 데 비하여, 여성들은 아동도서(58.6%), 소설(36.9%), 교양(18.5%)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생들이 소설(73.0%)에 이용비율이 높은 반면, 주부들은 아동도서(71.9%)에 집중되고 있었다. 한편 연령별로는 10대가 소설(74.8%)과 학습(12.8%)을, 20대는 소설(65.7%)과 교양(20.0%)을, 30대는 아동도서(74.8%)와 소설(24.5%)을, 40대는 아동도서(44.1%)와 소설(28.5%)을, 50대이상은 소설(57.1%)과 사회/정치(33.3%) 등에 자료이용이 집중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18> 평소 읽거나 대출하는 분야

중고생이상		사례수	1. 아동도서	2.소설	9.교양	10. 자기계발	8. 학습	13. 종교	3.시/에세이	5. 사회/정치	7. 과학	4. 인문	6. 경제/경영	12. 만화	15. 교육	14. 기타
Total		293	**46.8%**	**39.2%**	**21.2%**	**13.3%**	**7.5%**	6.5%	6.1%	6.1%	5.8%	5.5%	5.1%	1.4%	0.7%	0.3%
평형대	30평 미만	46	39.1%	47.8%	8.7%	4.3%	6.5%	2.2%	4.3%	4.3%	6.5%	2.2%	2.2%	0.0%	0.0%	0.0%
	30-50평 미만	151	54.3%	31.1%	25.8%	18.5%	8.6%	6.0%	3.3%	5.3%	7.9%	5.3%	5.3%	2.0%	0.7%	0.0%
	50평 이상	96	38.5%	47.9%	19.8%	9.4%	6.3%	9.4%	11.5%	8.3%	2.1%	7.3%	6.3%	1.0%	1.0%	1.0%
지역	서울/인천/경기	58	67.2%	20.7%	6.9%	13.8%	1.7%	3.4%	1.7%	3.4%	6.9%	1.7%	5.2%	0.0%	1.7%	0.0%
	부산/울산/경남	56	75.0%	32.1%	33.9%	19.6%	5.4%	3.6%	5.4%	3.6%	3.6%	5.4%	1.8%	0.0%	0.0%	1.8%
	대구/경북	78	12.8%	**47.4%**	28.2%	15.4%	15.4%	7.7%	5.1%	12.8%	9.0%	10.3%	10.3%	0.0%	1.3%	0.0%
	대전/충청	52	67.3%	23.1%	13.5%	5.8%	3.8%	17.3%	17.3%	5.8%	0.0%	0.0%	1.9%	1.9%	0.0%	0.0%
	광주/전라	49	22.4%	**73.5%**	20.4%	10.2%	8.2%	0.0%	2.0%	2.0%	8.2%	8.2%	4.1%	6.1%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227	53.3%	38.8%	22.5%	14.5%	7.9%	4.4%	3.5%	4.4%	7.0%	5.3%	2.6%	1.3%	0.9%	0.4%
	중소도시	55	29.1%	34.5%	18.2%	7.3%	5.5%	16.4%	18.2%	10.9%	1.8%	3.6%	10.9%	1.8%	0.0%	0.0%
	읍면지역	11	0.0%	**72.7%**	9.1%	18.2%	9.1%	0.0%	0.0%	**18.2%**	0.0%	18.2%	**27.3%**	0.0%	0.0%	0.0%
도서관유형	공립	35	45.7%	54.3%	20.0%	8.6%	2.9%	0.0%	14.3%	2.9%	2.9%	5.7%	2.9%	0.0%	0.0%	2.9%
	사립	258	46.9%	37.2%	21.3%	14.0%	8.1%	7.4%	5.0%	6.6%	6.2%	5.4%	5.4%	1.6%	0.8%	0.0%
조사대상	중고등이상	293	46.8%	39.2%	21.2%	13.3%	7.5%	6.5%	6.1%	6.1%	5.8%	5.5%	5.1%	1.4%	0.7%	0.3%
이용자유형	중/고생	37	5.4%	**73.0%**	13.5%	5.4%	13.5%	0.0%	0.0%	2.7%	10.8%	5.4%	0.0%	5.4%	0.0%	0.0%
	주부	146	**71.9%**	29.5%	16.4%	11.6%	5.5%	6.8%	6.2%	2.7%	4.8%	2.1%	0.7%	0.7%	0.7%	0.7%
	기타	110	27.3%	40.9%	30.0%	18.2%	8.2%	8.2%	8.2%	11.8%	5.5%	10.0%	12.7%	0.9%	0.9%	0.0%
회원여부	회원	209	52.6%	35.4%	23.4%	14.8%	7.7%	9.1%	7.7%	5.7%	7.2%	2.9%	3.3%	0.5%	1.0%	0.5%
	비회원	84	32.1%	48.8%	15.5%	9.5%	7.1%	0.0%	2.4%	7.1%	2.4%	11.9%	9.5%	3.6%	0.0%	0.0%
성별	남성	71	9.9%	**46.5%**	**29.6%**	16.9%	5.6%	5.6%	4.2%	**16.9%**	9.9%	9.9%	**18.3%**	4.2%	0.0%	0.0%
	여성	222	**58.6%**	**36.9%**	18.5%	12.2%	8.1%	6.8%	6.8%	2.7%	4.5%	4.1%	0.9%	0.5%	0.9%	0.5%

연령별	10대	39	5.1%	74.4%	12.8%	5.1%	12.8%	2.6%	0.0%	2.6%	10.3%	5.1%	0.0%	5.1%	0.0%	0.0%
	20대	35	11.4%	65.7%	20.0%	17.1%	8.6%	2.9%	5.7%	8.6%	2.9%	5.7%	11.4%	2.9%	0.0%	0.0%
	30대	139	74.8%	24.5%	20.1%	12.9%	5.8%	4.3%	5.8%	2.9%	6.5%	4.3%	5.0%	0.7%	1.4%	0.0%
	40대	59	44.1%	28.8%	27.1%	16.9%	6.8%	8.5%	10.2%	5.1%	1.7%	6.8%	1.7%	0.0%	0.0%	0.0%
	50대 이상	21	4.8%	57.1%	28.6%	14.3%	9.5%	28.6%	9.5%	33.3%	9.5%	9.5%	14.3%	0.0%	0.0%	4.8%
학력별	중졸 이하(중고 포함)	50	8.0%	62.0%	14.0%	6.0%	12.0%	14.0%	4.0%	4.0%	8.0%	6.0%	0.0%	4.0%	0.0%	0.0%
	고졸	89	52.8%	47.2%	21.3%	7.9%	9.0%	4.5%	11.2%	6.7%	5.6%	2.2%	7.9%	2.2%	0.0%	1.1%
	대졸 이상	154	55.8%	27.3%	23.4%	18.8%	5.2%	5.2%	3.9%	6.5%	5.2%	7.1%	5.2%	0.0%	1.3%	0.0%
결혼 상태	기혼	213	62.4%	27.2%	22.1%	14.1%	6.6%	6.1%	7.0%	5.2%	4.7%	4.7%	4.2%	0.9%	0.9%	0.5%
	미혼	77	5.2%	72.7%	16.9%	11.7%	10.4%	5.2%	3.9%	7.8%	9.1%	6.5%	7.8%	2.6%	0.0%	0.0%

4.3 결과분석 및 시사점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 이용자들에 대한 작은도서관 이해와 사회적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1)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고, 사회적 평판 역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작은도서관 이용자 515명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반적 만족율은 74.2%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이용에서 마음에 드는 점으로는, 도서가 많다(17.1%), 집에서 가깝다(15.7%), 직원이 친절하다(9.1%), 깨끗하다(7.0%), 책을 쉽게 빌릴 수 있다(5.8%) 등을 지적하였다.

- 작은도서관이 어린이 및 청소년 등에게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92.1%)이 압도적 비율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72.8%)보다는 중소도시(94.6%) 및 대도시(92.5%)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고, 도서관의 규모가 클수록 매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역할 및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클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과

평판을 보였다.

2)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은 자원봉사 및 후원활동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과 참여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 작은도서관 운영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대다수(61.4%) 긍정적 참여의사를 나타냈으며, 특히 읍면지역보다 대도시지역이,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 작은도서관 후원활동으로는 도서기증(60.4%)이 가장 비중이 높고, 후원회비(28.2%), 서가 등 비품기증(10.2%), 자원봉사(2.4%) 등을 지적하였고, 읍면지역이 도서기증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도시지역은 후원회비지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연령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제도를 지적하고 있는 반면, 연령이 낮고, 학력이 낮을수록 주민의 자발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 작은도서관을 알게 되는 인지경로는 가족이나 주변인들과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이었고, 지역홍보물을 통한 인지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읍면지역 이용자들이 주변인(52.4%)이나 가족(33.3%)을 통한 인지기회가, 초등학생의 경우 가족(41.0%)을 통한 인지기회가 월등하게 높았다. 연령별로 10대는 가족(37.5%)을 통해서, 활동성이 높은 20대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다가(25.7%) 혹은 도서관 안내표지나 간판을 보고(25.7%) 알게 되었으며, 30대(35.3%) 및 40대(32.2%)는 주변인을 통해서, 50대 이상의 장년층은 다른 시설을 이용하다가(61.9%) 알게 되는 비율이 가장 높게 지적되었다.

4) 작은도서관 이용은 평일 오후에 집중되고 있으며,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책읽기와 대출로서 독서기능이 가장 활발하고, 특히 농어촌 읍면지역의 경우 컴퓨터 등 부대시설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작은도서관 이용자는 주말(37.7%)보다는 평일(62.3%)에, 오전(16.1%)보다는 오후(83.9%)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읍면지역은 평일 오후이용 집중률(90.5%)이 도시지역보다 높고, 평일이용보다는 주말/휴일 이용비율(71.4%)이 높았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평일 이용비율이 높고, 주말 이용비율이 낮았으며, 이용시간에 있어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오전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작은도서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서비스로는 책읽기(80.8%)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책빌리기(56.9%), 컴퓨터 이용(12.6%) 등으로, 대도시지역이 대출비중이 높은 데 비하여 읍면지역은 컴퓨터이용(57.1%)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다. 이용자 유형별로도 초등학생(89.6%)이 열람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데 비하여 주부(69.9%)나 기타 이용자(65.5%)들은 대출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학년이 높을수록 컴퓨터 등 부대시설 이용비중이 높고, 독서프로그램의 이용비중이 낮고, 이용자 연령이 높을수록 열람이용보다는 대출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작은도서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로는, 아동도서와 소설, 교양서적 등이 선호되었으며, 농어촌 읍면지역의 소설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중고생 이상 293명의 주 열람 및 대출 이용분야는 아동도서(46.8%), 소설(39.2%), 교양(21.2%), 자기개발(13.3%), 학습(7.5%), 종교(6.5%), 에세이/시(6.1%), 사회/정치(6.1%), 과학(5.5%), 경영/경제(5.1%), 만화(1.4%), 교육(0.7%), 기타(0.3%) 등으로 응답되었다. 또한 읍면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소설이용률(72.7%)이 월등히 높았고, 사회과학분야 자료이용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 이용자의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들이 소설과 교양, 경영/경제 등에 관심이 많은 반면, 여성들은 아동도서, 소설, 교양 등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20대, 중고생 등은 소설을, 30대, 40대, 주부 등은 아동도서를, 50대 이상 이용자는 소설과 사회과학자료 등에 이용이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 국내외 작은도서관 현황과 분석

1. 국내 작은도서관 현황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현황은 2006년 전국문고현황조사를 참고하여 작은도서관의 종류,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시에서 문고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중랑구의 마을문고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우수 운영사례로 많은 조사와 연구가 진행된 지자체 주도형 작은도서관 유형인 순천시와 동두천시의 '지혜의 등대' 작은도서관,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 모형인 부천시 작은도서관 현황을 조사한다. 그리고 민간에서 주도하다 지자체 주도형 모형으로 발전한 창원시 작은도서관과 민간이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시의 모퉁이어린이도서관과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1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종류

작은도서관의 유형은 활동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지역별, 규모별, 운영주체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뉜다. 대도시 작은도서관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區)에 소재하는 문고, 중소도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시(市) 소재 문고, 농어촌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군(郡) 소재 문고가 해당된다. 작은도서관은 지역별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교육적 격차를 반영하여 설치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은 규모별로는 소규모(30평 미만), 중규모(30평 이상 ~ 80평 미만), 대규모(80평 이상)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설규모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내용에 차이가 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주체별로 구분하면 지방자치단체,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교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율이 25.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새마을문고 중앙회(19.9%), 공공기관(13.4%), 개인(10.5%) 순이다.

<표 19> 작은도서관 활동의 운영주체별 구분

구 분	개수(비율)	내 용
지방자치단체	130(8.4%)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영
새마을문고 중앙회	307(19.9%)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 단체
아파트	136(8.8%)	아파트관리사무소, 부녀회, 주민자치회 등
종교단체	390(25.3%)	교회, 성당, 사찰 내 설치된 선교목적 문고
구 분	개수(비율)	내 용
공공기관	206(13.4%)	자치단체 설립기관, 복지관, 동사무소 등 지원기관
민간단체	118(7.7%)	NGO(비영리기구), 법인, 임의단체
개인	162(10.5%)	자선 및 봉사, 독서사업, 과외 논술교육, 학원
기타	93(6.1%)	기업 및 공장 내 문고, 교육시설 내 문고 등
합계	1,542(100%)	

1.2 작은도서관 현황

1.2.1 작은도서관 통계

작은도서관 단위로서 전국의 문고 수는 2005년 말 현재 2,872개가 등록되어 있다. 공립문고는 778관(27.1%)과 사립문고 2,094관(72.9%)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새마을 문고는 약 1,000여개로 조사되었다.

전국 신고 문고 현황과 같이 문고는 평균 24평의 규모이며 24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다. 보유 장서 수는 총 930여만 권으로 문고 당 평균 3,287책을 구비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 문고수가 1,194개로서 전체의 41.6%를 차지하여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0> 전국 문고 현황(2005. 12. 31 기준)

구분	문고수			연면적(㎡)		열람좌석수		보유장서수(책)	
	전체	공립	사립	전체	평균	전체	평균	전체	평균
서울	571	483	88	27,309	47.8	8,977	15.7	3,033,519	5,312
부산	130	37	93	10,954	84.3	3,625	27.9	472,168	3,632
대구	61	-	61	6,158	101.0	1,600	26.2	151,577	2,485
인천	77	26	51	6,577	85.4	2,215	28.8	359,117	4,664

광주	42	2	40	4,500	107.1	1,941	46.2	156,740	3,732
울산	44	14	30	3,627	82.4	1,233	28.0	106,974	2,431
대전	69	29	40	4,846	70.2	1,792	26.0	271,797	3,939
경기	546	23	523	51,549	94.4	14,399	26.4	1,928,125	3,531
강원	109	-	109	10,518	96.5	2,795	25.6	215,509	1,977
충북	161	19	142	18,869	117.2	5,469	34.0	395,614	2,457
충남	96	3	93	7,610	79.3	2,491	25.9	228,400	2,379
전북	188	29	159	17,278	91.9	5,200	27.7	431,016	2,292
전남	269	55	214	25,036	93.1	7,521	28.0	546,340	2,031
경북	156	1	155	13,865	88.9	5,026	32.2	456,760	2,928
경남	211	57	154	7,043	33.4	1,015	4.8	95,246	451
제주	142	-	142	14,265	100.5	4,119	29.0	450,477	3,172
합계	2,872	778	2,094	230,004	80 (약24평)	69,418	24	9,299,379	3,287

1.2.2 서울 중랑구 작은도서관 현황

서울시에는 강남구, 서초구 등 25개 구(區)가 있으며 2005년 말 기준으로 571개 문고가 등록되어 있다. 문고가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는 구는 중랑구와 마포구로 27개이며, 다음으로 은평구 26개, 성동구 25개, 동작구 22개 순이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고 공공도서관 수가 적은 구에 문고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랑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문고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문고 유형도 새마을문고 아파트문고, 교회문고, 개인문고 등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랑구의 작은도서관 현황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문고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중랑구에는 새마을문고가 16개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문고가 12개관으로 총 27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표 21> 서울 중랑구 마을문고 현황

동별 구분	합계	새마을 문고	사립문고		공공도서관
			문고수	문고명	
면목1동	1	1			면목정보도서관
면목2동	1	1			
면목3동	1	1			
면목4동	1	1			
면목5동	3	1	2	한밀어린이문고 만나문고	
면목6동	1		1	하예성어린이문고	

면목7동	2	1	1	책사랑문고(한우리)	
면목8동	1	1			
상봉1동	2	1	1	건영책마을	
상봉2동	1	1			
중화1동	2	1	1	신방주문고	
중화2동	-				
중화3동	1	1			
묵1동	1	1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묵2동	1	1			
망우1동	1	1			
망우2동	-				
망우3동	1	1			
신내1동	4	1	3	동성1・2차아파트문고 동성3차아파트문고 파랑새어린이문고	
신내2동	2		2	성원아파트문고 두산・화성문고	
합 계	27	16	11		

가) 지역적인 문고 배분

중랑구는 지역적으로 20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랑구립정보도서관과 면목정보도서관의 2개 공공도서관과 27개의 문고(새마을문고 16개, 개인문고 11개)가 설치되어 있다. 면목6동, 망우2동, 신내2동, 중화2동에만 새마을문고가 없다. 신내2동에 새마을문고가 없는 이유는 중랑구립 정보도서관의 주소지는 묵1동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적으로 신내2동과 가까운 위치이고 신내2동은 주로 아파트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사립문고인 3개의 아파트문고가 있기 때문이다.

사립문고는 신내2동에 3개관, 신내1동과 면목5동에 2개관이 있으며 면목6동, 면목7동, 상봉1동, 중화1동, 중화2동에 각 1개관씩 있다. 중랑구에 있는 사립문고는 크게 아파트 문고, 교회문고, 개인문고 등 3개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파트 문고와 교회문고가 각각 5개 있으며 개인문고는 2개관이다.

나) 문고의 운영 현황

① 새마을문고 운영 현황

중랑구의 새마을문고의 운영은 새마을운동협의회를 통해 각 문고에 회장과 총무 등 인력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봉사 회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회원

들 중 하루에 1-3명이 교대로 문고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새마을문고가 월-금요일까지는 운영하고 있으나 새마을문고의 개관일과 개관시간은 문고의 사정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새마을문고의 운영에 있어 일부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는 명색만 회원이 있을 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2006년 4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의 현황을 보면 면목1동과 면목 3동의 약 2개월간 이용자가 한 명도 없는 문고도 있다. 전에는 대부분의 새마을문고가 자원봉사회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봉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2006년에 사회 현상에 따라 자원봉사 회원의 규모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 새마을문고의 업무를 대부분 공공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인력은 3개월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형편이다. 또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이직을 하는 공공근로자도 있다.

<표 22> 중랑구 15개동 문고 현황

번호	동구분	도서보유현황	대출책수	회원수
1	망우1동	9,179	782	1,441
2	망우3동	6,971	2,081	976
3	면목1동	5,538	-	509
4	면목2동	3,421	777	192
5	면목3동	3,667	-	306
6	면목4동	2,837	1,395	715
7	면목5동	3,991	2,260	1,139
8	면목7동	2,743	334	253
9	면목8동	3,976	1,048	613
10	묵1동	4,601	498	765
11	묵2동	6,102	554	820
12	상봉1동	3,020	1,207	332
13	상봉2동	2,271	209	321
14	신내1동	4,734	2,847	367
15	중화3동	4,925	1,060	1,488
합 계		67,976	15,052	10,237

또한 중랑구에 있는 새마을문고의 경우에는 2004년 1월부터 2월까지 중랑구립 정보도서관의 리모델링 기간에 10여명의 사서들이 파견을 나가서 전산화교육을 이수하였다. 현재 도서관 프로그램 전문회사인 S사 프로그램으로 전산화되어 있으며 중랑구립 정보도서관의 중앙서버로 중랑구 새마을문고를 관리하고 있다. 프린터가 설치되어있지 않거나 분류와 목록을 모르는 새마을문고를 위해서 수시로 중랑구립정

보도서관 마을문고 담당자가 청구기호나 등록번호 바코드 출력을 지원하고 분류와 목록하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② 사립문고의 운영 현황

중랑구 사립문고는 크게 아파트문고, 교회문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문고로 구분된다. 아파트문고는 동성1,2차 아파트문고, 동성3차 아파트문고, 작은도서관 건영1차 책마을문고, 성원아파트문고, 두산화성문고 등 5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아파트문고는 아파트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며 아파트 단지내에 자리 잡고 있다. 중랑구내의 아파트문고 5개관 중 2개관(작은도서관 건영1차 책마을문고, 성원아파트)만 1주일에 2회 개관하며 1회 개관시간은 2시간-2시간 30분에 불과하다. 나머지 4개관은 1주일에 1회만 개관하며 1회 개관시간은 2시간-3시간 30분이다.

아파트문고 중 전산화된 곳은 5개관 중 3개관(동성1,2차 아파트문고, 동성3차 아파트문고, 작은도서관 건영1차 책마을문고)이며 각각 다른 도서대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두산화성문고의 경우에는 전산화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방침상 공립문고에 대한 전산화만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지원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한편, 성원아파트문고는 1명의 열성적인 봉사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재래식적인 수기로 대출/반납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산화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교회문고는 신방주문고, 중화새무리문고, 하예성어린이도서관, 한밀어린이도서관, 만나문고 등 5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교회문고는 교회의 봉사자나 교역자가 담당하고 있다. 교회문고는 주 3일에서 주 6일까지 개관일이 아파트문고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교회문고의 전산화는 도서대여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화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문고가 2개관(하예성어린이도서관, 한밀어린이도서관)이며 나머지 3개관 중 신방주문고는 전산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중화새무리문고의 경우에는 전산화를 원하지만 전산화를 지원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문고는 파랑새어린이도서관과 책사랑문고가 있는데 파랑새어린이도서관은 열심히 독서운동을 하는 민간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고 있다.

다) 문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랑구에 소재한 문고는 일반 도서관에 비해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인력에 관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각 문고 담당자들은

문고를 열고 싶어도 문고에 나와서 봉사해줄 봉사자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전산화를 시켜놓은 새마을문고에서는 분류와 목록을 담당해줄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며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문고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재원부족이다. 문고 이용자를 계속 해당 기관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신간도서를 지속적으로 구비해야하는데 중랑구립 정보도서관에서 책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할 정도로 책을 구비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 문제는 전산화 업무의 부재이다. 전산화가 되면 한 눈에 각 문고의 현황을 알 수 있으나 사립문고의 경우 책 대여프로그램 수준으로 운영되는 문고는 4개관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프로그램이 제각기 달라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기가 어렵다.

네 번째 문제는 이용자수의 감소에 있다. 책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은 문고를 찾기 보다는 많은 장서를 구비한 공공도서관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고 이용자의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문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문 사서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사서들이 문고를 담당하면 개관일이나 개관시간, 분류·목록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문고의 전산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산화를 통해 문고간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이는 문고 운영과 봉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도서관리프로그램을 동일한 제품으로 단일화시킨다면 그 관리와 유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셋째,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먼 공공도서관을 일부러 찾지 않기 때문에 문고를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특성화시키는 것이다.

1.3 우수 운영사례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자체가 주도하여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킨 순천시와 동두천시 유형, 둘째, 지자체와 민간 협력형인 부천시 유형, 셋째로 민간영역에서 출발했다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는 창원시 유형, 마지막으로 민간에서 자생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과 대전의 모퉁이어린이도서관 유형이다.

<표 23> 작은도서관 유형

유형 구분	대표 사례
지자체 주도형	순천시, 동두천시 작은도서관
자자체 및 민간 협력형	부천시 작은도서관
민간주도 -> 지자체 주도 전환형	창원시 작은도서관
민간 주도형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 모퉁이어린이도서관

1.3.1 순천시 작은도서관

가) 개요

순천시는 2003년 11월 M방송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기적의 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적의 도서관 1호관 도시로서 지자체 주도형 유형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서관과 독서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주민 가까이에 있는 기존 공공시설 중 활용 가능한 소규모의 공간에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2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24> 순천시 작은도서관 년도별 개관 현황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도서관수	12	7	6	25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온돌이 깔린 내집 안방과 같은 공간과 지역특색을 살린 초가지붕 도서관, 강이 보이는 북 까페 등 이색적인 맞춤형 도서관 형태로 꾸며 쾌적한 열람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표 25> 순천시 작은도서관 현황(2005년 12월 기준)

도서관명	사업비(천원)				개관일	면적(㎡)	도서(권)	열람석
	계	국비	시비	자부담				
19개소	469,299	122,300	332,840	14,159	-	1,512.2	44,749	558
주암광천	112,300	112,300			05.03.25	169.20	4,200	70
낙안읍성	40,030		40,030		05.05.04	116.89	1,700	28
상사용암	13,670		11,170	2,500	04.08.06	100.00	2,074	30
해룡소안	21,727		21,727		05.02.19	69.60	2,383	24
해룡신성	하이스코	기증			04.05.21	65.52	1,510	14
생목벽산	30,596	2,000	26,136	2,460	04.07.28	165.00	4,600	89
조례송촌	24,369	2,000	20,319	2,050	04.07.29	66.11	3,500	25

조례동신	34,215		31,788	2,427	05.02.19	82.11	3,685	24
서면자치	8,000		8,000		05.05.31	72.00	1,957	30
조곡자치	4,000		4,000		04.07.14	91.13	1,155	25
남제자치	10,000	6,000	4,000		05.03.14	89.10	1,780	30
매곡자치	7,000		7,000		05.09.09	67.00	1,200	25
별량구룡	25,920		25,042	878	05.09.05	51.62	1,020	22
조례금호	23,063		22,400	663	05.09.14	49.18	1,952	22
해룡호두	20,467		20,283	184	05.07.21	41.28	1,500	16
서면선평	29,645		28,502	1,143	05.07.25	62.40	2,128	28
황전용림	23,467		22,648	819	05.09.06	42.05	1,365	18
가곡옹달샘	14,385		14,385		04.07.13	66.0	4,540	20
도사우성	26,445		25,410	1,035	05.09.15	46.0	2,500	18

<그림 1> 순천시 낙안읍성 작은도서관

나) 운영 현황

- 24개 공립문고 민간 (부녀회, 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자체운영 유도
- 작은도서관 근무요원 : 지자체가 직접 선발하여 공립문고에 배치
- 지원 내용 : 자료구입비 지원 (연1회), 북스타트 도서(1,600만원), 책 한권 하나의 순천(500만원)
- 월 50만원 운영비 지원(근무요원 인건비 30~40만원, 기타 운영비)
- 협력 활동 : 시립 도서관에서 순회문고 시범운영, 종사자 기본교육 실시
-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 계획(7,760만원 예산 확보)
- 공공도서관과의 관계 : 상호대차, 공동회원관리카드 등 추진중(2006~2009년)
-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사업소)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 관리

다) 주요 프로그램

- 영아 : 북 스타트 교육 프로그램, 소리박자 교실
- 유아, 유치부 : 그림 책 이야기, 책 읽어 주기, 종이 접기, 레고 닥터 등
- 초등학생 : 동화를 읽어요, 세계를 알자, 즐거운 책읽기, 즐거운 미술활동 등
- 중,고등학생 : 청소년 독서캠프, 글 어떻게 쓸까, 책으로 떠나는 역사 여행, 우리나라 전래 동화
- 성인 : 시민 문예교실, 책 한권 하나의 순천관련 프로그램
- 노인 : 한글작문교실 등
- 특성화 프로그램 : 도예체험, 천연염색, 짚물공예, 한자공예, 나무공예, 판소리 등

라) 작은도서관 발전 계획

순천시는 “도서관이 있어 행복한 삶, 배움이 있어 넉넉한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는 시민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을 목표로 인구 3만명당 1 도서관, 인구 1만명당 1개의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독서실의 개념이 아닌 교육, 문화, 정보제공의 커뮤니티센터로 육성하여 평생학습거점시설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특성화하고 모든 도서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을 목표로 한다.

① 도서관 시설 확충

- 2009년까지 소규모 도서관 5개를 추가 건립하여 그림책도서관, 만화도서관, 이야기도서관 등으로 특성화
- 25개인 작은도서관을 2008년까지 30개로 확충

②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작은도서관을 농업도서관, 여성도서관, 물도서관, 민속도서관, 야생차도서관 등으로 테마가 있는 도서관으로 육성
-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단계별, 요일별, 계절별 테마프로그램 운영
- 이를 위해 도서관 사서직원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 예정

③ 도서관리 전산네트워크 구축

- 지역내 모든 도서관을 온라인망으로 네트워크하여 상호대차, 공동 회원카드 발급
- 1단계(2006~2009년) : 웹기반 도서관리 S/W를 작은도서관까지 확대
- 2단계 : 초중고(70개교) 도서관까지 확대
- 3단계 : 대학교(3개교) 및 각 기관까지 연결

1.3.2 동두천시 작은도서관

동두천시는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성공사례인 “지혜의 등대”를 동두천 도서관 서비스에 접목하여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역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손쉽게 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가) 개요

동두천시의 작은도서관 “지혜의 등대”는 2005년 10월 동두천초등학교와 소요초등학교에 2개관이 설치되었다. 2006년에 3개관, 2007년과 2008년에 각 1개관씩 설치하여 총 7개의 지혜의 등대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혜의 등대”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손쉽게 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체육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스스로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활동 초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① 동두천초등학교 지혜의 등대

- 면 적 : 131.38㎡(40평)

계	도서실 및 정보검색실	화장실	홀	방범대사무실	계단실 등
131.38 (39.74평)	73.33㎡ (22.18평)	14.89㎡ (4.50평)	16.87㎡ (5.10평)	21.77㎡ (6.59평)	4.52㎡ (1.37평)

- 사업기간 : 2004. 10. 9 ~ 2005. 5. 25
  - 공사 준공 : 2005. 5. 25(개관기념식 : 2005.10.7)

- 사업비 : 306,089천원(시비187,750천원, 교육청118,339천원)

<그림 2> 동두천초등학교 지혜의 등대

②소요초등학교 지혜의 등대

● 면 적 : 137.07㎡(41.5평)

계	도서실 및 정보검색실	화장실	홀	방범대사무실	계단실 등
137.07 (41.5평)	84.19㎡ (25.47평)	12.01㎡ (3.64평0	20.6㎡ (6.7평)	16.04㎡ (4.85평)	4.77㎡ (1.44평)

● 사업기간 : 2004. 10. 9 ~ 2005. 3. 26

- 공사 준공 : 2005. 4. 8(개관 기념식 : 2005.10.5)

- 사업비 : 305,121천원(시비187,750천원, 교육청117,371천원)

<그림 3> 소요초등학교 지혜의 등대

나)운영현황

지혜의 등대 도서관의 이용자는 월 평균 1200명에서 1300명 정도이며 이용인원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말까지 도서관별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6> 도서관별 이용현황

구　　분	이용자 합계	동두천초등학교	소요초등학교
총　　계	9,980명	5,204명	4,776명
초등학생	7,880	4,240	3,640
교　　사	136	70	66
중 · 고생	490	160	330
일반인(등록인수)	1,474(83)	734(35)	740(48)
월평균 이용인원 (일일평균)	2,495(84)	1,301(44)	1,194(40)

지혜의 등대를 약 5개월간 운영하면서, 해당 학교 학생 및 학부모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이용률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혜의 등대를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도 교실내 도서관 이용보다 지혜의 등대 도서관 이용을 선호할만큼 긍정적이다. 또한 지혜의 등대를 관리하는 학교측의 평가도 등대 도서관에 저녁 시간대에는 어린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데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주민 자율방범대의 방범기능면에서는 동두천초교의 경우 방범대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 소요초교의 경우 지역과 학교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하여 활용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학업시간 내에만 이용이 가능한 학교내 도서관에 비해 지혜의 등대 도서관은 방과 후에도 이용이 가능하여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지혜의 등대 도서관 면적이 좁아 학교도서관과 통합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작은 공간에 도서관·공부방·정보검색 기능 등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매우 협소하여 30석이상의 공부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신설되는 지혜의 등대내 도서

관은 규모를 조정하여 학교도서관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범기능에 대해서는 시(체육청소년과, 총무과)와 교육청·관할동 사무소와 학교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보완하여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1.3.3 부천시 작은도서관

가) 개요

부천시는 지역주민 누구나 걸어서 갈 수 있도록 동네마다 도서관 설립을 목표로 지역의 정보센터 및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있다. 협력 유형은 지자체 민간 상호 협력형으로 부천시립도서관과 11개 작은도서관(공립문고)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이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도서관 활성화 및 성숙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천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거점으로 책읽는 문화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11개 공립문고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비영리법인, 5년 계약).

부천시 작은도서관의 특징은 공공도서관과 연계된 작은도서관 운영 모델로 주민자치센터(5개소), 복지관(6개소)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였으며 전문사서를 배치하고 있다. 사서인건비,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전액을 부천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상호대차서비스를 활용하여 규모는 작지만 큰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도서관으로 운영된다.

<표 27> 부천시 작은도서관 설립현황(2006년 4월 기준)

작은도서관	위탁단체	위치	성격	협약일	개소일	면적(㎡)
도란도란도서관	가톨릭대학교	고강복지회관	어린이도서관	02.3.22	02.4.1	93.03 (28평)
새싹도서관	대한불교조계종	원종종합복지관	어린이도서관	02.3.22	02.5.1	126 (38평)
복사꽃필무렵	기독교대한감리교	심곡복지회관	가족도서관	02.3.22	02.6.4	77.57 (23.4평)
아름드리도서관	서울신학대	삼정복지회관	가족도서관	02.8.16	02.10.28	132.2 (40평)

약대신나는가족 도서관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롬교회	약대동주민자치 센터	가족도서관	02.11.11	02.12.24	105.6 (32평)
꿈나무가족 도서관	한국지역사 회교육연구 원	역곡3동주민자 치센터	가족도서관	02.12.18	03.2.14	209.46 (63.4평)
햇살이가득한 도서관	한국지역사 회교육연구 원	심곡2동주민자 치센터	가족도서관	02.12.18	03.2.27	256.6 (77.6평)
행복한도서관	실업극복부 천시민운동 본부	부천시노동복지 회관	가족 및 노동 도서관	03.3.13	03.4.9	89.26 (27평)
사랑나무가족 도서관	한국노총부 천지역지부	부천시근로자종 합복지관	가족도서관	03.12.17	04.2.9	90.9 (47평)
소새울가족 도서관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부천교회	소새울문화체육 센터	가족도서관	04.8.16	04.12.21	153.22 (46.4평)
고리울꿈터 도서관	주민자치위 원	고강1동주민자 치센터	가족도서관	04.9.13	04.12.13	97.5 (29평)

나) 운영 현황

부천시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 도서관별로 월 평균 2,000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기반한 서비스의 차별화가 장점이며, 어린이서비스를 기본으로 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문화사랑방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천시는 2004년 시립도서관과 연계한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관리, 대출반납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각종 통계보기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였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작은도서관과 시립도서관 시서들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불편사항을 보완하였다.

<표 28> 부천시 작은도서관 운영현황(2006년 4월 기준)

작은도서관	개관시간	자료(권)	프로그램 운영
도란도란 도서관	월~금 09:00~18:00 토(1·3주) ~ 16:00 토(2·4주) ~ 13:00	7,892	책읽어주는방, 동화극장, 성인독서동아리, 아동독서교실, 독서퀴즈대회, 독서왕 선발대회 등 9개

새싹도서관	월~금 10:00~17:00 토 10:00~16:00	9,300	영어독서교실, 독서동아리, 책속 보물찾기, 내가 만든 가족신문, 부천역사바로알기 등 9개
복사꽃필무렵	월~금 12:00~21:00 토 12:00~18:00	7,442	주부독서동아리, 꼬마가 들려주는 동화, 그림으로 보는 동화(슬라이드 상영), 책 읽는 마을 등 11개
아름드리 도서관	월~금 10:00~19:00 토 10:00~14:00	8,161	주부독서동아리, 독서퀴즈, 저자초청강좌, 인형극, 독서감상화그리기대회, 독서감상문 응모대회 등 6개
약대신나는 가족도서관	월~금 09:30~18:30 토 10:00~14:00	7,300	여성독서동아리, 어린이독서동아리, 재미솔솔 이야기 시간, 방학 특강, 스토리텔링, 북카페 등 12개
꿈나무 가족도서관	월~금 10:00~19:00 토(4주) ~16:00	7,882	유아독서교실, 부천체험학습, 독서교실, 즐거움 가득1 재미솔솔! 그림책 이야기시간 등 15개
햇살이가득한 도서관	월~금 10:00~19:00 토(4주) ~14:00	7,200	할머니·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햇살이야기, 햇살독서교실, 잉글리쉬 동화나라, 햇살가족되는날 등 8개
행복한도서관	화~금 10:00~22:00 토~일 10:00~18:00	6,800	책 좋아 독서교실, 신나는 동화나라, 영화상영, 책축제, 독후감쓰기, 독서퀴즈 등 11개
사랑나무 가족도서관	월~금 10:00~19:00 토 10:00~17:00	4,476	깡통독서회, 천사가 들려주는 동화책 이야기, 영어동요 부르기, 독서교실 등 7개
소새울 가족도서관	월~금 10:00~18:30 토 10:00~14:00	4,291	초등학생 독서동아리, 어머니 독서동아리 모임 등 6개
고리울꿈터 도서관	월~금 09:00~18:00	5,991	도서관신문 만들기, 독서왕, 독서퀴즈, 동화구연 등 10개

다) 지원 내용

- 전문 사서 인건비
- 보조 인력 인건비(월 50만원)
- 자료구입비
- 프로그램 운영비
- 기타 제세 공과금 등
- 1관당 3,900여 만원 운영비 지원 (2006년 기준)

라) 협력 활동

- 상호 대차 서비스 (시립도서관 4관, 작은도서관 11관, 대학도서관 1관간 자료공유) - 월 1회 사서 회의 참여
- 워크숍 및 세미나, 간담회 등 공동행사

- 작은도서관협의회(작은도서관 협의체)와 공공도서관 행사 연합 계획
- 온라인 카페를 이용한 상시적 의견 교류 등
-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
- 시립도서관에서 정기적 지도 점검 실시
- 민· 관 협력조직(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필요성 제기

1.3.4 창원시 작은도서관

가) 개요

창원시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활성화는 시민단체인 (사)경남정보사회연구소의 주도로 마을도서관이 태동하였다. 그러나 1995년 민선시장 공약사업으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설립하는 마을도서관 운동은 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작은도서관운동으로 편입되었다. 이 시기 이후 (사)경남정보사회연구소가 1996년 시로부터 사회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복지회관내에 5개의 마을도서관을 개관하여 마을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남여성회, 책사랑 등 11개 시민단체가 32개의 마을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 협력 유형 : 민간단체 시작 -> 지자체 주도형 모형
- 협력 범위 : 3개 시립도서관, 7개 공립문고, 25개 사회교육센터간 협력
- 운영 방식 : 32개 공립문고/사회교육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위탁 운영(2년 계약)

나) 지원 내용

창원시는 1997년 행정의 효율화를 기존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공간에 마을도서관을 설치하였고 시민단체가 마을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005년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마을도서관을 사회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6년에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자료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근무요원 2인 인건비(월 50만원) 지원

● 2006 운영 예산 지원(1관당) : 사회교육센터 3,720만원, 마을도서관 2,160만원

다) 협력 활동 및 공공도서관과의 관계

창원시는 시립도서관과 32개 마을도서관에 대한 통합도서검색시스템을 구축 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를 통합검색(메타서치)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고, 각 마을도서관과 사회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과 강사도 검색할 수 있게 구축하였다. 현재 시립도서관과 마을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 시립도서관과 직접 협력 활동은 없으며, 창원시 평생학습과에서 직접 관리(공공도서관은 시청 평생학습과가 아닌 별도의 사업소로 운영)
● 1990년대부터 민간차원의 작은도서관 운동 시작, 이후 지자체에서 설치/지원 시작
● 2005년 평생학습조례 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직접 주도

<표 29> 창원시 마을도서관 현황

구분	명칭	위 탁 단 체	주 소	개 관 일
사회교육센터	동읍사회교육센터	동읍주민자치위원회	동읍 용잠리 575(읍사무소2층)	99.06.01
	대산사회교육센터	대산면주민자치위원회	대산면 제동리 271-59 (문화복지회관)	99.12.22
	의창사회교육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북동 260(민원센터2층)	97.01.30
	소계사회교육센터	의창동주민자치위원회	소계동 714-8(민원센터2층)	98.02.09
	팔용사회교육센터	팔룡동주민자치위원회	팔용동 102-4(복지회관)	96.05.20
	대원사회교육센터	경남풀뿌리환경정보 교육센터	대원동 37-5(복지회관)	96.05.31
	명곡사회교육센터	명곡동주민자치위원회	도계동 895(동사무소 3층)	97.10.01
	명서1사회교육센터	명곡동새마을협의회	명서동 174-4(민원센터2층)	98.02.23
	명서2사회교육센터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마창지부	명서동 111(민원센터2층)	98.02.23
	봉곡사회교육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봉곡동 46-1(복지회관)	97.01.20
	봉림사회교육센터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봉곡동 107-1(청소년문화의집)	95.08.30
	사림사회교육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사림동 87-9(복지회관)	96.05.27
	반지사회교육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반지동 99(복지회관)	96.05.22
	중앙사회교육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중앙동 66-1(복지회관)	96.05.30
	내동사회교육센터	사단법인경남여성회	내동 456-2(민원센터2층)	98.02.16
	용지사회교육센터	용지동주민자치위원회	용호동 62-2(동사무소3층)	97.07.14
마을도서	신월사회교육센터	창원여성의전화	신월 68-5(민원센터2층)	98.02.26
	상남사회교육센터	상남주민자치위원회	상남동 44-1(대동A관리사무소 1층)	99.12.16
	사파사회교육센터	창원YMCA	사파동 106-1(민원센터2층)	97.01.24
	대방사회교육센터	책사랑회창원지부	대방동 358(대동A관리사무소3층)	99.04.16
	남산사회교육센터	사단법인경남여성회	가음동 42-1(남산복지회관)	97.05.20

관	가음정사회교육센터	가음정주민자치위원회	가음동 21-1(민원센터2층)	98.02.17
	남양사회교육센터	개나리2차아파트입주자	남양동 24(개나리2차A관리사무소3층)	00.05.18
	성주사회교육센터	성주동주민자치위원회	성주동 5(동사무소2층)	02.07.09
	웅남사회교육센터	웅남동주민자치위원회	신촌동 14.35(동사무소2층)	02.08.01
	반림마을도서관	럭키A운영위원회	반림동8번지(럭키A 관리사무소2층)	02.04.12
	동성마을도서관	사파동성A운영위원회	사파동 93번지(동성A 관리동)	95.07.23.
	안민청솔마을도서관	대동청솔A운영위원회	안민동 197번지(청솔A 관리동)	01.08. .
	디지털마을도서관	대동디지털A운영위원회	대방동 371번지(대동디지털A 관리동)	04.04.22
	의창동주민자치마을도서관	의창동주민자치위원회	동정동 250번지(주민자치센터)	05.03.28
	안민마을도서관	성주동주민자치위원회	안민동 261-5번지(복지회관)	05.07. 4
	동읍자여마을도서관	동읍주민자치위원회	동읍 송정리98-21번지(자여민원센터)	06.07.20.

1.3.5 대전 모퉁이어린이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옆에 위치한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은 1998년 갈마동에 선배어린이도서관으로 출발하여 2002년 전민동으로 이전하여 지역주민 공동체 도서관으로 바뀌었다. 한 개인이 순수한 열정으로 사립문고를 만들어 이웃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다. 자원봉사자, 독지가와 대기업 사회봉사단의 도움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리모델링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모퉁이어린이도서관문고로 등록되어 있으며 도서관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cornerlib>이다.

가) 개요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의 면적은 약 38평으로 상가건물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도서관의 설립취지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책 한권, 올바른 의식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책 한 권을 권해줄 수 있는 공간, 어린이들에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 동아리 문화를 꽃 피우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모든 일을 지역사회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소중한 주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설립되었다.

도서관 운영은 대표, 부대표, 총무 각 1명 등 운영위원 13명과 사서 자원봉사자 30명, 이동문고 봉사자 10명 등 총 50여 명이 봉사하고 있다. 개관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관한다. 어린이 도서를 중심으로 약 1만여권을 소장하고 있고 비디오 50편, 슬라이드 필름 30편 등이 있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8월 현재 1,040 가족 이상이 대출회원에 가입되어 있다. 열람 및 모든 프로그램의 이용은 무료이며, 대출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책기증(2~6권)을 해야 한다. 대출 기한은 1주일이고 1주일 연장할 수 있다. 1일 평균 어른/어린이 포함하여 30~50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림 4> 모퉁이 어린이도서관 실내 전경

나) 도서관의 주요 활동

도서관의 주요 활동 상황을 일일, 월간, 연간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일 활동 : 소모임 진행(동화공부 모임)
- 월간 활동 : 책 읽어주기(매주 화, 목요일), 가로/세로 낱말 퍼즐(격주), 동시사랑/책 만들기, 책으로 여는 세상-독서카드, 공부방 어린이 도서관이용교육(월 1회)
- 연간 활동 : 공부방, 시설 이동문고(분기별), 초등학생 및 유치원 어린이 도서

관 이용교육(수시), 마을 책 잔치- “우리 같이 놀래?”, 방학프로그램-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우리 옛 놀이 하자, 도서관 이용교육, 책 만들기

2005년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의 주요 행사 및 활동 내용은 다음가 같이 매우 다양하다.

<표 30> 2005년 모퉁이어린이도서관 주요 활동 내용

행사명	날짜	내용	담당
도서관 수련회	1/9~10	운영위원 및 자원봉사자 가족 공주 산림박물관(느티나무 방)	
모퉁이 이동문고	1월, 4월, 7월, 10월	대전에 있는 공부방 11곳과 시설에 3개월 마다 좋은 책 100권씩 지원	운영위원, 자원봉사자
책 읽어 주기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도서관 이용 어린이에게 책 읽어 주기	동화 읽는 어른들
겨울방학 프로그램	1/13(목),14(금) 20(목), 21(금)	옛이야기 속 우리 신화를 찾아서	도서관 교육부
‘희망의 배움터’ 사업지원 대상 선정	3월~4월	삼성과 사회연대은행에서 선정하여 시설 개보수 및 컴퓨터 빔프로젝터, 에어컨 구입	운영위원, 자원봉사자
	5/14	재 개관식	
‘책이랑 놀자’	6월부터	어린이들이 책을 읽은 후 할 수 있는 독후활동 프로그램	도서관 교육부
책 읽는 사서모임	6/27, 7/18, 10/24	어린이 책을 알고 어린이를 이해하기 위한 사서들의 독서토론모임	
여름방학프로그램	여름방학중	‘자연이랑 나랑’, 책 만들기 등	도서관 교육부
청소년을 위한 강의	7/16(토)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한남대 생명과학부 김영민 교수님)	
가족영화제	8/25(목), 9/23(금)	<천공의 성, 라퓨타>, <은하의 물고기>, <고래의 도약>	도서관 문화부
우리 동네 나무이름 알기-‘나무이름표 달아주기’	9/10(토)	아파트 주변의 나무이름을 알고 모퉁이어린이도서관 이름으로 이름표를 달아줌	자원봉사자
도서관 야간 개장	9월 이후	화요일 밤8~ 10시(낮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야간에 개장)	자원봉사자
제4회 전민동 마을잔치-“우리 같이 놀래”	10/15(토)	책 돌려일기, 책일기 마당, 놀이 마당, 책 바꿔보기, 아카시아파마, 반짝 아나바다 시장	계룡문고 후원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은 독지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상가의 지하 38평 규모로 지역주민들과 자원봉사자, 후원회원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후원금으로 공

간을 리모델링하고 컴퓨터 등을 지원받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또한 격월간으로 <모퉁이 친구들>이라는 소식지를 만들어 짝수 달 넷째 주 목요일에 발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MBC대전방송, 8월 K-TV(국회방송)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은 지하의 작은 규모의 공간과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서 수, 서비스 등 작은도서관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공간 확보와 자금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모퉁이어린도서관 회칙

1998년 9월 1일 좋은 어린이 책 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관한 [선배 어린이도서관]의 뜻과 성과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2002년 3월에 모여 새롭게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 공동체도서관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1. 이름

[모퉁이 어린이도서관] 이라고 한다.

2. 목적

지역 사회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 문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더불어 나누는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다.

3. 도서관 이용

어린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도서관을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대출 회원은 함께 좋은 어린이 책을 나누어본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좋은 어린이 책 2권 이상 기증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종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를 요구할 수 있다.

4. 도서관 회원

1) 운영위원

- 도서관 설립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도서관 운영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도서관 재정의 일부를 책임지며, 도서관 운영에 시간을 내어 봉사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의 추천과 운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각종 활동 및 회의에 참가해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자원활동가

- 도서관 설립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도서관 운영에 시간을 내어 여러 가지 형태로 봉사

한다.

- 각종 활동 및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갖는다.
- 도서관이 요구하는 자원활동가 교육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3) 후원회원

- 도서관 설립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후원할 수 있다.
- 도서관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고, 도서관 살림살이에 대해 1년 1회 이상 보고 받을 권리를 갖는다.

4) 대출회원

- 함께 좋은 어린이 책을 나누어 본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좋은 어린이 책을 2권 이상 기증한 자로 한다.

5. 조직

1) 운영위원장(대표) : 우리 도서관을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회장을 맡고 회의 일을 총괄한다.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1년을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장 : 도서관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대신한다.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1년을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총무 : 도서관 살림살이를 담당하며 도서관 재정을 총괄한다.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1년을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 : 회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한다.
5) 부서장 :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며, 자원활동가를 포함하여 부원을 둘 수 있다. 다른 직책과 겸임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부서장을 둘 수 있다.

ㄱ. 사서부 : 자원활동가 조직을 관리하며, 자원활동가 교육과 모임, 회의를 주관한다.
ㄴ. 교육부 : 어린이도서관 취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한다.
ㄷ. 문화부 : 어린이도서관 문화행사를 주관하며, 동아리를 담당한다.
ㄹ. 신간구입부 : 신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한다.
ㅁ. 수서부 : 도서관내의 수서 업무를 담당한다.
ㅂ. 홍보. 편집부 : 도서관 사업을 홍보하고, 도서관의 일을 기록하며, 소식지를 만들고, 행사자료를 제작
관리한다.
ㅅ. 환경관리부(가칭) : 도서관 내의 환경을 담당한다.

6. 사업

다음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열람, 대출, 상담 업무
2) 그림책 슬라이드 / 빔 프로젝터 상영
3) 도서관 취지에 맞는 강좌 개최
4) 소식지 발간
5) 동아리 운영

6) 어린이 책 공부
7) 좋은 어린이 책 문화 만들기 운동
8) 모퉁이 이동문고, 공부방 어린이 도서관 이용 교육
9) 홈페이지 운영
10) 책 읽어주기

7. 회의

1) 총회 : 매년 1회 개최하며, 의결권을 갖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도서관 사업평가, 회계 보고, 운영위원장 선출, 회칙을 개정한다.
2) 운영위원회 : 도서관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도서관과 관계된 사안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매월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사서회의 :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회의로 월 1회 이상 진행할 수 있다.

8. 재정

운영위원 회비와 후원금, 사업 수익금, 정부 지원금으로 이뤄진다.

9. 기타

* 2002년 3월 발기인 결의를 통해 공식 집행한다.
*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 통념에 따라 운영위원에서 과반수 결의로 결정된다.
* 2004년 12월 27일 1차 개정
* 2005년 12월 20일 2차 개정

1.3.6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은 2000년 2월 개인이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에 개관한 이래, 2003년 10월 느티나무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문고형 어린이도서관은 느티나무 어린이 도서관이 유일하다.

가) 개요

아파트상가 지하에 위치한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은 시민단체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해당 지역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아이들이 쉽게 찾아와 책을 읽고 배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바자회나 후원금을 모아서 설립한 시설이다.

2006년 12월 기준으로 15,922개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도서 : 15,211권, 시청각 자료 비디오/CD : 711개). 이용 현황은 하루평균 150권의 도서가 대출되고 있으며,

자료회원은 12,31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후원회원은 108명이다.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이 다른 작은도서관에 비해 상당히 체계적이다. 이 도서관은 자체적인 분류표를 이용하여 도서를 분류하고 있으며, 어린이 도서 이외에 부모, 청소년을 위한 도서를 구비하고 있고 아동용 외국 도서까지 소장하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neutinamu.org>

<그림 5>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나) 도서관의 주요 활동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서목록을 작성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도서관학교, 다양한 동아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도서관교육을 통해 지역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실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파급되고 있다.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은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독서모임(어른독서 동아리, 어린이 책읽기 동아리)
- 책읽어주기(이야기극장, 엄마 이야기방: 스토리텔링)
- 작가만남 · 강독 · 마주이야기
- 글쓰기 강좌 · 책자발간(우리마을이야기)
- 도서전시 · 영화상영 · 음악감상
- 마을학교

● 어린이날 행사(어린이날잔치 · 작은 음악회 · 마을축제 · 도서전시회) 등

어린이도서관에서 이처럼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약 7년 동안의 노하우와 60여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그림 6>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다. 자원봉사 활동

느티나무는 구석구석 자원봉사자인 도우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무슨 일이든 손발이 척척 맞는 '큰도우미' 들과 청소년 봉사자들까지 사서 선생님을 도와 자료 정리/보수, 이용안내, 대출은 물론 청소, 실내장식, 행사 진행까지 진행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자원 활동가의 노력을 통하여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을 구축하고 있다.

<표 31>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 자원봉사 특징

도우미 구분	대상	특징	봉사 내용
큰 도우미	성인	느티나무가 문을 열자 한 분 두 분 찾아와 손을 나눠주시면서 자연스레 도우미 모임이 만들어짐. 2002년에 '느티나무도우미회'라는 이름으로 정식 단체를 만들어 용인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도 하고, 80~90명 도우미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자료 대출/반납 ▪ 청소 ▪ 서가정리 ▪ 자료정리 ▪ 자료보수 ▪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도우미	청소년	해마다 3월과 9월, 새로 학기가 시작될 때 청소년 도우미들을 모집. 봉사활동확인서도 발급. 꾸준히 활동하면서 좋은 책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싶은 청소년 환영.	▪ 이야기 엄마 ▪ 방과후공부방 ▪ 회원명부 입력/관리

작은 도우미	어린이	이름만 들어도 청소를 잘할 거라고 눈치챌 수 있는 '반짝 도우미', '싹싹 도우미', 조용한 도서관 만들기에 앞장서는 '잠잠 도우미', 무슨 심부름이든 흔쾌히 맡아주는 '뭐든지 도우미'...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도우미 명찰의 이름만큼 모두 재미있고 멋진 친구들이죠.	▪ 그림책 슬라이드 촬영 ▪ 자료 편집 ▪ 홈페이지 관리 ▪ 재활용 장터 운영/관리

<그림 7> 이야기 엄마

<그림 8> 방과후 공부방

1.4 정부의 작은도서관 추진 현황

정부의 작은도서관 추진사업은 2006년 1월 문화관광부 주요정책과제로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사업이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방안」이 대통령에게 보고 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이 신설되면서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1.4.1 추진 경과

- 「문화비전 21:창의한국(문화관광부 2004. 6)」에서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1만개 작은도서관 확충운동 제시
- 「2004년 도시저소득층 및 농어민대상 생활친화적 문화환경조성」사업일환으로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및 운영

- 2006년 문화관광부 주요정책과제로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선정-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청와대 영부인 보고(2006.1.24)
-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계획(“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에 포함)」 대통령 보고(2006.2.27)
- 대통령 지시사항(2006.2.27)
  - ✓ 도서관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정책패키지를 중장기 계획 전까지 정리할 것
  - ✓ 사회적 서비스의 일자리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것
- 국립중앙도서관 내 「작은도서관진흥팀」신설(2006.4.6)-정원 6명
  - ✓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 작은도서관 진흥정책 개발 및 공공도서관 분관화 구축, 협력망 운영
  - ✓ 작은도서관 정책홍보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등

1.4.2 주요 업무

가. 사회적 참여 확산

작은도서관 사업확충을 위해 사업비(복권기금) 31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사업비 5억원/조성지원 5개소 목표를 58개소로 확대 실시하였다.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져 5.31 자치단체장 선거시 23개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 조성 공약이 나타났으며, 삼성봉사단에서 100억원 규모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참여가 확산되었다.

또한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 확산 추진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MOU를 체결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전국 2,000여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온라인 지도를 구축하였다.

나.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시범사업

- 작은도서관 시범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전국 39개 기초자치단체/58개소)
  - 리모델링 52개소, 건립지원 4개소, 정보화(상호대차) 시범사업 2개소
  - 50억원 투입, 지자체 매칭사업추진(복권기금 36.5억, 지방비 13.5억)
-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침 작성 및 배포(2006.9)
- 작은도서관 CI 개발 및 보급(2006.12)

다.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사업

- 전국 문고통계 및 운영실태조사(2,215개처)
- 작은도서관 총서(1~5권) 개발 및 보급
  -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참고자료(건축도면)
  - 작은도서관 운영사례집(느티나무도서관 등 4개소)
- 작은도서관 정책추진 기반마련 조사 · 연구실시
  -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2006.8)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2006.10)
  -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및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등
- 작은도서관 활성화 연찬회(2006.10) 및 관리자 워크숍(2006.12) 개최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개발(2006.12)

1.4.3 정책추진 방향

가) 2007년 목표 및 기본방향

정부의 2007년도 작은도서관 정책추진 목표는 첫째,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심 작은도서관 70개관 시범조성이다. 둘째,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지자체 민간의 자발적 참여유도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추진
-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을 통한 이용서비스 향상
- 작은도서관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공감대 확산
- 공공도서관 분관화의 단계적 추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성공은 국가차원의 시범조성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화를 추진하고 민관협력 및 민간과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운영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영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집중적인 홍보정책이 필요하다.

나) 2007년 예산현황

정부가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2007년도 예산은 총 59억8천7백만원으로 도서관협력망 구축·운영,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사용된다.

<표 32> 2007년 작은도서관 예산현황

구분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국고	도서관협력망 구축・운영	197	도서관협력망 구축・운영	
기금	작은도서관 조성	5,000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조성비용의 30%는 지자체 별도 부담)	지자체 매칭사업 (기금, 지방비3)
기금	작은도서관 활성화	790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범국민운동 확산,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개발 등	
합계		5,987		

1.5 시사점

지자체 주도 모델인 동두천시의 “지혜의 등대”는 작은도서관 개념에 지식과 방범의 기능을 상징할 수 있는 모형을 갖추어 벤치마킹한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지혜의 등대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시킨 모델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로 설치함으로써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보다도 향상된 복합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시립도서관”과 “꿈나무정보도서관”에 접근이 다소 어려운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복합기능의 지혜의 등대를 건립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이 쉽게 문화공간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부천시의 모델은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의 문고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처음부터 민간영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맺으며 시작한 사례를 보여준다. 초기단계부터 민간협력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동을 고민하기 시작한 부천시는, 작은도서관을 5년간 민간에 위탁운영되는 체계를 통하여 4개의 시립도서관과 서로 자료공유를 위한 상호대차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공간은 동사무소라든지 복지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사서들이 부천지역 작은도서관 협의회라는 조직을 구성, 시립도서관과 협력관계를 맺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 주도형 작은도서관들은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과 모퉁이어린이도서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대부분 어린이도서관들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린이들까지 다양하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도 한다. 또한 열성적인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이용자서비스, 문화활동에 대한 강좌, 워크숍 등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창원시 모델처럼 시민단체가 시작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유형과 처음부터 주민들이 주도한 유형들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지원하여 주민 친화적으로 특성화를 살려 발전시키는 모형이 초기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된다.

2. 국외 작은도서관 현황

국외 작은도서관 현황은 미국과 일본, 브라질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국의 작은도서관 현황은 공공도서관 통계, 조사보고서, 활성화 프로젝트를 조사하였으며, 우수 작은도서관 진흥사례와 운영사례를 분석한다. 일본은 공공도서관 현황과 공민관도서실을 조사하고 가정문고와 지역문고를 비교하였다. 브라질은 꾸리찌바시의 지혜의 등대 작은도서관과 미니도서관 '나무상자' 프로젝트를 조사하였다.

2.1 미국

2.1.1 작은도서관의 개념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우체국, 시청, 약국 등에서 소량의 자료를 소장해서 빌려주기 시작한데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작은도서관은 "작은(rural, small)"의 고전적인 모형은 2,500명 미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장소를 뜻하지만[1], 1978년부터 인구 25,000명[2] 미만의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3]을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작은도서관 설치 배경은 소수의 직원수, 예산 부족 (한정된 예산), 시설과 공간이 좁으며, 지역사회의 연합체들과 밀접한 관계로 자원봉사들로부터 업무 보조, 보조금 등 도움을 받는다. 또한 지역사회의 재정적인 지원이 부여된다.

미국의 작은도서관 개념은 작은 혹은 시골 도서관(Rural and/or Small Library)이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인구 25,000명 미만의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을 통틀어서 작은도서관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도서관은 모두 도서관(Library)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작은도서관 용어는 Rural (public) library, Small (public) library, Small community library, Village library, Mini library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

---

1) 미국의 인구조사국 [Bureau of the Census]
2) 1개의 공공도서관이 봉사해야 하는 인구수
3) Center for the Study of Rural Librarianship [CSRL]에서 정의함.

2.1.2 작은도서관 현황

가) 공공도서관 통계

2001년 공공도서관 통계를 기준으로 미국의 공공도서관 9,129개 중 2,662개(29%)가 인구 2,500명 미만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 9,129개 중 7,177개 (79%)가 인구 25,000명 미만의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에서 규정하는 작은도서관 정의에 따른 것으로 작은도서관이 미국 전체 공공도서관의 7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봉사인구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실정과 다르다.

작은도서관을 인구 2,500명 미만 지역에서 봉사하는 도서관과 인구 25,000명 미만 지역에서 봉사하는 도서관을 나누어 비교한 표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개관시간, 운영경비, 직원수 등에서는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 도서관은 규모와 상관없이 도서관의 고유기능인 장서구독, 대출, 참고서비스, 인터넷 및 전자서비스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작은도서관 조사보고서[4)]

① 조사 목적 및 대상

- 작은도서관 개발과 난제 해결을 위해 자료 수집 차원에서 2003년 12월에 조사 실시됨
- 조사 대상 도서관은 시골 학교 도서관, 시골 부족 도서관, 시골 공공 도서관임

② 조사보고서 내용 요약

- 조사 응답 주요 지역은 5대호(Great Lakes)와 대평원, 서부/남서부지역으로, 대부분의 도서관은 인구 만 명 이하 지역을 대상으로 봉사하고 있음
- 도서관의 주요 관심사는 지역의 빈곤 문제, 인구 감소, 실업과 불완전 고용 문제였음 특히, 부족 도서관은 빈곤 문제에, 시골 학교와 공공도서관은 인구 감소에 관심 있음
- 주요 난제는 자금과 장소 부족을, 필요 교육은 컴퓨터 교육을, 필요 기술은 기술 관련 지원과 기술 교육이었음. 특히, 시골 학교와 부족 도서관은 "기본적인 도서관 관련 스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4) Rural library survey summary report 1 (by Evan Leach Ph. D. 2004). <http://www.ala.org/ala/olos/outreachresource/ruratf_surveysumpt1.pdf>.

- 장서 개발 부분은 "현대 비소설" 분야가 시급하다고 응답함. 그러나 부족 도서관은 "지역 역사, 회고록, 민속학, 전설과 같은 자료가 시급하다고 응답. 시골 학교 도서관은 "교육과정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함
- 도서관 대부분은 시민단체/비영리 기관, 지자체와 협력관계임. 그러나 전문대/대학과는 협력 관계가 거의 없음. 응답 도서관의 절반은 미국도서관협회(ALA) 회원이었으며, 그 중 극소수만 공공도서관협회(PLA) 회원임
- 미국도서관협회에 원하는 사항은 도서관 예산과 지원 지지와 직원 개발 기회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었음
-

<표 33> 작은도서관 조사보고서 결과 요약

구 분	조사 결과
도서관 형태	전체 응답 도서관은 1184개 중 공공도서관(695개), 학교도서관(377개), 부족도서관(50개) 기타(62개)
도서관 위치	오대호/대평원 지역(488개:41%), 서부/남서부 지역(363개:31%), 북대서양지역(209개:17%) 등
지역	인구 2500이하 (439개:39%), 2500-4999(249개:21%), 5000-9999(216개:18%) 등
응답자의 지위	직원/매체전문가/사서 (508개:43%), 대표/관장(515개:42%)
응답자의 성별	여성(1084개:92%), 남성(100개:8%)
응답자의 연령	45-54(495개:42%), 55-64(343개:29%),35-44(206개:17%)
도서관 지역의 관심사	빈곤(356개:30%), 인구감소(298개:25%), 기타(212개:18%). 시골 학교 도서관과 시골 공공 도서관은 빈곤과 인구감소 문제를 시골 부족 도서관은 빈곤, 문맹
도서관 난제	자금 부족(718개:61%), 기타(139개:12%), 낡은 시설(120개:10%) 순으로 응답함
시급히 필요한 교육	직원/고객을 위한 컴퓨터 교육(543개:46%), 직원/고객을 위한 기본적 도서관 스킬(217개:18%) 순으로 응답함. 시골 학교 및 공공도서관은 컴퓨터 교육, 기본적 도서관 스킬 교육 순으로 시골 부족 도서관은 기본적 도서관 스킬 교육, 직원용 도서관 학위 프로그램, 컴퓨터 교육 순으로 응답
장서 개발의 필요성	현대 비소설 분야(395개:33%), 현대 소설(201개:17%), 학교 교육과정 관련 자료(202개:17%) 순이었음. 시골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 관련 자료, 현대 비소설 순으로 시골 부족도서관은 지역역사/회고록/민속학/전설, 선정 도구, 현대 비소설 순으로 시골 공공도서관은 현대 비소설, 현대 소설, 지역역사/회고록/민속학/전설 순으로 응답
도서관의 필요 기술	하드웨어(컴퓨터, 프린터 등)(401개:34%), 기술 지원(283개:24%), 직원/고객 교육(259개:22%) 순으로 응답
도서관 협력 사항	협력하고 있는 기관은 시민단체/비영리기관(802개:68%), 지자체(593개:50%) 순이었음. 협력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종교 단체(1034개:87%), 전문대/대학(746개:63%) 순으로 응답
회원 가입 사항	미국도서관협회(488개:41%), 공공도서관협회(227개:19%)
미국도서관협회에 원하는 사항	도서관 예산 및 지원 지지-공공 정책, 로비 등(839개:71%), 직원 개발 기회-컨퍼런스, 교육기관 등(584개:49%),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온라인 토론 리스트,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교육 등(571개:48%) 순이었음

다) 작은도서관 지원 및 협력 현황

① 지원 내용

- 도서관 개발을 위한 지원
  - ✓ 전문성 강화와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도서관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지원
  - ✓ 각 도서관 사서들이 어려움을 가지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원, 주로 도서관 서비스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들기, 도서관 운영시 예산 확보 방안, 도서관 정책 개발 지침 지원

- 직원들의 계속 교육과 훈련 지원
  - ✓ 주도서관에서는 1년에 1~2회의 작은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관리 훈련 프로그램(Small Library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이나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하여 참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과 신기술이나 신지식 등에 관한 계속 교육 지원

- 기술적인 지원
  - ✓ PC 업그레이드, 메모리 장착, TCP/IP 설정, 안내장치 설치, CRT 텔넷 등
  - ✓ 도서관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 지원과 같은 기술컨설팅서비스

- 부차적인 지원
  - ✓ 대중소설이나 인기 있는 신간 서적 위주의 자료 등의 컬렉션 지원 등을 위해 이동문고(Book mobiles) 서비스를 함

② 협력 내용

작은도서관 협력분야는 도서관 봉사, 자료의 수집 및 보존 협력, 자료정리, 디지털서비스, 도서관 관리 협력 등이다.

<표 34> 작은도서관 협력 내용

협력 분야	협력 내용
도서관 봉사 협력	상호대차(ILL), 문헌복사의 상호제공, 공동대출, 정보봉사 처리의 상호의뢰, 홍보 공동실시, 정보검색기기의 공동이용
자료의 수집, 보존 협력	공동 선택 및 공동구입, 자료의 분담수집, 분담보존, 자료교환, 자료의 공동보존, 공동제본
자료정리 협력	집중정리, 종합목록
디지털서비스 협력	웹사이트 개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이용, 디지털 자료 접근 등
도서관 관리 협력	인사교류, 직원 연수, 도서관 평가, 도서관 조사, 도서관 용품의 공동구입, 도서관설치 진흥을 위한 협력

2.1.3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젝트

가) 미국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Task Force 프로젝트[5)]

① Task Force 구성

- 시골(학교, 부족, 공공)도서관의 문제/난제 규명 및 해결안 마련을 위한 권고안 작성을 목적으로 2002년 12월부터 18개월간 전략적 분석을 실시함
- 2003년 초, 대상을 시골학교, 부족, 공공도서관으로 제한함.
- 2003년 12월, ALA 소장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2004년 6월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발표

② 이용자 설문 조사 및 분석

- 도서관의 일반사항 및 인적사항, 난제 등을 포함한 총 14 문항 조사
- 조사 응답 도서관은 1184개(설문 결과는 설문 자료를 참고바람)

③ 작은도서관을 위한 미국도서관협회의 서비스 실정

- 현재 ALA 홈페이지상의 시골도서관 자료 건수는 7건으로 여타 도서관에 비해 미미하다. ALA의 서비스에 관한 자료 1건, 조지타운 카운티 도서관 등 개별도서관 관련 자료 3건, Task Force에서 다룬 자료 2건, 통계 차트 1건을 포함함

④ 작은도서관 해결안 마련을 위한 권고안

- 시골도서관 지원을 위한 ALA의 리더십 확보

5) <http://www.ala.org/ala/olos/outreachresource/ruraltf_finalrpt.pdf>.

- ✓ 시골도서관 지원 주도는 OLOS 사무국에서 담당
- ✓ 지원 인원 채용 및 시간 확보 불가시, 기존 조직 개편을 통한 인원 확보

- ● ALA내 시골 도서관 사서를 위한 가시적 환경 조성
  - ✓ ALA내 시골도서관 특별위원회 설립 (ALA Special Committee on Rural and Reservation Library Services)
  - ✓ '1인' 도서관 사서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ALA-APA 설립 및 시설 지원
  - ✓ 유사 도서관간의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 여타 도서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ALA의 지원사항 재정비

- ● 국가적 차원의 시골도서관에 대한 설문 실시

- ● 국가적 차원의 시골도서관 지지 캠페인 개발
  - ✓ 시골도서관 지원을 위한 ALA 내, 외부 조직 점검 실시
  - ✓ 지원 자금 확보 방안 강구
  - ✓ 시골도서관 지지 자료 작성 및 배포
  - ✓ 시골도서관에 영향력이 있는 정부, 지역 단체와의 파트너십 확보
  - ✓ 주정부에 지지하기 위해 ALA 카운슬러 활용
  - ✓ OLOS내 관련 자료 확충
  - ✓ @Your Library 캠페인 확대 실시

⑤ 요약

- ● 상기의 권고안을 따르는 것은 6,170만 시골 지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자, 미국내 시골 도서관 종사자들에게 ALA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 ● 2003년 가을 설문조사에서는 시골 지역과 그 지역의 도서관들은 생존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지역을 위해 평등한 정보 접근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모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ALA는 활동해야 한다.

나) 서부 메사추세츠지역 도서관시스템(WMRLS) 작은도서관 프로젝트[6)]

6) <http://www.wmrls.org/wmrls/2006smalllibrarystudy.htm>.

WMRLS 작은도서관 프로젝트를 요약하면 2,000명 미만 인구 대상 봉사 도서관 수는 69개관 (5,000명 미만 봉사 대상의 매사추세츠주 도서관의 55.74% 해당)으로 주로 매사추세츠 주의 서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서부 매사추세츠 지역 주민은 작은 마을 생활 선호, 작은도서관은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으며, 14개 도서관 현장 방문, 포커스그룹 인터뷰, 웹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① 연구 결과

- 서부 매사추세츠 주에만 작은도서관이 많은 것이 아님 - 2,000명 미만 인구 대상 봉사 미국 전체 도서관의 1/4 차지하고 있음
- 타 주 도서관과의 비교시, WMRLS의 작은도서관은 중간 정도의 수준임
- 높은 이용률 보임 (매사추세츠 주의 평균 이용률 보다 높음 : 1인당 8.43개 이용)
- 저조한 장서 폐기율(turnover) : 폐기될 자료가 많음
- 지역민들은 자기 마을 도서관 외 다른 도서관도 이용하고 있음
- 상당수 초고속 인터넷 연결 부족
- 마을 도서관이 지역공동체 기관 역할 대행

② 서부 매사추세츠 지역 작은도서관의 유형

-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 - 소수가 해당됨
-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 수준 - 대부분 해당됨
-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수준

③ 고품질 서비스 제공 도서관으로 가기 위한 권고안

- 작은도서관간 협력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확보 및 유지
- 초고속 인터넷 설치 및 지역 공유 자동화 시스템 연결 확보
- 협동 장서 개발 및 자료 공유 시스템 도입
- 안정적 재정지원 확보를 위한 성공적 작은도서관 모델 개발
- 고품질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방안 강구
- 매사추세츠 도서관 위원회, 여타 재단 및 주정부, 카운티 정부 등의 기관에서의 부수적 자금 지원 방안 강구

다) 작은도서관 지속성장을 위한 프로젝트(Rural library sustainability project)[7)]

작은도서관들은 직원 교육의 기회, 지술 지원 문제, 인터넷 연결과 같은 서비스 접근에 대한 제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 프로젝트는 WebJunction, 주도서관(state library), 작은도서관 직원들 간의 협력체로, 프로젝트의 목적은 도서관에서 지속적인 PAC(공공접근컴퓨팅, Public Access Computing)을 위한 지역사회의 특수한 상세한 사업계획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작은도서관들의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립도서관에서 워크숍의 형태로 해마다 개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게이츠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① 목표

지역사회의 PAC(Public access computing)의 지속과 확대를 위한 상세한 사업실행계획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작은도서관 직원을 증원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ALA 연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선정된 워크숍 참석자들(각 주에서 최소 3인 이상 참여한다)의 포럼을 도모하고, 워크숍의 결과를 토론하며, 좋은 실례를 공유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세한 사업계획의 계속적인 개발 도모한다.

WebJunction을 이용하여 작은도서관들이 경험하게 되는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 이 커뮤니티는 워크숍에 참석한 참석자들간의 의견 공유 및 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작은도서관 직원들과의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②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유지, 성장하기 위한 7개의 조건

- 도서관 연결 : 다른 도서관이나 기관들과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기술 연결 : 집안에서 집 밖에서 연결이 가능한 기술적인 지원
-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목록 조사,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 직원과 이용자 교육 : 직원 교육과 교육 자료, 이용자 교육
- 자금 조달 : 보조금, 기부/기증, 기금조달자, 다른 정보원들
- 아웃리치(Outreach) : 평가, 진흥, 지역사회 후원자들이 필요함
- 지지 : 도서관이 미친 영향에 대한 데이터 수집, 지역사회의 지도자들과의 제

7) http://host.evanced.info/nys_rls/index.html

휴/협력

라) 사서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WebJunction[8)]

사서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WebJunction은 게이츠재단에게서 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도서관 직원들 간의 아이디어 공유, 문제 해결, 온라인 학습 과제를 위해 모이는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이다. 특히, 작은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부족도서관(Tribal Library), 농촌도서관, 지역도서관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도서관들이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및 지침서를 제시하며 이들 도서관 직원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최근 WebJunction이 게이츠재단으로부터 Spanish Language Outreach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금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Spanish Language Outreach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 직원들이 지역사회의 스페인어 사용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제공하고, 미국 전역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공공 접근 컴퓨터를 사용하는 스페인어 사용자들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게이츠 재단은 3년간 2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한 New Mexico, Colorado, Illinois, Florida에서의 18개월간의 파일럿 프로그램 역시 성공적이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을 만들고, 37개의 워크샵을 주최하였으며, 482명의 도서관 직원들을 훈련시켰다[9)].

사서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WebJunction의 커뮤니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5> WebJunction 커뮤니티 내용

커뮤니티	내용
Policies and Practices	● 테크놀로지 계획, 수용가능한 이용 정책, 접근성, 마케팅 전략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줌으로써 도서관들이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이해 도모 ● 도서관의 모든 측면에 대한 최선의 정책과 실례 제시, 기술 계획, 공간 계획, 공공 접근 컴퓨팅, 마케팅, 장서개발, 재난 계획에 대한 도움 제공
Technology Resources	● PAC 프로그램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 방법, 정보 제공

8) <http://webjunction.org/do/Home>.
9) <http://www.oclc.org/news/releases/200519.htm>.

	● 접근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터넷, 보안, 기본적인 컴퓨터 지원, 네트워킹에 대한 도움 제공
Buying and Funding	● 기술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과 도서관의 자금 확보를 위해 냉혹하고 차가운 현금(cold hard cash)를 다루는 유용한 자료 제공 ●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 웹 사이트 제공, 일반적인 구매를 위한 어드바이스, 자금 확보 방법에 대한 지침과 자료 제공, 도네이션 지침
Services to Libraries	● 부족도서관, 작은도서관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도서관들을 위한 자료 제공, 특히 도서관이 이민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 어린이처럼 특정인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함
Learning Center	● 도서관 직원의 훈련과 계속 교육을 위한 자료 제공 ● 도서관 직원들의 온라인 학습 기회 제공,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동향 등 제공, 교육생들을 위한 조언과 방법 제공
Community Center	● 도서관과 관련된 현안 문제 등을 게제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인들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

2.1.4 우수 작은도서관 진흥 사례

가) 미국 베스트 작은도서관상(Best Small Library in America Award)[10]

베스트 작은도서관상은 Library Journal사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공동스폰서로 모범적이고 열성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을 고무하고, 모범 도서관으로 소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05년부터 매년 시상한다. 수여 대상은 미국 내 2만 5000명 이하 인구를 대상으로 활발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중에서 서비스, 프로그램, 지역 내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Library Journal 편집 위원, 주립 도서관 사서들 및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대표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8가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선정한다. 수상 도서관은 만 오천 달러의 상금과 함께 도서관 대표 2명이 미국 공공도서관협회 대회(PLA Conference)에 참가할 수 있는 비용 일체를 제공 받는다.

미국 베스트 작은도서관상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타 도서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상의 독창성
② PAC 도입 및 지원, 신기술에 대한 이용자 교육, 신기술 이용 효과 측정상의 혁신성

10) Best Small Library in America Award Nomination Guidelines (Library Journal November, 2006).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606273.html>.

③ 도서관 서비스 범위 확장상의 기술 사용 정도
④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정도
⑤ 타 도서관과의 협력 시 적극성
⑥ 타 기관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 정도
⑦ 새로운 이용자 증가를 포함한 도서관 이용률 증가도
⑧ 지역사회 센터 역할로서의 도서관 수행 정도

베스트 작은도서관상은 2005년 제1회 수상 도서관은 알라스카 주의 Haines Borough 도서관, 제 2회는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카운티에 있는 Milanof-Schock 도서관이 수상하였다.

나) 최우수 작은도서관 서비스상[11)]

(EBSCO Excellence in Small and/or Rural Public Library Service Award)

최우수 작은도서관 서비스상은 미국 도서관협회 산하 공공도서관협회와 EBSCO Information Services사가 공동스폰서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을 선정, 시상하였으며 1992년부터 매년 시상하였다. 수여 대상은 인구 10,000명 이하 대상 서비스 도서관 중 지역사회에 특별하거나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선정, 시상한다. 공공도서관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1명의 위원장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하며 수상 도서관은 상패와 천 달러의 상금을 수여 받는다.

최우수 작은도서관 서비스상 평가 기준은 첫째, 서비스 프로그램의 독창성, 둘째,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이며, 넷째 해당 도서관의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작은도서관 및 지역사회 미래에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2.1.5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가) Haines Borough 공공도서관[12)]

2005년 베스트 작은도서관상(Best Small Library in America Award 2005)을 수상

11) http://www.ala.org/ala/pla/plaawards/excellencesmall.htm
12) The Library Haines Built--Best Small Library in America 2005 (By John N. Berry III, Library Journal February 2005).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498845.html>.

한 Haines Borough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서비스 지역은 경비행기와 보트와 같은 특수한 이동수단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 등으로 이동 거리의 먼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 인구의 20%는 특정 지역의 부족 원주민이다.

① 이용 현황 및 예산 현황

- 연간 대출권수는 112,520권이며 5년 사이에 77% 증가(전년 대비 27% 증가)
- 인터넷 접속 사용은 28,000회 이상 사용. 5년 동안 3배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70% 증가
- 방문객 수 : 67,000 건
- 연간 예산은 293,000달러이며 예산의 11%가 도서구입비이다. 예산의 95%이상을 재산세를 통해 재원 마련

② 운영 현황

- 상주직원 5명, 파트타이머 3명 등 총 8명 근무
- 직원, 도서관 위원회, 도서관 친구 위원회 및 75명의 자원봉사자로 조직 운영
- 자원봉사자의 평일 야간(19~21시) 봉사 시행중

③ 운영 프로그램

- Dragonfly transforms는 HBPL과 지역 Chilkoot 인디언 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임
- 미국 Enhancement Grant for Native Americans 와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IMLS)의 재정 지원하에 지역 내 비행 청소년들이 컴맹인 지역 연장자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프로그램임. 도서관에서는 무선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를 대여
- 미국 원주민 문화에 대한 DVD 및 영화 테이프 제작함. 제작된 DVD와 테입은 도서관의 장서로 소장됨. 지역내 인디언협회와 방과 후 프로그램 진행

④ 지역 중심 센터로서의 도서관 활동 및 역할

- 도서관 건축 : 2003년 1월 개관 시 지역민 모두가 공사와 재원을 충당함
- 이용자 요구 파악 설문조사 실시 : 격년마다 장서 구성과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축하의 중심 역할 : 도서관에서의 크리스마스 파티 개최 및 결혼과 축제 장소로 도서관 공간을 제공함

나) Milanof-Schock 도서관[13)]

2006년 베스트 작은도서관상(Best Small Library in America Award 2006)을 수상한 Milanof-Schock 도서관은 1964년 걸스카웃 자원을 활용하고 트럭을 이용하여 인근 지역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원봉사자 도서관 활동 지원과 자원봉사자 중 간호사 Milanof가 거액을 기부하여 Clarence Schock의 SICO 재단 지원으로 상주 직원 2명과 파트 타이머 7명, 20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① 예산 및 지원 현황

- 예산의 48%를 주립, 카운티, 지역 정부에서 지원 받음
- 그 외 지자체에서 예산의 25% 지원 받음
- 지역 내 개인 및 재단에 자금 지원 캠페인 우편 발송으로 자체 자금 마련
- 랭카스터 카운티 도서관 시스템 (Library Systems of Lancaster County)을 통해 수서, 목록, 도서 준비등과 같은 기술적 지원과 OPAC, 상호대차 서비스 지원 받음

② 운영 프로그램

- Reads on Wheels 프로그램-지역 거주민 중 집에 있는 지역민에게 중고 밴을 활용한 도서 및 A/V자료, 기자재 대출함. 서비스 대상은 문맹인 지역 연장자 혹은 노인 대상인 면에서 기존 이동도서관과는 차별화됨
- 교육 프로그램-책 읽어주기,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집에 거주하는 이용자 및 홈스쿨링 학생, 성인 대상의 5~50개 이르는 프로그램 시행 중
- 지역민을 위한 특별 봉사 프로그램-농업지역인 지역내 여성 농장인 모임을 위한 장소 제공. 지역민의 다양한 기독교 종파에 따른 다양한 장서 구성
-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소수 민족 초청해 문화 및 요리법을 나누는 "Ethnic Food and Culture Series" 시행 중
-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펜실베니아 주 최초의 휴대용 컴퓨터 대여 서비스 실시 중. 도서관 직원이 지역 내 연장자 대상 컴퓨터 교육 실시 중. 지역 내 대학의 컴퓨터 전문가들과 파트너십 유지하여 교육과정 평가 및 지원 받고 있음. 일반적인 도서관 사이트 외, 어른들을 위한 전용 도서관 홈페이지, 아인슈타인 서거를 기념하여 만든 과학사이트 등 총 3개 사이트 운영 중

13) Everyone's Hitching Post Best Small Library in America 2006 (by By John N. Berry III, Library Journal February 2006).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6299831.html>.

2.2 일본

2.2.1 일본의 공공도서관 현황

일본의 「공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은 영어의 Public library에 대응하는 것으로, 문자대로 Public(公共)에 개방된 도서관을 의미한다. 유네스코의 『공공도서관선언』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이용자가 연령, 성별, 국적, 신분 등의 사회적 조건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서비스를 행하여, 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센터이다.

일본에서는 1950년에 제정된 도서관법 제2조에서, 도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일반대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그 교양, 조사연구, 레크리에이션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립(도도부현(都道府県) 또는 시정촌(市町村)이 설치) 및 사립(일본적십자사 또는 민법상의 공익법인이 설치)의 시설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것이 일본의 공공도서관을 정의하고 있다.

일본 도서관법에서는「공공도서관」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제2조도 단지 동법(同法)상에서「도서관」으로 일컬어지는 시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공공도서관이란 무엇인가」를 법적으로 엄밀히 정하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현실적으로 사립 도서관은 특정의 사람들만을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문도서관이 대부분이므로, 단지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경우, 도서관법상의 도서관 중에서도 공립도서관만을 한정적으로 지칭한다[14].

가) 공공도서관의 역사

지식의 집적인 도서를 수집한 도서관을 단순한 도서의 수장고로서 뿐만 아니라 공부하려는 의욕이 있는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실시한 예는, 옛날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등 인류 역사의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볼 수 있다. 고대에 공공시설로서의 공개도서관은 학자나 정치가 등의 장서가가 사적(私的)인 장서(collection)를 독지가에 의해 일시적으로 공중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일본에서 石上宅嗣의「芸亭(うんてい)」등 도서관의 선구라 간주되는 문고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16세기부터 18세기경의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이러한 독지가에 의한 일반

14) Wikipedia Japan Homepage. <http://ja.wikipedia.org/wiki/>

공개도서관의 규모, 수량, 존속기간 등이 확대되고, 또 대출 등과 같은 도서관 관외 서비스도 행해지게 되어 일상적인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 1731년에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이 설립한 필라델피아 도서관회사의 설립을 시초로 도서관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회원제도서관이 유행하고, 영미를 중심으로 시민의 독서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도서관이 탄생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면 각지에서 시민의 불특정다수를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는 공립의 도서관이 설립되어 공공도서관은 박물관 등과 아울러 근대국가에 불가결한 사회시설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도서관의 발전은 개국 후의 일본에도 재빨리 전파되어 메이지 원년(1867년)에는 각지에서 신문종람소, 집서원 등의 명칭을 가진 시설이 설립되어 신문 등의 정보미디어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메이지 시대 중기 이후에는 대중을 위한 도서관은「통속도서관」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그 설립주체는 주로 도도부현(都道府県) 이나 시정촌(市町村)에 비해 지역의 교사 등의 교육관계자나 교육에 관심을 갖는 유력자에 의해 구성된「교육회」로 일컬어지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단체나 또는 개인 독지가가 설치모체가 되어 추진되었다. 메이지 후기 이후는 도서관에 관한 법규나 제도가 정비되고, 다이쇼(大正)기부터 쇼와 초기에 걸쳐서는 공립도서관의 설립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공립도서관의 증가는 2차 세계대전에 따른 재정난과 패전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많은 도서관을 폐쇄하거나 규모를 축소하였다. 전후(戰後)의 부흥기에는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여 공립도서관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전쟁 전(戰前)의 도서관이 국민의 사상선도, 교육이라는 통제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을 반성하고, 일반 대중에게 평등하게 서비스를 시행하는 공공도서관의 개념이 1950년 제정된 도서관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을 거쳐 공립도서관의 신설이 계속되었다. 또 각지의 공립도서관에서는 공민관이나 소학교 등에 병설된 분관의 설치가 진행되어 보다 주민에게 가까운 지역의 도서관이 지향되었다. 이 결과 공공도서관은 양적으로 충실해져 현재는 모든 도도부현, 많은 시정촌에 공공도서관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서비스에 대해 보면, 전후의 도서관은 대출서비스의 확대가 현저하고,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즐기도록 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달성하게 되었다.

나) 공립도서관 설치기준 및 종류

일본의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昭和25년(1950년) 법률 제118호) 제 18조에 의거한 공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공립도서관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립도서관의 설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에 따른다.

① 도도부현(都道府県)[15]은 도도부현립(都道府県立) 도서관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에 대해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해당 도도부현내의 도서관 서비스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시(市, 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정촌립(町村立)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조언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② 시정촌(市町村)은 주민에 대하여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공립도서관의 설치(적절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복수의 시정촌에 의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주민의 생활권, 도서관의 이용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분관 등의 설치나 이동도서관의 활용에 의해 해당 시정촌의 전역 서비스망의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

③ 공립도서관의 설치에 있어서는 서비스 대상지역의 인구분포와 인구구성, 면적, 지형, 교통망 등을 근거로 하여 적절한 위치 및 필요한 도서관시설의 상(床)면적, 장서수장능력, 직원수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2002년 기준 일본 공립도서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16].

<표 36> 공립도서관의 현황

구 분		도서관수
공립도서관 등		6,669
공립도서관		2,664
	도도부현립(都道府縣立) 도서관	64
	시정촌립(市町村立) 도서관	2,600
공민관 · 공민관 유사시설		4,005
집계현황(전국집계), 평성14년(2002년 9월)		

15) 일본의 행정구역은 4개의 섬과 8개의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다시 지방의 행정단위는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 도)에 해당하는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 구성되고, 시 · 군 · 구에 해당하는 시정촌(市町村)으로 편제되어 있다.

16) 公立図書館等における予算措置. <http://www.mext.go.jp/b_menu/houdou/15/01/030119a.htm>.

다) 도도부현립 도서관

① 운영의 기본

도도부현립 도서관은 주민의 수요를 광역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하는 입장에서 시정촌립 도서관에 대한 원조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도도부현내의 도서관간의 연락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이 도서관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정촌의 요구에 응하여 도서관의 설치에 관해 필요한 원조를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도도부현립 도서관은 주민의 직접적 이용에 대응하는 체제도 정비하도록 한다. 이 도서관은 도서관 이외의 사회교육시설이나 학교 등과도 연계하면서 광역적인 시점에 서서 주민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시정촌립 도서관에의 원조

시정촌립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 자료의 소개, 제공을 행하는 일
- 정보서비스에 관한 원조를 행하는 일
- 도서관의 자료를 보존하는 일
- 도서관 운영의 상담에 응하는 일
- 도서관 직원의 연수에 관해 원조를 행하는 일

③ 도도부현립 도서관과 시정촌립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도도부현립 도서관은 도도부현내의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컴퓨터 등의 정보 · 통신기기나 전자미디어 등을 이용하여 시정촌립 도서관과의 사이에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진력하면서 자료의 반송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④ 도서관간의 연락조정 등

도도부현내의 도서관의 상호협력의 촉진이나 진흥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도부현내의 도서관에서 구축하는 단체 등을 활용하여 도서관간의 연락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도도부현내의 도서관 서비스의 충실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타 도도부현립 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 등과의 제휴 · 협력에 진력한다.

⑤ 조사 · 연구개발

도도부현립 도서관은 도서관서비스를 효과적 ·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한 조사 · 연

구개발에 힘쓰도록 한다. 특히 도서관에 대한 주민의 수요나 도서관 운영에 관계된 지역의 여러 조건의 조사 · 분석 · 파악 · 각종 정보기기의 도입을 포함한 검색기능의 강화나 효율적인 자료의 제공 등 주민의 이용촉진 방법 등의 조사 · 연구개발에 진력한다.

⑥자료의 수집, 제공 등

시정촌립 도서관 등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자료의 정비와 고도화 · 다양화 하는 도서관 서비스에 기여하기 위한 향토자료 기타 특정분야에 관한 자료의 목록, 색인 등의 작성, 편집 및 배포한다.

⑦시설 · 설비

연수, 조사 · 연구개발, 시정촌립 도서관의 요구에 따른 자료보존 등을 한다.

라) 시정촌립(市町村立) 도서관

① 운영의 기본

시정촌립 도서관은 주민을 위하여 자료나 정보의 제공 등 직접적인 원조를 하는 기관으로서,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그것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운영에 진력하도록 한다.

② 자료의 수집, 제공 등

- 주민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신간도서 및 잡지의 신속한 확보 및 다른 도서관과의 제휴 · 협력에 의해 도서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종류 및 양의 자료의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 또 지역 내의 향토자료 및 행정자료, 신문의 전국지 및 주요한 지방지 등 다양한 자료의 정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 다양한 종류 · 내용의 시청각자료의 수집에 힘쓰도록 한다.
- 전자자료의 작성, 수집과 제공 및 외부정보의 입수에 관한 서비스 등에 힘쓰도록 한다.
- 본관, 분관, 이동도서관 등의 자료의 서지데이터의 통일적인 정비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정확하고 신속한 검색시스템의 정비에 주력하도록 한다. 또, 대출의 충실을 도모하고 예약제도 등에 의해 주민의 다양한 자료요구에 적합하게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자료의 제공 등에 있어서는 복사기나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 등의 이용의 확대에 따라 직원이나 이용자에 따른 저작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③ 참고봉사 서비스 등

타 도서관 등과 제휴하면서, 전자메일 등의 통신수단의 활용이나 외부정보의 이용에도 배려하면서, 주민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또는 소개 등을 하는 참고봉사서비스의 충실 · 고도화에 힘을 쏟는 동시에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학습기회에 관한 정보 기타정보의 제공을 하는 참고봉사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한다.

④ 이용자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

- 성인에 대한 서비스의 충실에 이바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진전이나 산업구조 · 노동시장의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여 취직, 전직, 직업능력개발, 일상의 업무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충실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용 도서의 수집·제공, 아동·청소년의 독서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책읽어주기 등의 실시, 정보통신기기의 정비 등에 의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 학교 등의 교육시설과의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의 충실에 기여하기 위해 고령자를 배려한 구조의 시설정비를 함과 동시에 대활자본, 독서확대기 등의 자료나 기기, 기재의 정비, 충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또, 관계기관·단체와 제휴를 꾀하면서 도서관 이용의 경우 개조, 대면낭독, 택배서비스 등 섬세하고 빈틈없는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에 힘쓰도록 한다.
-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충실에 기여하기 위해 장해가 있는 이용자를 배려한 구조의 시설의 정비를 함과 동시에 점자자료, 녹음자료, 수화나 자모용의 영상자료의 정비 · 충실, 자료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기재의 정비·충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또, 관계기관·단체와 제휴를 꾀하면서 수화 등에 의한 양호한 커뮤니케이션의 확보에 노력하고, 도서관이용의 경우 개조, 대면낭독, 택배서비스 등 세세하고 빈틈없는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에 힘을 쏟도록 한다.
-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자료의 수집 · 제공, 이용안내나 참고봉사 서비스 등에 노력한다.

⑤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

- 주민의 자주적 ·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원조하기 위해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영화상영회, 자료전시회 등을 주최하거나, 타 사회교육시설, 학교, 민간의 관계단체 등과 함께 주최하는 등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에 힘을 기울임과 동시에 학습활동의 장 제공, 설비나 자료의 제공 등을 장려한다.
- 주민의 정보활용능력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강좌 등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⑥ 자원봉사자의 참가의 촉진

국제화, 정보화 등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아동·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 기능 등을 가진 자의 자원봉사자로서의 참가를 한층 더 촉진시키도록 노력한다. 그를 위해, 희망자에게 활동의 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원봉사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의 실시 등 여러 조건의 정비에 진력한다. 또한 그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자발성을 존중하며,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광고 및 정보공개

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여 새로운 이용자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광고지 등의 정기적인 간행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정보발신 등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광고활동 및 정보공개에 진력하도록 한다.

⑧ 직원

- 관장은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지식·경험을 가지고 도서관의 역할 및 책무를 자각하여 도서관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관장은 사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한다.
- 전문 직원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제공 및 정보서비스 기타 전문적 업무에 종사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충실과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료 등의 제공 및 소개 등의 주민의 고도로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도서관에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기에 충분한 필요한 수의 전문적 직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 전문적 직원 외에 필요한 수의 사무직원 또는 기술직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 전문적 분야에 관계되는 도서관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적당히 외부

의 전문적 지식 · 기술을 가진 자의 협력을 얻도록 노력한다.

⑨ 개관일시 등

주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관일, 개관시간의 설정에 있어서는 지역의 상황이나 주민의 다양한 생활시간 등을 배려하도록 한다. 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주기에 의한 운행 등에 주의를 기울인다.

⑩ 도서관협의회

- 도서관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의 상황에 입각하여 이용자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도서관의 운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도서관협의회의 위원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인재의 참여를 얻도록 노력한다.

⑪ 시설 · 설비

본 기준에 제시한 도서관 서비스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개가·열람·수장, 참고봉사 서비스, 집회·전시, 정보기기·시청각기기, 사무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이용자에 따라서 아동·청소년,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시정촌립 도서관은 시정촌의 주민을 위하여 자료나 정보의 제공 등 직접적인 원조를 하는 기관으로서,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그것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17].

2.2.2 공민관도서실

공민관 도서실(公民館図書室)은 공민관내 함께 존재하고 있는 도서실을 의미하고, 시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각 공민관도서실은 사회교육지도원이 운영하고 있고, 각각의 지역에 밀착된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각각의 도서실에 약1만에서 2만권의 장서가 있고 그 이용에는 시립도서관의 이용권과는 별도로 이용등록이 필요하다. 대출한 자료는 대출했던 관에만 반납가능하다. 공민관에서 시행하는 강좌나 개최한 테마나 내용에 관한 책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공민관의 강좌나 공민관도서

17) 日本図書館協会　公立図書館の設置及び運営上の望ましい基準(2001)
<http://www.mext.go.jp/a_menu/sports/dokusyo/hourei/cont_001/009.htm>.

실을 공민관 활동이나 시민활동의 자료실로도 이용할 수 있다.

가) 공민관도서실의 설립배경

전후, 일본에서는 도서관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그 설치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도서관이 없는 정촌(町村)에서는 공민관 도서실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본에서의 민주화의 큰 담당자로서 등장한 공민관은, 좋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던 도서관을 대신하여 일약 사회교육시설의 중심적 존재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소화21년(1946년) 7월의 문부차관통첩『공민관 운영요강』에 있어서, 새롭게 공민관을 건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내용 중『도서관, 박물관, 향토관 등이 있으면 이것을 공민관에 합병하거나 또는 이것을 공민관의 분관으로서 활용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민관에 법적, 재정적 원조를 주게 된 사회교육법의 제정(소화24년(1949) 6월)에 따라 소규모의 작은 도서관은 공민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예를 들면, 가나가와 縣(神奈川) 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법 공포에 따른 행정조치로서『공민관의 설치보고 등의 규칙』을 제정함과 동시에, 행정 지도를 통해『기설 도서관의 공민관으로의 전직 등의 실정을 고려해서 장서 3천권 이상은 도서관으로 하고, 그 이하는 공민관 도서실로써 간주하는 것으로 분명히 구분을 지어놓고, 현 단계에서는 공민관의 육성과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방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공민관과 공민관 도서실을 구별하는 이러한 근거의 애매성을 앞의 문부차관통첩에서 공민관을『공민관은 일반적으로 향토에서의 공민학교, 도서관, 박물관 (중략) 등의 기능을 겸하는 문화교양의 기관이다』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과 동시에 공민관 자체가 갖는 구상의 크기와 시설보급을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 등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사회교육시설 사이에 매우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다. 특히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정촌립도서관이 모두 공민관으로 변경된 것은 소규모 도서관의 진흥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교육법에서도 명시된, 도서관, 박물관이라는 사회교육시설은 전문적인 기관 및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민관은 다목적 사회교육 종합시설로 분류되어 그 성격은 필연적으로 애매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도서관을 비롯한 박물관, 청년의 집, 시민회관 등의 시설증가와 활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민관 자체의 시설증가라는 외형적 발전과 달리 점차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18)19)].

나) 공민관도서실의 역할

공민관은 농촌적 시설로 인식되고 단체이용이 그 운영의 중심이 되었던 반면, 도서관은 도시적 시설로 간주되고 개인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종래의 단체 이용만으로는 공민관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공민관 활동 가운데 어떻게 개인이용의 분야를 개척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도서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단지 등이 조성되어 새로운 주민이 증가할 경우에는 주민과 공민관과의 첫 번째 이용형태는 주민이 도서실을 이용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한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편안한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둘째로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공민관에서는 어린이회 등의 단체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어린이와 관련된 행사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도서관에서 아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독서활동에 많이 배치하는 것에 의해 어린이의 자발성에 의거한 새로운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정문고, 지역문고의 담당자인 젊은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함에 따라 새로운 지역의 연대감, 공동의식을 육성하기에 유용하였다. 또한 지역 안에서 대두될 심각한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공민관 도서실을 통한 책을 읽는 노인, 공부하는 노인을 증가시켜, 노인과 젊은이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공민관 도서실을 유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하였다[20].

다) 공민관도서실의 분관활동

분관활동은 바로 공민관의 근본이고 토대이다. 분관의 진흥 없이 본관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이다(飯田)市의 분관설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뉘어져 있다.

① 분관이 지구내 모두에 설치되어 있는 공민관(11개소)
② 분관이 지구내의 일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공민관(3개소)
③ 분관조직이 없는 공민관(4개소)

이와 같이 18개소인 공민관도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다. 분관조직이 없는 공민관

18) 日本図書館協会. 公民館図書室の問題点について. (1978).
19) 月刊社会教育. 公民館図書室の運営をどう考えるか. (1971).
20) 月刊社会教育. 公民館図書室の運営をどう考えるか. 1971.

은 정내(町內) 또는 구(區), 조합(組合) 등 호칭은 다르지만, 분관으로 바뀌는 조직이 활동모체가 된다. 분관은 주민의 것이다. 항상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과제에 대해서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일익을 담당한다.[21]

라) 공민관 도서실의 기본문제

공민관도서실이 도서관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존재하는 이념 그 자체이다. 도서관법은 사회교육법제의 주요한 기둥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보장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평화와 행복으로 연결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민관도서실이란 종합적 시설로서 위치 지워진 공민관의『집회』를 주로 한 기능으로 『자료제공』이란 기능을 종속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인적배치 · 자료비 · 공간의 확보』라는 3대 문제점에 대해 항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종합화나 복합화라는 이름하에 기능의 종합화까지 이루려는 것이 도서관의 활동을 스스로 제한한 결과의 형태로 나타났다.

오늘날 공민관에 대하여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여러 가지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극히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도서관문제연구회의 오사카지부의 경우『공민관은 그것이 관(館) 주최이고, 주민 자신이 기획·편성하고, 주민이 집회활동에 활용하는 시설이며, 거기에 설치된 도서실은 그러한 집회나 학습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정비하고 제공하는 것이 통상의 활동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기본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교육법 제22조에서의 공민관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써『도서, 기록, 모형, 자료 등을 갖추고 그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해지는 것 외에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룹 활동이나 강좌 안에서 생겨나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과사전이나 도감을 놓아두는 일, 요리강습이나 가정교육학급 등을 위한 요리나 교육의 책을 구비하거나 또는 독서회, 학습회를 조직해 나가기 위하여 동일한 책을 갖춰놓는 정도까지는 어쩐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소설이나 어린이용 책까지도 갖추어 놓게 되면 바로 그 순간 도서관의 이미지와 겹쳐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과 같이『엄마와 아이의 공민관 활동』이라 일컬어지는 아동서비스까지 확장하면 일본 공민관은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양자를 구별하는 것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21) <http://www.city.iida.nagano.jp/shiko/motto/bunkan/q5.htm>.

되지 못한다. 따라서 도서관이나 공민관의 관계자는『공민관 도서실』의 명칭과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이다(飯田) 도서관의 今村兼義의 주장에 따르면, 『공민관 도서실은 정촌의 주민에게 있어서는 학습권 · 정보권을 보장하는 공공도서관』이고, 『그 명칭은 바뀌어도 그 활동 · 역할은 공공도서관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공민관도서실이 직면한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공민관의』도서실이라는 사고방식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다. 어느 쪽의 관계자도 주민의 자료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수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간에 명확한 협력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력관계에 대해 中村俊教는 도서관, 박물관 등과 공민관의 연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참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계는 공민관이 그들의 시설에 임시로 요청한다고 하는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명확한 형식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민관이 도서관이나 박물관의 분관이 된다고 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각각의 시설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주체적, 계획적으로 공민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중략) 확실한 상호협력의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22].

2.2.3 가정문고와 지역문고

개인이 자신의 집을 지역사람들을 위해 개방하기도 하고, 공회당이나 아동관 등에서 어린이들의 독서에 도움을 주거나,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이용대상은 엄마와 함께 온 유아들부터 초등학생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서비스 범위의 확장에 따라 부모의 유년기 시절 방문하였던 문고에 자신들이 자녀를 동반하여 이용자로 함께 하는 선순환 활용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일본의 문고와 독서환경의 개선을 희망하는 요구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문고는 단순히 대출만을 수행하는 공간의 개념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수행하는 지역 공동체이다.

가) 가정문고의 발생 배경

공공도서관 활동이나 보다 나은 도서관정책의 풍족함을 바라는 지역의 문화적 상

22) 日本図書館協会. 公民館図書室の問題点について. 1978.

황 그중에서도 유아 또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즉, 어린이를 둘러싼 문화적 상황에서 그리고 지역주민 특히 부인, 엄마의 의지와 논리에서 또는 도서관 활동 그것자체로부터의 작용에서 『가정문고 · 지역문고』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 가정문고 · 지역문고는 동시에 단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교육 또는 사회운동의 입장으로 인해 그 사회적 의의, 교육적 의의는 보다 크고 광범위한 것이 된다. 사회교육이란 주민의 학습을 매개로 하는 사람만들기 · 동네만들기(지역만들기 · 공동체형성)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지역문화의 창조이고 이 때문에 공민관 · 도서관 · 박물관이 완수하는 역할은 중대하다. 즉 지역문화 창조를 위한 주민이 모이는 장소, 학습활동이 행해지는 장소, 정보자료가 있는 장소, 역사적인『사건』이 있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어린이 문제를 매개로 한 지역의 사람 만들기이다. 즉 기업 또는 그 외의 직장의 『직업 제일의 인간』이 아니면『가정제일』의 인간도 아니므로 지역의 성원으로서의 주민을 형성하는 일이 과제이다. 세 번째는 어디까지나 주민을 중심으로 한 자치체의 새로운 행정유형의 창출이다.

나) 가정문고의 확산

전후(戰後) 직후 일본에는 아동부문을 담당하는 공공도서관이 없었다. 그런데 구미(歐美)의 아동도서관과 출판사 상황을 자세히 견학하고 돌아온 이시이 모모꼬(石井桃子)는 1958년 자택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택에 책을 놓아두고 어린이들에게 대출을 하는 공식적은 활동은 거의 이루러지지 않았다. 이시이 모모꼬가 자신의 7년간 활동을 바탕으로 1965『어린이 도서관』을 발표한 이후에 일본 전역에서 가정문고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활동을 기점으로 일보내 어린이용 양서가 많이 출판되게 되었던 시기와 때를 같이하고 있었다.

다) 가정문고와 지역문고 비교

전국에 지금 3,000개소에서 4,000개소 내외로 있는 문고는 쇼와(昭和)40년(1965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엄마들의 “어린이의 근처에 책을” 이라는 극히 소박한 기분이 문고 만들기 운동으로도 발전하였다.

어린이를 위한 문고활동이 어린이와 어린이의 접촉, 어른과 어린이의 마음의 교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민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달성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점에 불과했던 문고가 차후에는 횡적연계를 갖는 것에 의해 운동의 테두리를 넓혀

도서관이나 자치단체와 연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질적인 변화를 얻게 되었다.

문고활동을 중심으로 확산된 시민동지의 연대나 문제를 공유하는 의식의 고조가 도서관 만들기 만에 그치지 않고, 이윽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발전해가서 각지에 큰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문고는 거기에 모인 어린이의 부모나 부모의 주민 서로, 어린이와 어린이, 부모와 어린이의『만남』과『교감』의 장이 되고 학습활동의 장(場)이 된다는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갖는 곳이다. 또 지역의 도서관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작용, 또한 지역의 공통의 문제의식,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 그러한 문제의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학습이나 교육활동에 의해 지역의 보다 좋은 도서관 만들기라는 직접적인 문제는 물론 거기에 살기 좋은『지역사회 만들기』로도, 말하자면 사회교육의 바람직한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학교교육이외의『조직적인 교육활동』의 장 또는 단체 및 개인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있다.

일반적인 가정문고와 지역문고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가정문고

- 운영주체 :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읽히고 싶다' 라는 강열한 목적의식에 불타오르는 개인
- 설치장소 : 운영자의 자택
- 문고를 유지하는 3조건 : 가족의 협력, 자택의 공간, 운영자의 시간적 여유
- 기능
  - ✓ 운영자와 어린이와의 대화를 충분하게 계획한다.
  - ✓ 책읽어주기를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
  - ✓ 운영자의 창의나 고안을 문고의 운영에 계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 ✓ 개인별 상담체제로 정해 세심하게 독서상담에 응해줄 수 있다.
  - ✓ 좋은 책을 타인의 생각에 현혹되지 않고 살수도 있다.
  - ✓ 문고에 오는 어린이의 수를 자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 ✓ 장서율이 높다.
- 문제점
  - ✓ 운영자나 그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문고활동이 중지될 우려가 있다.
  - ✓ 운영자는 문고를 여는 날에 용무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쉴 수 없는 등 사생활상에서 적지 않은 제약을 받는다.

- ✓ 회비는 징수하지 않지만 징수해도 비교적 소액에 그치므로 어린이들의 왕성한 독서욕에 걸맞은 도서의 구입이 일반적으로 어렵다.
- ✓ 장소나 일손에 제약을 받으므로 어린이의 수를 무턱대고 늘릴 수 없다.
- ✓ 다른 가정문고와의 경험교류의 기회가 부족해서 운영이 독선적, 소극적으로 될 우려도 있다.

● 궁극적인 목표 : 최고도로 충실한 (한명 한명의 어린이와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좋은 책을 대량으로 구비한다. 어떤 어린이에게도 폭넓은 독서의 기회를 준다. 어린이들에게 작가나 연구자와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시설의 어린이 도서관을 만든다.

② 지역문고

● 운영주체 : 어린이의 독서에 강한 관심을 갖는 지역의 유지단체.
● 설치장소 : 지역의 공공(또는 반공공)시설
● 문고를 유지하는 3조건 : 팀워크, 각자의 개성을 살린 운영, 자치체의 협력
● 기능
- ✓ 시민운동으로서의 발상에 기초하여 지방자치체와 교섭하고, 보조금의 지급요구나 공공도서관에서의 대량 · 장기대출, 그 위에 공공도서관 등을 건설할 가능성을 가진다.
- ✓ 조직력을 충분히 살려서 대형의 독서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 ✓ 운영자의 한사람이나 두 사람이 나오지 않아도 지장을 받지 않는다.
- ✓ 문고를 여는 날을 늘릴 수 있다.
- ✓ 바자회 등을 개최하여 자금 활동에서 여유 있는 재정운영이 가능.

● 문제점
- ✓ 운영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린이와의 만남이 사무적 · 기계적이 될 우려가 있다.
- ✓ 많은 어린이가 모여들기 때문에 책읽어주기가 어려워질 경우가 있다.
- ✓ 리더격의 운영자가 그만둘 때 후계자에의 인계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 운영자 그룹이 교대제로 운영할 경우, 인계가 철저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
- ✓ 단지내 집회소에 대한 반공공시설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자치회의 소급회의, 장례식 등의 공식· 준공식행사 때문에 문고활동이 방해를 받는 일도 있

다.

- 궁극적인 목표 :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문고와 힘을 합쳐서 지방자치체에 작용하여 공립어린이 도서관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상이 가정문고와 지역문고를 비교한 것으로써 이 두개의 시설을 총칭하여 지역문고로 통칭하고 있다[23].

2.3 브라질

브라질의 작은도서관은 꾸리찌바시의 “지혜의 등대”와 미니도서관인 “문학의 상자(Arca das Letras)"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꾸리찌바시의 파벨라(빈민촌으로 불리는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 곳곳에는 꾸리찌바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지혜의 등대”가 있다. “지혜의 등대”는 단순한 도서관의 차원을 넘어서서 청소년의 쉼터와 선도시설, 그리고 지역의 치안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문학의 상자” 프로그램은 지역적으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보급된 미니도서관이다.

2.3.1 “지혜의 등대” 작은도서관

가) 지혜의 등대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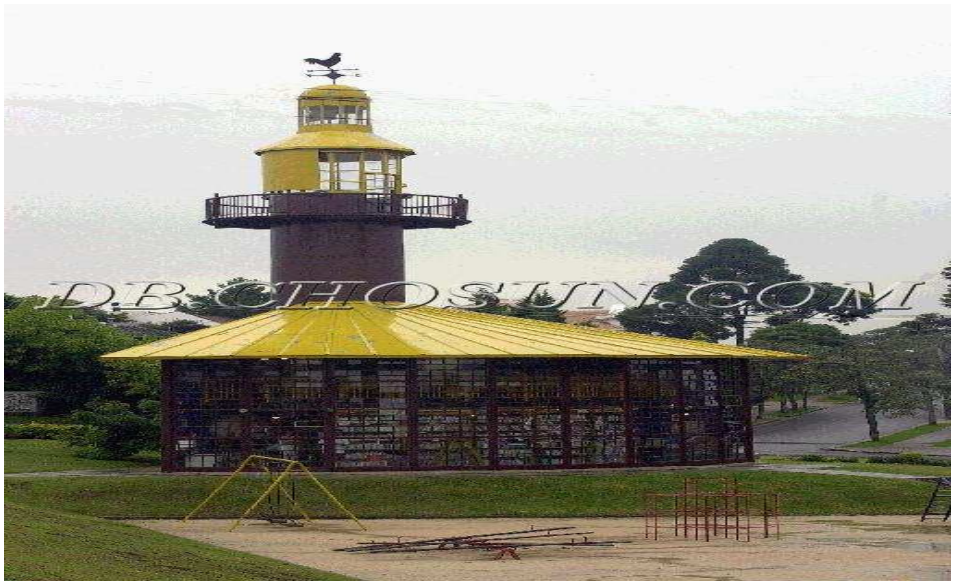
운영주체는 꾸리찌바시이며 운영 개소수는 45개이다. 설치장소는 공립학교의 교문에서 30미터 이내 설치가 원칙이고, 운영인력은 1개소당 10명(5명 1조 2교대)이다. 보통 교사 1명, 교사보조 1명, 경찰 1명, 컴퓨터 강사 1명, 청소원 1명으로 구성된다. 면적은 약 30여평으로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으며, 이용 현황은 등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주일 평균 1,000여명 정도이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꾸리찌바시의 “지혜의 등대” 도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 도서관인 동두천시의 “지혜의 등대” 도서관에 영향을 주었다.

나) 시설현황 및 구조

23) Murakami, taiji On the 'KATEI-BUNKO' and 'CHI-IKI-BUNKO' in Mitaka city, Tokyo (1969).

건물 구조는 2층 건물로 1층은 도서관, 2층은 컴퓨터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망대 역할을 하는 16미터 높이의 등대가 있다. 도서실에는 도서가 약 5,000~8,000여 권 있으며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가 5~6대 있다. 도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중앙도서관 또는 다른 지혜의 등대와 교환하고, 컴퓨터실은 예약에 의하여 한 사람이 1일 1회에 1시간씩만 이용가능하며 예약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이용가능하다.

지혜의 등대는 시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건물외관과 내부시설 등이 거의 동일하다.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파로스의 등대'와 뮤세이온에 있던 대형 도서관을 창조적으로 엮어서 건물을 지었다.



<그림 9> 브라질 꾸리찌바시 지혜의 등대

다) 지혜의 등대 역할

지혜의 등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휴식공간과 치안의 보조역할을 한다.

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기회 확대

지혜의 등대는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브라질의 꾸리찌바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90년 중반에 시작한 사업이다. 가급적 가난한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이들에게 도서관 이용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컴퓨터 교육을 통한 정보소양을 돕고 있다.

② 청소년의 휴식공간

지혜의 등대 설치 장소가 공립중학교 교문에서 30미터 범위내에 설치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선도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컴퓨터 보급률이 낮은 측면을 감안하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이용이 가능한 지혜의 등대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휴식공간이다.

③ 치안의 보조역할

지역의 특성상 경찰이 이곳에 상주하여 지혜의 등대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한편으로 탑의 높이가 16미터에 이르고 있어서 등대를 중심으로 마을의 치안을 일정부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2.3.2 “문학의 상자” 미니도서관

2003년부터 시작된 미니도서관인 “문학의 상자” 프로그램은 2004년 말까지 11개 주에 415개가 개소하여, 3만5천여 가구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문학의 상자”는 나무 상자 형태의 미니도서관으로 가정집이나 마을회관 등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교육 및 문화관련 책으로 채워진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독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촌 등 소외지역에 미니도서관인 나무상자가 설치된다.

교육부에서 각종 도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각 지역 교도소 재소자들을 동원해 나무상자를 제작한다. 또한 작가협회와 출판인협회 등 출판 관련 단체와 각 지방의 시민단체들도 도서 기증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미니도서관을 받은 주민들은 이웃에게 도서를 대여하거나 독서 캠페인 등을 벌일 수 있다. 2005년부터 브라질 연방헌법과 상원에 이해 제정된 각종 법률관련 서적도 공급돼 국민들의 법률지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중앙은행과도 업무협력을 맺어 은행에서 재정적, 문화적 지원을 받게 된다.

2.4 세계 도서관 서비스 포인트 비교

2001년 기준 세계 도서관 통계[24]에서 각국의 도서관 서비스 포인트(service point) 비교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로 노인 가구, 지역센터, 병원 같은 곳에 이용자를 위해 도서관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대출해주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미국의 도서관당 인구수는 29,975명이고, 서비스 포인트는 16,491개로 서비스 포인트당 인구수는 16,726명이다. 그리고 영국은 도서관당 인구수는 289,888명이지만 서비스 포인트당 인구수는 13,068명이다. 우리나라는 도서관당 인구수가 112,666명으로 영국이나 스위스보다 우수하지만 서비스 포인트당 인구수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통계에 나타난 서비스 포인트는 중앙도서관, 분관도서관, 이동도서관, 그 외 외부 서비스 포인트를 말한다. ISO 2789에서는 서비스 포인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을 중앙도서관, 분관도서관, 이동도서관과 외부 서비스 포인트로 분류하였다. LIBECON 통계 자료는 외부 서비스 포인트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 도서관 통계의 분류에 따른 도서관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37> 도서관의 정의

구분	정의
중앙도서관	주요 도서관 관리 및 운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장서 및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서관을 일컬음. 여러 개의 분관 도서관으로 구성된 운영 단위로써 메인 도서관을 포함시키지 않음.
분관도서관	운영 기능 중 한 부분으로써 특정 이용자 계층(어린이, 교수 등)과 특정 지역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 협회, 부문, 기타 분관 도서관이 포함되며, 이동 도서관은 포함되지 않음.
이동도서관	공공도서관의 한 분과로, 도서관 접근성에 대한 대안으로써 자료 및 서비스를 갖추고, 이동 가능하여 직접 이용자를 찾아가는 도서관
외부 서비스포인트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 노인 가구, 지역 센터, 병원 같은 곳에 이용자를 위해 도서관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포함. 이동도서관은 포함시키지 않음.

24) 세계도서관통계원인 Libecon 자료 참조. <http://www.libecon.org>.

<표 38> 세계 도서관 통계-서비스 포인트 비교(기준 2001년)

국가	인구수 (천명)	도서관수		서비스포인트	
		관수	1관당 인구(명)	포인트수	포인트당 인구(명)
불가리아	7,820	3,757	2,081	3,757	2,081
체코	10,224	6,090	1,679	7,179	1,424
에스토니아	1,432	546	2,622	664	2,157
헝가리	10,018	2,470	4,056	3,003	3,336
라트비아	2,326	920	2,528	920	2,548
리투아니아	3,646	66	55,247	1,432	2,546
폴란드	38,652	9,226	4,189	3,564	10,845
루마니아	22,104	2,814	7,855	3,190	6,929
슬로바키아	5,399	2,656	2,033	2,909	1,856
슬로베니아	1,988	60	33,139	256	7,767
오스트리아	8,123	993	8,180	1,825	4,451
벨지움	10,399	485	21,442	1,451	7,167
덴마크	5,367	244	21,997	797	6,743
아일랜드	3,802	32	118,823	360	10,562
핀란드	5,158	436	11,831	1,117	4,618
프랑스	59,464	3,989	14,907	3,884	15,310
그리스	10,824	733	14,767	829	13,057
아이스란드	253	128	1,973	133	1,899
이탈리아	57,844			6,003	9,636
리히텐슈타인	33	3	11,107	3	11,107
룩셈부르크	457	8	57,167	8	57,167
네덜란드	16,251	490	33,165	1,101	14,760
노르웨이	4,551	435	10,463	1,010	4,506
포르투갈	9,832	164	59,951	318	30,918
스페인	39,542	4,829	8,189	5,209	7,591
스웨덴	8,909	291	30,617	1,592	5,596
스위스	7,321	41	178,556	2,009	3,644
영국	60,297	208	289,888	4,614	13,068
독일	82,214	9,062	9,072	10,932	7,520
미국	275,838	9,202	29,975	16,491	16,726
터키	67,090	1,434	46,785		
호주	19,262				
일본	127,474	1,716	74,286	2,680	47,565
대한민국[25]	49,235	437	112,666		
캐나다	31,375	921	34,066	2,750	11,409
뉴질랜드	3,931	297	13,236		

25) 대한민국 통계는 “한국도서관통계 2002” 데이터를 활용

2.5 시사점

외국에는 우리나라의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고와 같은 시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대부분이 공공도서관시스템 안에서 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서 분관 또는 소규모의 조직과 시설로 운영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한다.

미국의 경우 인구 25,000명 미만의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정의하며, 5대호 지역과 대평원 등의 작은도서관 개발과 난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사를 한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지원과 협력을 위한 직원들의 계속 교육과 훈련, 기술지원, 도서관간 봉사협력, 디지털 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미국도서관협회의 Task Force, 서부 메사추세츠지역 도서관시스템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수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민간단체에서 진행한다. Library Journal사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미국 베스트 작은도서관상과 EBSCO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작은도서관 서비스상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차대전 직후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부족한 1960년대 후반부터 엄마들의 '어린이 가까이에 책을'이라는 극히 소박한 구호로 가정문고와 지역문고가 급속히 증가했다. 또한 문고활동을 중심으로 확산된 시민동지의 연대나 문제를 공유하는 의식의 고조가 도서관만들기에 그치지 않고 이웃과 살기 좋은 지역사회만들기를 위한 여러 형태로 발전하여 큰 성과를 보였으나, 해당 기관 운영자의 사직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였다. 또한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기술적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당 시설들은 점차 쇠퇴하였다.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민관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공민관 활동 가운데 어떻게 개인이용의 분야를 개척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공민관이 도서실(전국에 약 4,000여개 설치됨)의 역할을 개선하여 지역주민과 밀착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꾸리찌바시의 지혜의 등대 작은도서관과 미니도서관 역할을 하는 문학의 상자 프로젝트가 인상적이다. 지혜의 등대는 우리나라 동두천시의 작은도서관의 모델로 가난하고 시설이 낙후된 시골지역에 지역특색에 맞게 정보와 교육기능으로 도서관역할과 지역방범의 보조기능을 겸하여 운영된다. '문학의 상자' 프로그램은 독서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 등 소외지역의 가정집과 마을회관에 설치하여 손쉽게 교육과 문화관련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3. 결과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와 외국의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현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순천시 사례와 동두천시의 지혜의 등대 작은도서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작은도서관과 대전의 모퉁이어린이도서관과 같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병행하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브라질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도서관 서비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식된다.

가. 우리나라 사립문고의 높은 비중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립도서관의 수보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문고나 작은도서관의 수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문고 수는 공립문고가 778관(27.1%)과 사립문고가 2,094관(72.9%)으로 모두 2,872개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봉사인구가 적은 작은도서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문화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공민관의 도서실처럼 준공공기관 같은 시설이 요구된다.

나. 문고 규모의 영세성

작은도서관에 대한 통계조사에서 문고의 운영주체는 종교단체(25.3%), 새마을문고(19.9%), 아파트(8.8%) 등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24평의 규모와 24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평균 3,287책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용자 수, 운영 프로그램 등이 우수한 문고부터 순차적으로 자금,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고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 외국의 경우 문고와 공공도서관의 구분 부재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문고와 같은 시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문고를 도서관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대신, 이를 모두 공공도서관시스템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도

서관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서 신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우수 문고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

라. 다양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젝트

미국의 경우 미국도서관협회의 작은도서관을 위한 Task Force 프로젝트, 작은도서관 지속성장을 위한 프로젝트와 빌 앤 멜린다 게이츠재단과 EBSCO 등 민간에서 진행하는 우수 작은도서관 진흥사례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진흥팀과 민간 기업, 공익재단들의 도서관 지원 프로젝트들이 중복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마.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유치원과 초등학생과 관련된 책읽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은 농촌 또는 시골의 지역 특성에 따라 도서관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노인,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과 모퉁이어린이도서관처럼 다양하고 풍부한 서비스는 열성적인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을 재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한다.

제4장 작은도서관 협력 및 네트워킹

1. 도서관 협력

1.1 도서관 협력의 의의

오늘날 정보 환경의 개선과 통신 및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하여 도서관을 통한 정보 서비스는 급격한 양적 증대를 이루었으나, 질적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아직도 정보서비스의 수혜 여부에 따른 정보의 격차는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질적인 보완이나 정보 격차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별 도서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도서관의 가치는 존재 그 자체로서 보다는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정보자원의 원활한 유통체제가 갖추어졌을 때 더욱 그 가치가 발휘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점차 다양해지고 가능한 많은 자료를 포괄적으로 획득하기를 원하는 이용자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도서관이 전 세계의 모든 자료를 수집, 관리할 수는 없으며, 또한 급증하는 정보량과 다양화 되고 있는 이용자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도서관간 상호협력 네트워크는 불가피하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중심에 서있는 도서관은 적어도 제공 가능한 정보에 관한 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만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접근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이 정보화 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 중의 하나로 대접받는 이유는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 서비스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오늘날 디지털 환경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정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고, 이용자의 특성과 개별적인 정보 요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직접 전달해주는 정보서비스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에게 보다 근접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가능하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그리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순히 지역적인 근접성만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개별 도서관은 동일한 고민을 하는 개별 도서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도서관 상호간 협력은 도서관별로 부족한 자원을 타 도서관과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도서관 상호협력 활동의 강화는 최근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이용자의 정보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소속 도서관뿐만 아니라 타 도서관의 자료 검색이 용이해지는 등, 정보에 대한 공유의 기회가 확대되어 상호 협력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은 조성되고 있다.

도서관 협력체제에 대한 요구는 도서관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정보의 소장과 접근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정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정보 통신기술 및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이동과 활용이 편리해졌으며, 이에 따라 물리적인 거리가 도서관간 협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출판물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출판양의 증가에 비해 제한된 예산은 결과적으로 수집 자료의 감소로 연계되어 타 도서관과의 협력 수서나 자료의 공동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사회적 환경은 정보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정보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됨에 따라 정보 이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증가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타 도서관과의 협력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이용자의 요구 증가에 따른 정보의 소장과 접근 측면에서 볼 때 과거 도서관은 자료를 자관에 소장하고 요구의 발생시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소극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던 차원에서 현재는 전자도서관 체제와 같은 원격 접속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으로 자료에 대한 서지적 접근은 더 이상 사서들의 독무대가 아닌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개방 되었다. 과거 단일 도서관이 비소장 자료의 경우 이용자의 요구 발생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현재는 서지적 접근을 통하여 자관의 자료에 대한 정보는 물론 타관의 정보도 파악이 가능하여 그 서비스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도서관 주위 환경의 변화 및 발전은 개별 도서관으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타 도서관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사회적인 역할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정보의 근접 제공 공간으로 혹은 문화공간으로써 연결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개별 작은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문화, 복지적 및 정보서비스 기능의 역할 수행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중적인 도서관으로서 주민에 대한 근접성을 보다 강조하는 작은도서관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서관 협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간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화는 작은도서관에 부여된 기능 수행을 위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 상호 협력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여 작은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용자의 정보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시도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이 타도서관과의 협력 체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보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점은 개별 작은도서관의 소장 자원에 대한 활용 극대화는 물론 도서관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최소화와 이용자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내실화가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 협력대상 도서관

지금까지의 도서관 협력은 동일 관종 간, 지역별로 근접한 도서관간, 혹은 주제별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간 자료수집과 이용을 위한 상호협력이 대부분이었다. 즉, 공공도서관 및 대학, 전문도서관들은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거나 비슷한 규모의 장서 혹은 도서관 역량을 갖추고 있을 경우 자료의 상호 이용이나 자료수집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나 전문도서관의 경우 특정 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공공의 성격을 가진 작은도서관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은 태생적으로 피할 수 없는 자원, 인력 등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타 도서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양한 도서관 협력체제에 연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자신보다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 혹은 학교도서관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작은도서관이 협력대상 도서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지역적인 인접성 혹은 서비스 대상에 따른 관종의 차이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 정보서비스적 기능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이 추구하는 목표를 공유하는 지역 도서

관은 어린이도서관이거나 공공도서관 혹은 학교 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 기관이다. 작은도서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문고 이용자의 약 55%가 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 그리고 학교 도서관의 주요 이용자인 초등학생이거나 취학전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특히 중요한 협력 대상이 이들 도서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이 협력대상 도서관을 반드시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물론 작은도서관이 협력을 통한 수혜기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관종의 도서관으로부터 협력 대상 기피 도서관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어린이도서관, 학교도서관 혹은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되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협력을 통하여 타 관종의 도서관으로부터 도움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1.2.1 학교 도서관과의 협력

도서관 문화가 우리보다 앞선 미국이나 유럽지역의 선진국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사서와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가 연계하여 도서관 계획, 수서, 대출, 봉사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은 공공도서관의 일방적 지원으로 그 내용이 단편적이며, 일시적이므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지리적으로 서로 근접해 있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한다면, 도서관의 부족, 어린이 전문 사서와 사서 교사의 절대적 부족 현상, 운영 예산의 부족 등에서 오는 문제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모델로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 모델,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 모델, 그리고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 통합 모델이 제안되었다. 만약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지체 혹은 분관으로서 서비스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작은도서관을 그대로 협력 모델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선, 학교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혹은 공공도서관 협력 모델은 대도시 지역에 적합한 모델로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협력의 출발점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부족한 영역을 상호 보완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되 최종적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나아가 지역 내 다른 도서관까지도 포괄하는 지역단위의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 모델은 학교도서관은 열악하지만, 공공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중소형 도시에 적합한 모델로 공공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공공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부문은 대체로 각급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업무협력 관련 업무,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교육과 현재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통합모델은 두 도서관이 모두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농어촌에 적합한 모델로 인력, 시설, 프로그램 등이 총체적으로 열악하여 한쪽이 다른 쪽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두 도서관이 통합하여 한 도서관으로 운영하되, 양쪽 기능을 한곳에서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학교도서관의 공공도서관 기능은 학교도서관의 공간과 자료의 일부분을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한다는 관점으로 출발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센터의 제 역할을 담당하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1.2.2 어린이 도서관과의 협력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의 주 이용자는 어린이들이다. 어린이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장 자료나 시설이 주요 고객인 어린이들에게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물론 어린이 도서관이 어린이만을 위한 도서관은 아니지만 어린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서관이다. 그러나 어린이 도서관의 설립은 아직 초기단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에 많지 않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어린이 도서관이 독립적으로 설립, 운영되기 보다는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 열람실을 제공하는 등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료나 시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도서관에 대한 어린이들의 접근용이성이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도서관에의 접근 수단에 있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도서관의 근접성 여부가 도서관 이용정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공간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도서관은 접근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역 공공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반면 어린이를 위한 자료나 시설이 부족한 작은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의 협력은 상호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린이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어린이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물

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작은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협력을 통하여 작은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을 거점으로 어린이들이 물리적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들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2.3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우리나라에서의 작은도서관은 초기에는 대부분 민간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중심의 문고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공공도서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작은도서관 운동과 함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이 민관 협력 형태(부천시), 초기 민간주도로 출발하여 후에 지자체 주도로 변경된 형태 (창원), 혹은 처음부터 지자체 주도 형태(순천)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4개 시립도서관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11개 공립문고형의 작은도서관이 상호 협력하여 성공적인 도서관 협력 체제를 이루고 있다. 부천시는 지자체와 민간이 상호협력하여 운영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지원은 물론 운영비는 부천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이 맡고 있다. 특히 시립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은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비스를 비롯한 도서관 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형태의 또 다른 예는 순천시와 같이 지자체 주도로 운영되는 것이다. 순천시는 기적의도서관 설립이후 타 지역보다 도서관이나 독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이에 부응하여 지자체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발하여 공립문고에 배치하되, 민간 성격이 강한 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부천시와는 달리 순천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는 일정액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장서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개 시립도서관과 25개 작은도서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시립도서관의 장서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순회문고를 운영하여 지역적으로 격리된 이용자들에게도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창원시는 초기에 민간 주도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체제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운영의 주체가 지차체로 바뀌었다. 정보의 활용이나 문화적 활동과 같은 주민에 대

한 공공적인 서비스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초기 운영형태와는 관계없이 관 주도로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결국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공공도서관의 지원이나 협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그 협력대상이 공공도서관이 되는 것은 매우 자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경우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타 도서관과의 협력의 의미는 진정한 협력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궁극적으로 공공 도서관의 서비스의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주요 서비스 내용을 고려해 볼 때 그 대상은 우선적으로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간 협력은 작은도서관이 추구하는 기능이나 목적에 따라 우선 협력 대상 도서관(공공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학교도서관)과 기타 협력 도서관(지역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정보서비스 측면에서는 서비스 대상 자료의 형태(디지털 자료 혹은 인쇄자료)에 따라 협력 대상 도서관을 달리할 수도 있다.

1.3 협력 대상 업무

상호협력은 도서관간의 상호대차, 종합목록의 작성, 공동목록, 공동수서, 서지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 등을 통해 자원의 공동 활용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도서관간 협력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사업은 상호대차, 분담 혹은 협동 목록의 작성, 분담수서, 원문복사 서비스, 그리고 최근 들어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협력 참고봉사 등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동일 관종 혹은 서로 타 관종의 도서관들 사이에서 지역별 단위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근 경향은 국가적 차원이거나 보다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은 상호협력의 범위 및 내용을 상당히 광역화, 조직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즉, 지역별보다는 국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확장으로 국제적 수준의 상호협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역 공공도서관의 지원활동은 크게 인력지원, 자료지원, 공간지원, 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지원, 교육지원, 도서관에서의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그리고 예산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작은도서관은 운영되고 있으며, 협력의 범위는 작은도서관이 추구하는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간 협력활동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업무는 공동수서, 공동편목, 상호대차, 원문복사, DB공유, 협력 참고봉사, 그리고 기타 문화프로그램을 위한 운영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작은도서관의 입장에서 볼 때 상호대차를 제외한 부분은 공공도서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서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도서관 간 업무의 표준화이다. 공공도서관(혹은 거점도서관)이 작은도서관과의 업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료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도서관리 시스템의 공동 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 방안은 지역별 대표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이용자의 통합관리, 도서의 공동 구입 및 정리, 문화 및 독서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지원활동, 운영지침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나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연계되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기능 수행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서 구입 및 정리는 개별 작은도서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대표 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의 요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구입하되 구입된 도서는 정리 작업을 한 후 전달함으로써 작은도서관으로서는 자료 구입과 정리에 소요되는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기반을 자연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협력 업무 가운데 하나인 공동 편목 혹은 분담편목은 협력도서관 간 수집된 자료의 목록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함은 물론 소장 자료에 대한 목록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서비스 등의 기초가 되는 소재정보와 서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OCLC의 공동 편목시스템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간 목록작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공동 편목시스템과 대학도서관을 위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공동편목 시스템이 있다. 공동 편목시스템은 개별 도서관의 목록을 센터에 모아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센터에 구축된 목록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서 지식자원에 대한 활용의 극대화와 동일한 자료에 대한 서지 작업에 중복으로 투자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도서관간의 공동협력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등장과 소장 정보의 디지털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술적, 재정적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용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에서도 타관 소장자료에 대한 검색이나 접근이 용이해졌다. 도서관 또한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협력망에 소속된 도서관들은 구축된 자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상호 교환하여 상호협력 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 물론 작은도서관의 현 상황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확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상호협력을 통한 디지털 참고봉사는 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인력 부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에게 우수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참고봉사를 위한 상호협력은 아직은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지역별로 도서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부족한 인력과 자원을 공유한다면 이용자들에게 보다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디지털 참고봉사를 위한 전담인력의 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여러 도서관이 협력하여 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한 참고봉사는 가능할 것이다.

1.4 협력 추진 방안

작은도서관이 도서관간 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협력체제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작은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이나 운영여건이 독립적으로 다양한 도서관서비스를 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은 법에서 규정하는 도서관 기준에 미달하는 공사립 문고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문고들로 지역의 공공도서관 분관 수준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여백을 매워주는 독서시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분관 수준의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분관적 협력을 통하여 혹은 분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이들 간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자료의 공동 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시스템을 제공하여 노동집약적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는 작은도서관의 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의 마련과 작은도서관의 운영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나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자급자족에 의한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예산이나 운영상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예산의 지원과 운영상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까지 근접 지원이 가능한 기관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거점 도서관이다. 그러나 개별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평가하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가 따른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도구나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지원 기준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더욱이 공공도서관이 자체의 운영 예산의 확보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은 사실상 무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거점 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작은도서관 간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경쟁의 유발과 동시에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자발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다음 고려사항은 작은도서관의 부족한 소장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하나의 협력 체제 하에 두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도서관 간 협력을 통한 상호대차이다. 상호대차의 저해요인 가운데 하나는 도서분실이나 연체,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내 이용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도서관과 관내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문화 및 독서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과의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독후감대회, 독서경진대회 등 비교적 대규모의 독서관련 행사를 주최하도록 하고, 작은도서관에서는 문화프로그램과 같은 소규모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아무리 좋은 해결 방안이 제안되더라도 이를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물론 예산이나 인력의 지원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 결국 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인력의 지원은 물론 도서관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작은도서관 네트워킹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킹은 상호 협력이 용이한 공공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연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려하여 독립적인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도서관간의 완전한 자료의 공유를 이룰 수 있는 개방 도서관 시스템을 지향하여 도서관 상호협력 체계를 수행하는 방법이 이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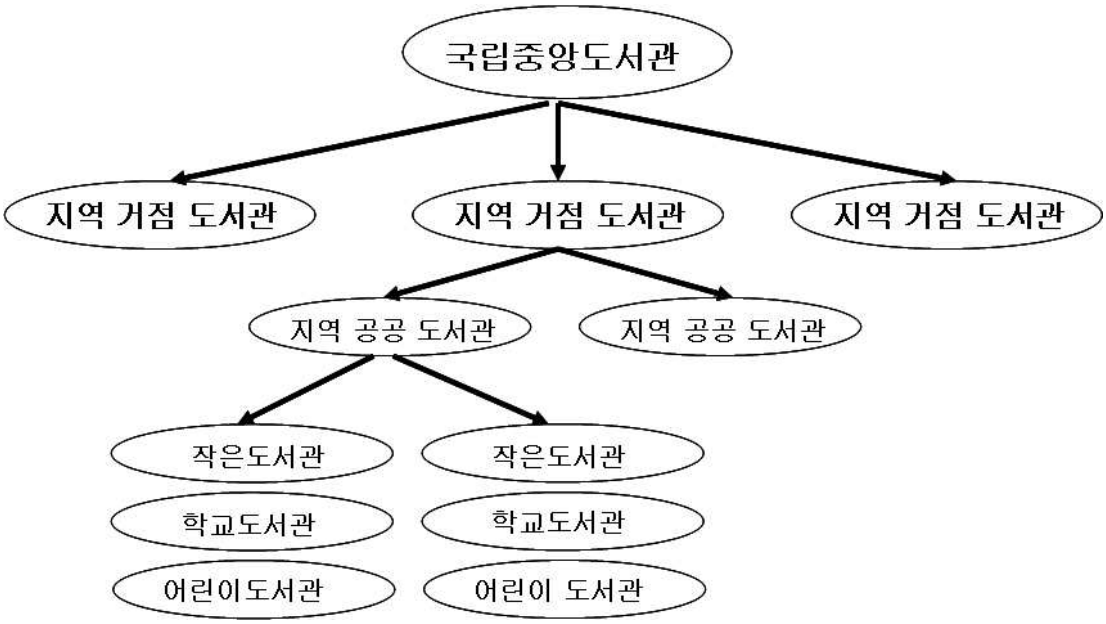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은 다양하게 구상될 수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향후 발전과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그 형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기 단계에는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같은 상위 계층의 도서관에 의존하는 형태인 계층형 모형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따라 적용 모형은 점차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협력 모형을 계층형 모형, 분산 운영관리 모형, 중앙 운영관리 모형, 서비스 센터 모형, 그리고 상호 서비스 모형으로 제안하고 단계별로 적합한 모형을 추천하였다.

2.1 계층형 모형

하위 계층에서 해결되지 않은 요청을 상위 계층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계층적 협력지도 방식을 취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의 특징은 도서관의 업무처리 양상이 비슷한 도서관끼리 횡으로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게 되며, 종으로는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소장자료의 규모나 기능이 포괄적이 된다. 그러나 이 모형은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복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제가 가능한 사회주의 국가의 도서관이 선호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협력을 위한 모형이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국가 대표도서관이 중앙센터 역할을 담당하면서 타 도서관을 지원하는 의미가 크다. 미국의 의회도서관 영국의 국립도서관, 캐나다와 호주의 국립도서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 등 대부분의 국가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유지하는 협력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차상위 계층인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작은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대출/반납이나 상호대차와 같은 세부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작은도서관이 정보서비스 센터로서 자율적인 운영 능력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모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모형은 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도서관 간 협력망의 형태로는 부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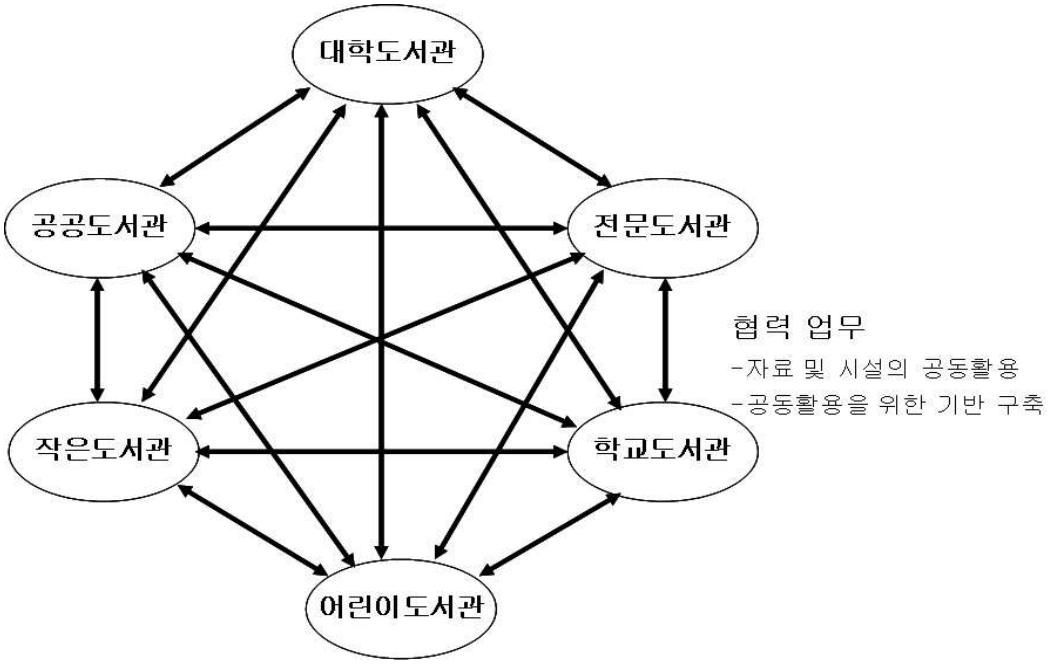
<그림 10> 계층형 모형

2.2 분산 운영관리 모형

분산 운영관리 모형은 도서관 협력 형태 가운데 분산형 모형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도서관별로 정보자원이 동등하게 분산되어 있을 경우 개별 도서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모형으로 지방 분산적 협력 방식을 취한다. 이 모형은 도서관간의 직접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하며, 협력망 내의 각 도서관이 보유 장서의 주제별 특성을 달리함으로써 자원의 공동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협력을 위한 의사전달 채널이 산만하게 분포되어 협력을 통한 경비 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분산 운영관리 모형에서 도서관의 운영은 개별 도서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여러 도서관이 동일한 결과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고 협력 도서관의 시설을 활용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의 협력 활동은 자료 및 시설의 공동 활용 등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 모형은 공공(지역)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초기의 도서관 협력 형태로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타 도서관과의 협력보다는 지원에 더 많

이 의존하는 작은도서관에게 적합한 협력 형태는 아니다. 이 모형에서의 도서관 간 협력 형태는 매우 유연한(loosely-coupled) 형태의 협력 체제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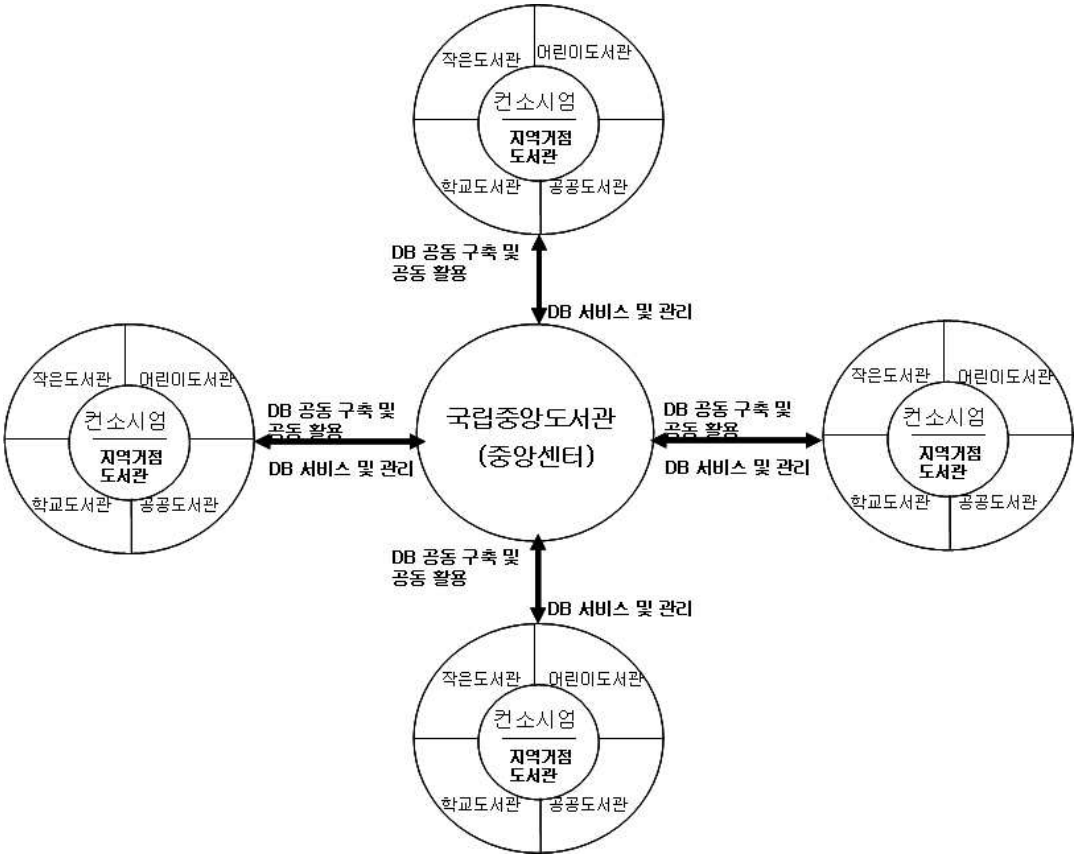
<그림 11> 분산 운영 관리 모형

2.3 중앙 운영관리 모형

중앙 운영관리 모형은 정보자원이 대표 도서관 혹은 몇몇 도서관(예 거점도서관)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의 거점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적 협력망을 우선으로 구성하고 형태로 운영된다. 개별 도서관은 작은 단위의 협력망 내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하되 협력망 내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요구는 중앙의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하여 해결하는 집중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에서 운영관리를 위한 중앙도서관이 존재하며, 연결된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의 간접적이긴 하지만 관리 및 통제를 받게 되는 중앙집중형의 협력 형태이다. 이 모형에서 중앙의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은 협력센터의 대표 도서관(지역 거점도서관)과의 단일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통해서 협력이 이루어지므로 기관간 협력에 필요한 비용이 감소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중앙의 협력센터에 역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 증대에 따라 센터에 부담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 운영관리 모형의 중앙 기관은 협력망 간 협력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한다. 또 다른 중앙센터의 역할

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자료 관리를 위한 표준화와 같은 제도적 지원 등 많은 경우 간접적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중앙 운영관리 모형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도서관 간 협력망의 형태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중앙 운영관리 모형이 적합한 모형이 될 수도 있다.



<그림 12> 중앙 운영관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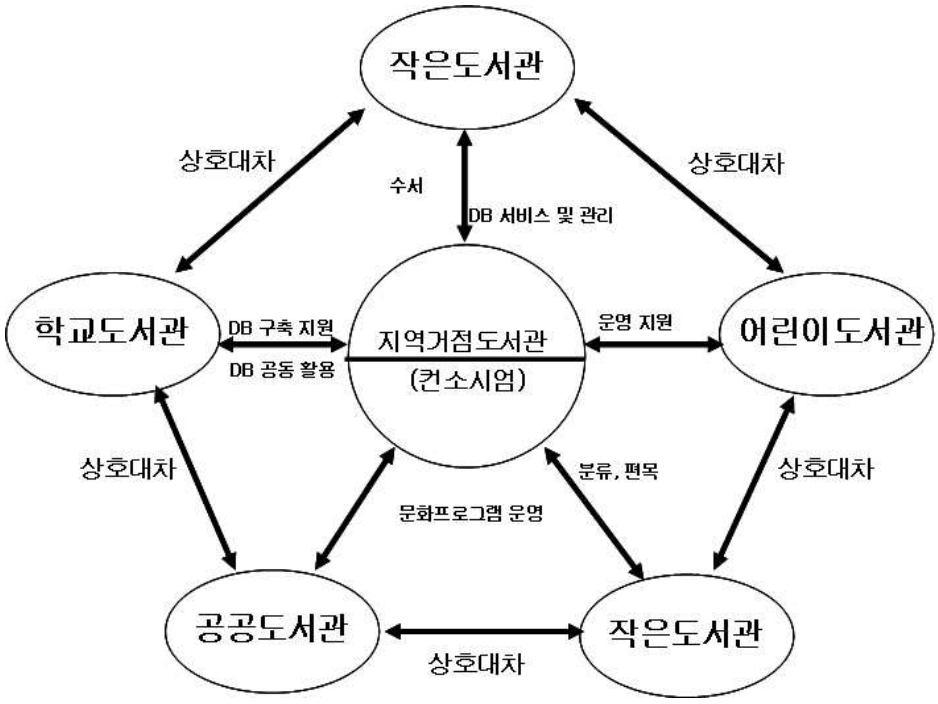
2.4 서비스 센터 모형

중앙 운영관리 모형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중앙센터에 대한 업무 부담의 집중을 지역별로 여러 개의 협력망으로 분산할 수 있는 모형이다. 즉 중앙 관리모형에서 나타나는 지역 거점 도서관 중심의 컨소시엄을 하나의 작은 중앙관리 모형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서비스 센터 모형은 중앙 운영관리 모형의 축소형으로 여러 도서관이 지역 거점 도서관에 하나의 시스템 조직을 구축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처리하는 형태로 데이터의 입력은 도서관별로 중앙의 서버에 분산하여 입

력하고 입력된 데이터는 지역 거점 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하는 형태이다. 물론 지역별로 혹은 컨소시엄별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상호 교환 혹은 공동활용을 통하여 이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거점 센터는 중앙 운영관리 모형의 중앙 센터가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대출/반납,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 내 도서관 직원에 대한 교육, 기타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서비스 센터 모형은 지역 거점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도서관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가지는 자료의 양적 제한이나 재정적 제한, 운영상의 한계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특히 지역 거점 도서관 자체도 제한된 여건 하에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충족시키면서 작은도서관을 거의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로 남게 된다. 따라서 거점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의 운영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같은 최소한의 통제 기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센터 모형에서의 도서관 간 협력은 매우 긴밀한 밀착형(tightly-coupled) 형태의 협력 체제를 이루고 있다. 현재 작은도서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협력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서비스 센터를 중심으로 한 협력망 내에서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면 협력의 범위를 타 협력망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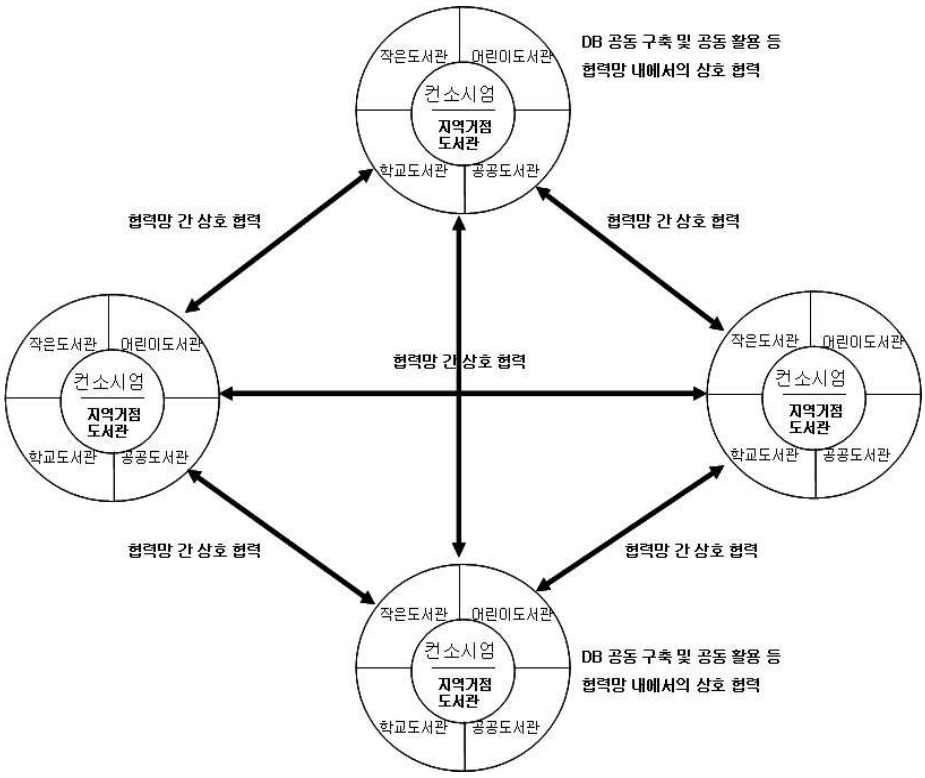
<그림 13> 서비스 센터 모형

2.5 컨소시엄 중심의 상호 서비스 모형

상호 서비스 모형은 서비스 센터 모형을 확장시킨 개념으로 중앙 운영관리 모형과 유사하다. 다만 중앙 운영관리 모형에서 존재하는 중앙의 통제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다르다. 이 모형은 분산형, 집중형, 계층형이 혼합된 형태로 관종별, 지역별, 주제분야별 등으로 상호 연관된 도서관들 간의 협력망을 구성하고 협력망을 통하여 다른 협력망과의 협력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상호 서비스 모형은 대체로 도서관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채택된다. 각각의 협력망은 자체적으로 도서관협력센터를 두고 이를 통하여 타 협력망과 기능을 분담하는 형식을 취한다. 즉, 여러 개의 큰 도서관이 도서관 협력센터로 업무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협력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협력센터에 집중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각 센터간의 업무 조정이 난이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자료상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재정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상호 서비스 모형은 상기에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협력 체제이다.



<그림 14> 상호 서비스 모형

3. 작은도서관 협력 체계 구상

도서관 간 협력은 개별 도서관이 이용자의 문화, 교육, 정보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 하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서비스 센터로서의 이상적인 도서관은 개별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작은도서관이 자구적인 노력 없이 타 도서관과의 협력만을 우선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내 정보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자체 역량강화와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협력망은 반드시 필요하고 보다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관간 협력의 내용은 현재 상황 하에서 가능하거나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협력활동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그리고 학교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와의 연계방안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상기에서 제안된 도서관 협력 모형 가운데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컨소시엄을 통한 상호 서비스 모형이 가장 현실적이다. 상호 서비스 모형에서 중앙센터의 역할은 지역별 거점도서관이 맡게 될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광역대표도서관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중앙센터에서 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함은 물론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극대화를 위하여 지역의 공공 도서관간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거점도서관과의 관계개선, 협력 체계, 그리고 지원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작은도서관의 대 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한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협력망을 통하여 협력을 통한 혜택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일방적인 지원을 통한 수혜 기관이 된다. 그러나 서비스 거점으로서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서비스를 주도하는 곳이므로 이용자와의 가장 근접한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서비스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거점으로서 최소한의 역량을 지녀야 하며, 도서관간의 협력은 작은도서관의 역량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정보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주어진 여건에 비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다. 지역 내에서 도서관 간 협력을 통하여 자원의 공동

활용은 협약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인력의 공동 활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통한 단위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확대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서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서비스의 확대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 거점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음은 물론 현재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운영 주체를 지역의 민관협력 하에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다. 이는 도서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범 국민적인 도서관 활용의 생활화를 통하여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하여 삶의 질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도서관 협력 활동의 수혜자로서 작은도서관은 지역적으로 특성상 주민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자유로운 대출 및 반납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평등한 정보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에게 독서 습관을 형성하여 정보 이용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4. 결과분석 및 시사점

1) 작은도서관은 지역적 근접성은 뛰어 나지만 가용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역주민의 정보·문화공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 정보서비스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원이면 협력적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작은도서관의 이용자가 주로 어린이와 주부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과의 협력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2) 작은도서관의 협력네트워크는 초기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작은도서관 및 문고 등을 연계하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협력망과 학교도서관망을 연계한다. 이 협력망에 광역대표도서관 주도로 형성되는 지역도서관 정보서비스 협력망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확장·추진되어야 한다.

3) 작은도서관의 협력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전산매뉴얼에 포함되는 업무는 상호대차, 공동수서업무, 공동 목록업무, 공공도서관과의 DB공유, 협력참고봉사, 문화행사 프로그램 안내정보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에게는 작은도서관 전용 혹은 공동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자원이 활용되도록 한다. 공공도서관은 협력망 및 공동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함으로써,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서 주도적 운영자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4) 전산화를 통한 호혜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로 연계된 모든 도서관업무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수준 높은 통합형 협력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으로 이어져야 한다. 효율적 업무협력이 가능하도록 기능성이 뛰어난 협력시스템의 개발·보급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 및 전문단체에 의한 효율적인 업무매뉴얼의 작성과 합리적인 평가지표의 개발, 전문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5) 작은도서관 협력운영을 위한 네트워킹 모형은 계층형 모형, 분산운영관리 모형, 중앙운영관리 모형, 서비스센터 모형, 상호서비스 모형 등으로 제안 할 수 있으며, 이들 가운데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컨소시엄을 통한 상호서비스 모형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6)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운영 주체를 지역의 민관협력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생활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 거점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게 된다. 협력네트워크로 연계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범국민적 도서관 활용의 생활화를 구현하고,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균형적인 문화·복지서비스 시설로 추구되어야 한다.

제5장 작은도서관의 모델과 운영방안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설 및 운영방안은 이의 해석만큼 다양하다. 2006년 개정된 도서관법에서는 문고를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하였으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준은 명문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역할과 기능 등은 관리 주체나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모델과 특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1. 작은도서관의 모델

도서관 서비스의 수준은 그 제공 목적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하는 기초 수준(minimum level), 추구할 목표를 제시하는 최고 수준(excellent level), 또는 중간 수준 (medium level) 등으로 그 설정 수준을 차별화할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는 각 도서관이 갖는 의지와 함께 물리적인 시설과 인력 등과 같은 자원에 따라 결정지을 수 있다. 특히 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특성화 제안을 위해서는 질적 확보에 따른 물리적 자원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서관 서비스의 범위와 규모는 최소한의 시설과 자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작은도서관이 지향하는 서비스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정보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목표에 맞는 적절한 자산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모델 제안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의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기준은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지만,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묵시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문고의 발전된 형태로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고에 대해서는 개정 도서관법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지원해야하는 조항과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한다고 문고에 대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공공도서관 규정에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입법예고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안에서 공립문고에서는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는 최소 규정만이 있다. 단, 국립중앙도서관의 의뢰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정립한 연구[26]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분관역

26)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국립중앙도서관. 2006.

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포인트로서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작은도서관이 추구하는 사명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면, 공공도서관을 비롯하여 작은도서관, 문고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이다. 즉, 이들 기관은 지역주민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정보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모델은 대상과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 공공도서관이 추구하는 서비스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작은도서관의 모델은 도서관법에 규정한 문고관련 조항과 국내 문고의 현황, 주요 문고지원사례의 기준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개정된 도서관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문고로 정의하고, 이를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관련 조항을 문고로써 작은도서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27)]

한편, 문화관광부에서 입법예고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령안에 의하면, 문고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시설 및 자료기준, 별표 2의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문고 또는 어린이도서관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2. 도서관에서의 사서직원 배치기준

- 공립문고의 경우에는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유추하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기준보다는 작고, 기존의 문고에 비해 강화된 기준과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28)]. 즉, 문고의 설치 조건을 과거의 법령 기준에 따르면, 10평 이상의 공간과 장서 수 1,000권이상이였던 것과 공공도서관은 80평 이상의 공간과 장서 수 3,000권 이상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의 기준도 이 사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전국문고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고의 국내 평균 시설과 장서수는

27) 이에 대한 법률적 의미는 문고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서관법상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역할과 기능 등 모든 것을 공공도서관에 준해서 해석할 수 있다.
28) 이용남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의 자문의 결과도 있었음.

평균면적이 약 24평이었으며, 한 문고당 평균 열람석수는 24석로 조사되어, 이 평균수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평균 보유 장서수는 3,287권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법의 3,000권이상이라는 공공도서관 장서 기준을 문고도 충족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상향조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복권기금에 의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지원시에 선정된 문고의 평균면적은 47평이었으며, 장서수는 약 5천 여책을 보유한 곳을 대상으로 한 기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천시에서는 문화소외지역에 11개의 사립문고를 공립화하는 운동에서, 그 지원대상의 실제 면적은 20평 내외였으나 기본장서는 3,000권이상으로 기준을 선정하여 공간규모에 비해 보유 장서기준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작은도서관 모델 및 주요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29].

『주거지역에서 걸어서 10분거리에 위치한 소규모(30~50평내외) 복합문화시설로서 자녀독서지도, 동화구연, 독서토론회 등 동아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동네 문화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는 곳』

이러한 일련의 법과 사례를 고려하면, 작은도서관의 장서수는 최소 3,000권에서 5,000권 내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면적도 30평에서 50평 내외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한편 작은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시설 및 자원의 규모 때문에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분관으로써 혹은 정보 문화의 서비스 포인트로써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보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오락 및 취미 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제공한다.
- 홍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의 수집과 정보 제공을 통하여 도서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작은도서관은 여건에 따라 지역 공공도서관의 담당사서를 통하여 통합 관리하며, 자원봉사자 혹은 지역주민 등 작은도서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생적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환경을 지원한다.
- 각 지역주민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도서관 이용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29)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혁신우수사례-생활밀착형「작은도서관」조성 및 범국민운동 확산.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자료 (2006년9월27일)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작은도서관의 모델은 일차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써,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2. 작은도서관의 설립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대상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장소선정에 우선고려 요인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의 설립취지와 확대의 당위성 가운데 사회복지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밀집지역등이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한 장소로써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에는 속칭 달동네라 부르는 무허가 밀집지역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임대아파트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지역은 군(郡) 이하 지역가운데 이농 현상이 심각한 지역을 들 수 있다. 이때에는 밀집지역이기보다 산포지역이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한 선정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작은도서관을 공공시설내 설립하는 것은 다른 공공시설과의 업무효율을 증진시키는 장점과 작은도서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 및 공공재를 활용한다는 취지도 갖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시설의 유형을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30]

- 주민자치센터(예:동사무소 포함)
- 학교내 시설(예:학교도서관이 설립되지 않은 학교)
- 대단위 아파트단지
- 복지회관 내
-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
- 독립건물

이 가운데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3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그 역할을 명기하고 있

30) 국립중앙도서관. 전국문고 현황조사(2005.12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자료 :1-20

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으로써 작은도서관 혹은 작은도서관으로써 학교도서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제38조 (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즉, 위 조항과 같이 학교도서관은 모든 서비스 대상과 역할이 학교구성원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1차적 서비스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추구하는 이용자의 공공성이란 역할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역할로서 작은도서관의 업무수행보다, 학교도서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학교도서관내 문고형태로써 작은도서관 설립에 과거 종로도서관에서 문고설립에 적합한 곳으로 학교내의 학교도서관과 연계지역과 아파트 밀집지역을 비교한 결과, 여러 이유가운데 다음과 같은 학교내 설치에 따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아파트단지내 문고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31]

- 학교내 분관(문고)을 설치할 교실이 대부분 2-3층 구석진 곳으로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
- 지역주민이 학교출입을 꺼리고 거리감을 가지므로 자녀를 둔 학부모일지라도 관련된 부모이외에는 학교출입을 자제하는 점
- 주민들이 학교에 출입하는데 학교측의 제약이 많아 자유롭게 다니기가 부담을 느끼는 점

이와 같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학교별 혹은 학부모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농어산촌에 위치하는 분교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의 개관이 어려운 곳 등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이 학교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으로서 학부모나 지역자치단체에서도 선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산포지역에서 학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별도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하나의 기관이

31) 김현. 분관(문고)운영 설치에 대한 소고. 서울시도서관 연구회. 서울시도서관연구 4집. 109-121.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문화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지역은 분교내 학교도서관 혹은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구분하자 않고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 시설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예를 들면, 학교내 작은도서관의 출입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설치).

이외에도 종교시설과 병영, 교도소 등과 같은 곳은 특수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추구하는 지역주민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기관에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이용자가 우선으로 하는 특정이용자가 지정됨으로써 이번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안한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면, 작은도서관의 설립 위치는 주민자치센터와 아파트와 같은 서민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지역은 건물특성상 주민 밀집지역으로써 설립에 따른 방문자 확보 및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단, 이 연구에서 제시한 아파트단지일 경우에 고급아파트부터 임대아파트까지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존재하여, 실제 도서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에 대해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현재 제안되는 작은도서관의 설립 장소는 기존의 임대아파트를 비롯하여 신축아파트로 지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 따라 모든 재건축 아파트는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축하도록 법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대단지 아파트는 일정비율 서민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신규아파트 단지 등이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한 최적의 위치가운데 하나라고 판단한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위한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써 지원 신청대상지에 대한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실사, 3차 종합검토를 통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조성의지가 강한 지역을 우선함으로써 공간적 의미보다 물리적 위치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32] 이러한 계획에 따른 주요 선정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가) 기존 공립문고 또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곳
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다)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곳
라) 주변에 대체할 만한 문화시설이 없는 곳

32)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팀. "작은도서관 종합계획". 국립중앙도서관. 2006

마) 공공도서관의 분관화를 할 수 있는 곳
바)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가능한 곳
사) 지역주민들의 이용 욕구 및 자원봉사 활동 등 참여의지가 강한 곳

따라서 신규로 작은도서관 개설을 위한 공간은 주민 밀집지역의 아파트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존시설을 활용할 때에는 기본적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리모델링 대상은 공립문고, 주민자치센터, 폐파출소 및 폐동사무소 등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최소한의 구조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공공건물과 도서관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작은도서관의 구조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도서관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물리적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작은도서관의 입지적 조건이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간을 확보 혹은 지정되어 이를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의 장점가운데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작은도서관공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 및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적 완비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인테리어, 가구, 도서, 컴퓨터 시스템 등 1억원 내외 규모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단독건물 건립의 경우는 별도의 독립된 건물 형태로 건립하는 곳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공공 유휴시설이 없는 곳)에 건립하고 지자체가 부지 제공(건축에 문제가 없으며 재개발등으로 철거 가능성이 없는 장소), 건립 후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규모는 건축 및 조성비용 약 5억원 내외, 부지면적 약 50평 내외의 공간을 갖추어야 적정규모라 할 수 있다. 부분 지원의 경우 인테리어, 가구, 도서, 컴퓨터 시스템 중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운영 중인 문고(공립문고 중심)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일부지원만으로도 활성화가 가능한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리모델링을 통하여 50여평 내외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지역내 공공도서관의 평균 10만권이상의 장서를 작은도서관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은도서관의 규모적 한계를 극복하여 이용고객 편의적 서비스를 향상하고 공공도서관 전문사서의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및 도서선정 지도 등 공공재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33].

33)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혁신우수사례-생활밀착형「작은도서관」조성 및 범국민운동 확산. 국립중

3. 작은도서관의 운영

모든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비롯하여 예산 및 공간, 법률적 근거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요소를 일정 수준이상 유지해야 한다.

3.1 인력

작은도서관의 인력은 고정인력과 가변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인력이라 함은 전통적인 도서관업무를 수행 및 지원하는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서 상근직을 의미한다. 가변인력이란 도서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와 같이 정기적인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인력을 의미한다.

한편 공공도서관의 분관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수준(A형: 소분관과 확장적 소분관)과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고형 배본소(B형: 자료 대출분관)로 구분할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최소 1명이상의 상근직 사서와 함께 적정인원 이상의 자원봉사자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이 시설의 자원봉사자는 사서자격증 혹은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도서관 업무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1명이상의 상근직 사서의 배치를 권장하거나, 실제적으로 국내 작은도서관 현황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자 중 사서자격증이나 사서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을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자(혹은 관리자)로 해야 한다.[34]

이상과 같이 사서 1명이라는 최소인원을 산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업무는 크게 대출을 비롯하여 수서, 정리, 정기간행물, 정보서비스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작은도서관은 이 업무영역 가운데 대출업무와 정보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바, 5개 영역 중 2개 영역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의 최소 요구 인원을 3명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두 사항을 고려하면, 작은도서관이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2/5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명의 상근직 사서가 근무할 때,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앙도서관 내부자료 (2006년9월27일)

34) 여기에서 A형과 B형의 구분은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의 3단계 구분(소분관, 확장형 소분관, 자료대출분관)을 2단계로 구분한 것으로써 앞의 두 유형은 작은도서관을 의미하고, 자료대출분관은 이 장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마을문고를 의미한다.

3.2 예산

작은도서관의 예산은 이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비롯하여 운영비, 장서구입비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작은도서관 예산은 2004년 복권기금의 지원액 5,000만원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제외된 금액이다. 또한 부천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공립문고)의 경우에도 설치비와 운영비만을 지원하고, 운영비에 장서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사업의 예산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정현태는 작은도서관 모델을 제안하며,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2006년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로 월 117만원 이상을 제안하고 있었다.[35]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으로써 마을문고는 자원봉사체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순천시립도서관의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월 30~50만원의 교통비 명목으로 최소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는 필수인건비로 계상하기보다,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다른 지역의 작은도서관 혹은 문고운영자에게도 이와 같은 사례비명목의 보조금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소분관 및 확장형 소분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작은도서관과 자료대출분관으로써 도서관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작은도서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료구입비의 경우 작은도서관의 연간증가책수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명시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공공도서관의 경우 연증가 300권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고의 경우도 소장권수를 기준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년 증가분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문고와 공공도서관의 사이에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주대상자를 어린아이와 문학자료로 한정하였을 경우에 연간 구매대상이 되는 추천도서수로 이를 역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조사하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협회에 납본된 도서를 근거로 집계한 2005년 출판통계 현황'에 따르면 2005년 책 한 권당 평균 가격은 11,257원이다. 아동도서(만화 제외)의 경우는 8,983원이며, 7146종이 출판되었다.[36] 즉 2005년에 아동용 도서로 출판된 책을 작은도서관에서 모두 구입할 경우에 약 6천 4백만원이 필요하다. 이 금액도 인기도서를 고려하지 않고, 1권으로 제한된 경우이다. 또한 문학류만을 대상으로 환산하면, 8,261종수 출판과 9,575원이라는 평균가격으로 2005년에 출판된

35)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국립중앙도서관. 2006.
36) http://www.kpa21.or.kr/bbs/board.php?bo_table=d_total&wr_id=46

문학도서만을 전부 구입할 경우에 약 7천 9백만원이 필요하다. 즉 아동도서와 문학류 도서를 함께 구입할 경우에 약 1억 4천 3백만원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에 중간(重刊)된 장서와 기증된 장서를 함께 고려하여도 작은도서관에서 출판된 모든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상당액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2가지 방법을 대안으로 할 수 있다. 하나는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하여 이를 작은도서관에 순회문고 형식으로 장기대출을 하는 경우와 우수도서로 추천된 자료만을 선택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뒤의 특성화 전략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에서 추천한 2006년 우수도서로써 아동·청소년, 시, 수필, 소설 등 문학자료가운데 추천된 우수도서는 280권이었다. 이를 2005년 11,257원으로 환산하면, 약 320만원내외의 비용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인쇄형 자료구입을 위한 최소 예산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서 전자형 자료 혹은 동영상 자료의 구입과 서비스를 고려할 경우에 그 이상의 예산(300만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소분관과 확장적 소분관의 운영체제는 앞의 논의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공공도서관분관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료 대출분관의 경우에는 마을문고의 별칭으로써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체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최소기준도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규모를 기준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 예산은 연간 운영 예산규모이며, 최초 개설비와는 차이가 있다.[37]

<표 16> 예산 규모의 최소기준

구 분	최소 요건	비 고
운영비	각종 공과금 및 영선 유지비	
	〃 + 자원봉사자 사례비	자료대출분관(B형)
자료구입비	300만원이상	인구2만, 도서관법기준의 2/5수준, 매년 증감
인건비	지방 사서직 9급 상당 인건비	정부파견일 경우 계상하지 않음
	(지방 사서직 9급 인건비)	자료대출분관(B형)

운영비는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기준을 도출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자료구입비는 2006년도 기준으로 최소 300만원 이상이 되며, 그 액수는 전년도 우수도서 추천 종수와 단행본의 평균단가

37) 순천시의 경우 자료구입비는 연간 300~500만원 수준으로 지원
부천시의 경우 자료구입비는 연간 1,000만원 수준으로 지원

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여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인건비는 사서를 배치할 경우에 그 보수는 인건비로써 지방 사서직 9급 상당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단, 순회사서나 공공도서관 협력사서의 경우에 이를 계상하지 않는다.

3.3 운영조직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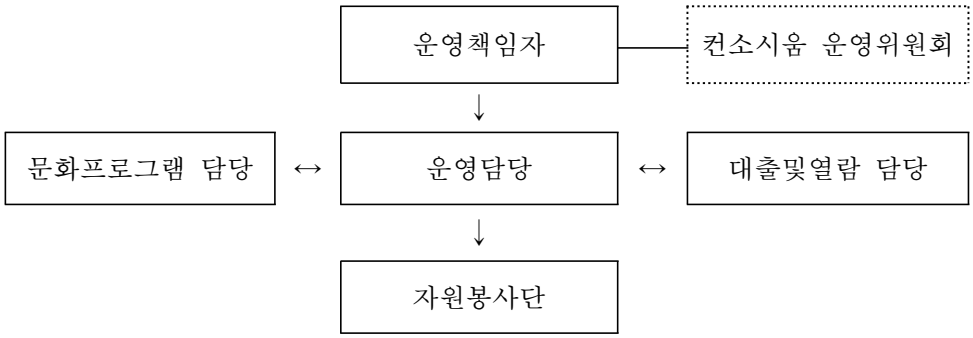
작은도서관의 조직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경영전략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직원에 관련된 정책 및 절차는 장기적으로 정당한 인사관리를 따라야 하며, 채용방법은 직원의 적성과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조직의 설치 단위와 구성은 A형 작은도서관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작은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국가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역 공공도서관과 해당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연결하여 하나의 컨소시움이 다른 지역의 컨소시움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구성하도록 한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체계는 지역 편성 단위별로 도서관 간 상호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그 규정에 따라 각 지역의 거점 공공도서관을 정점으로 하는 작은도서관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단위 도서관은 전국 작은도서관망에 연계하고, 지역사회 내의 다른 도서관 및 공공 기관과 단체와 연계하여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작은도서관은 컨소시움의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작은도서관의 정책 계획, 운영 및 관리 전반과 자료 선정 등을 심의, 자문을 받아 발전모델을 확립할 수 있다. 인력은 작은도서관의 규모와 업무량을 감안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적정 인원의 직제로 편성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의 규모나 기능, 장서수, 이용자수, 건물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을 결정하고, A형 작은도서관은 운영책임자로서 1~2인 내외의 상근직으로서 전문직 사서를 배치하도록 하며, B형은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자 1인 이상이 운영을 맡으며,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나 혹은 공공도서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과 같이 전문적 소양을 갖춘 자를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작은도서관 담당 인력을 봉사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관내 외 연수, 장/단기 교육이나 학회, 협의회, 워크샵, 세미나, 컴퓨터 통신교육 등에 참여할 기회를 연간 수회 이상 갖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로 순천시립도서관의 경우,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지도 프로그램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다음 그림은 소분관(A형)으로써 작은도서관에서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조직과 소요인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작은도서관을 책임지는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전체의 운영담당을 관리하며, 자원봉사단을 소집·관리한다. 또한 다른 자원봉사자인 프로그램 담당과의 연결고리로써 작은도서관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A형의 경우, 운영 책임자로써 사서자격증이나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B형의 경우, 가능한 사서자격증이나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 문화프로그램담당은 사서직원이나 혹은 자원봉사자가운데 유급지원인력 1명을 활용하며, 문화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규모에 따라 담당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
- 대출 및 열람담당은 자원봉사자 가운데 2명 이상을 복수의 팀으로 배정한다. 이는 대출 및 열람자체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써 업무의 집중도가 타 업무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3.4 기본 시설 장비

기본 시설로 내부공간은 작은도서관의 내부공간은 자료 공간, 이용자 공간, 직원공간, 공유 공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모든 공간의 동선계획은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편의성 융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한다. A형의 작은도서관은 전체 공간 50평 내외의 규모로 설계된 이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기존 건물의 리

모델링 및 독립 건물로 건립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기본 방향 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전체가 개가식으로 개방된 공간으로 구성된다. 별도의 칸막이는 설치하지 않지만 각 배치를 통해 서고(16평)와 이용자 공간(15평), 그리고 관리자 공간(7평)이 구분되어 있으며, 자료 검색과 인터넷 이용을 위한 전자서비스 공간 및 사랑방(12평)이 마련되어 있다. 기타 신문이나 잡지서가, 별도의 브라우징 코너를 벽면에 마련할 수 있다. 기본 서가는 복식 2연 7단서가(1.8x2.1x0.46)를 8개 이상 배치하며, 열람용 책상은 4개 이상으로, 책상에 포함된 의자는 10개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인터넷 전용 책상 2개와 의자 2개 이상을 배치한다. 기타 관리자 공간은 이용자 봉사를 위한 안내 데스크 및 작업 공간을 포함한 것으로 관리용 책상 2개와 의자 2개를 배치한다. 이 밖에 배색 등 인테리어 부분과, 조명 및 냉난방 등 시설 기본 방향 등은 일반적인 도서관 시설에 준한다.

B형 작은도서관은 전체공간을 10평~30평 내외의 규모로, 가능한 넓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공간에서 근접한 독립 건물로 건립되는 것을 권장한지만, 부득이 독립건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가옥의 리모델링을 통해 확보된 공간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형 작은도서관 또한 기본 방향 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전체를 개방된 공간으로 구성한다. 이 때 별도의 칸막이는 설치하지 않고, 서고(10평)와 이용자 공간, 관리자 공간을 동일한 공간에 설치한다. 기타 신문이나 잡지서가, 별도의 브라우징 코너를 벽면에 마련할 수 있다. 기본 서가는 복식 2연 7단서가(1.8x2.1x0.46)를 배치하되, 벽면 이용 시에는 단식 서가를 추가할 수 있게 한다. 열람용 책상은 4개를 기본으로 하되 이 책상에 포함된 의자는 6개 이상의 열람석을 확보한다.

작은도서관의 공간은 A형 거점 작은도서관을 기본 방향으로 할 때, 50평 규모의 작은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공간 활용을 권장한다.

작은도서관의 기본시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출, 반납에 필요한 시설 : 자동대출반납 관리기
- 열람, 학습, 연구에 필요한 시설: 탁자와 의자를 갖춘 독서 공간
- 안내 및 정보봉사에 필요한 시설 : 신간 자료와 도서관 프로그램의 전시 공간
- 자료 보관에 필요한 시설
- 멀티미디어 자료 이용을 위한 시설: 자료의 이용을 위한 재생에 필요한 장비, 프린터, CD R/W, 복사기, 음반재생기, 테이프 녹음기, DVD 재생기, VTR 등.
- 교육 및 정보 검색용 컴퓨터

<표 17> 작은도서관 자료 공간 권장 내용(A형)

구 분	면 적	주 요 비 품
서 고	16평	보유장서 기본 방향 : 3,000권 이상을 수용 복식 2연 7단서가(1.8*2.1*0.46) : 8개
열람실	15평	열람용 : 책상 8개, 의자 32개
관리 데스크	7평	관리용 : 책상, 의자 2개 이상 자동대출반납 관리기
정보검색 및 주민토의방	12평	인터넷 전용 책상, 의자 5개 이상 TV, 휴식용 의자
총 평수	50.0평	

3.5 자료

작은도서관은 봉사대상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정보 자료를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협력망 및 자원 공유를 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기본 자료는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타도서관에서 오래된 자료가운데 폐기 대상 자료를 확보하여 단순히 종수를 늘리는 형태의 수서를 극히 경계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출발 사상이 정보격차의 해소와 공유와 같은 복지적 관점이기 때문에 양질의 최신자료 확보를 하지 않는 것은 그 목적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구성자료의 범위에는 임무 수행, 취미와 여가 선용, 교육과 자아개발, 지식함양 등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주제의 최신 정보 자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밀착형 시설로써 지역 사회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기타 자료는 협력 또는 분담수서와 자료공유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처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제 영역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관리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장서확보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인쇄 자료를 비롯하여 시청각자료, 마이크로자료, 디지털 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인터넷 정보기술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자원에 대한 접근 전략도 다양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종합적인 장서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자료수집에서 이관까지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자료이관은 지역 공공도서관과 협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은 현실적으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는 장서규모를 감안할 때 역동적인 자료이관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입장에서 지역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대신하여 보존서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수년내에 국내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심각한 공간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최근의 출판동향, 정보요구와 이용행태, 소장자료의 형태서지적 및 내용적 가치, 장서관리 계획과의 적합성 등을 근거로 전체 장서 또는 주제별 장서를 평가하되, 정해진 연간 주기로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자료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자료를 과감하게 지역공공도서관이나 혹은 폐기를 통해 항상 적절한 규모의 장서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6 이용자 봉사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봉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정보서비스 가운데 연구 및 조사형 질문에 대해 일반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수준이 답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봉사는 이용자 교육과 안내서비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대내외 환경의 변화추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자료의 제공과 봉사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봉사대상자에게 도서관의 운영시스템과 봉사내용을 상세하게 홍보하여 존재가치를 인식시키고 방문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이용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대출, 열람 봉사의 자료 이용은 전면개가제를 원칙으로 한다.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도서관의 규모와 실정에 맞게 조절하되, 이용자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편리한 시간에 개방하도록 한다. 이용자의 요구가 발생하는 모든 순간에 이용이 가능해야한다는 기본원칙에 기반을 두고 일과시간표에 따라 평일은 19:00~21:00시, 주말과 공휴일은 09:00~21:00시로 연중무휴, 종일개방을 권장하나 이는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지역주민의 이용행태에 따라 가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2인의 자원봉사자만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 14시간 내외를 개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방시간은 작은도서관 자원과 지역주민의 여건에 따라 조정되어 최대한 활용 가능하게 유동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라인 정보접근 및 이용시설을 갖추어 다양한 정보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또한 개관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방식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이용자의 참고질문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여, 향후 봉사개선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이 새롭게 제공하는 봉사활동은 인터넷 게시판, 홍보게시판, 지역신문,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작은도서관의 기본적 시설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작은도서관 A형	작은도서관 B형
인 력		-상근직원(사서직) 1명 이상 -자원봉사자	상근직원 1명 이상 권장
시 설		(인구 5천-2만) -연면적 30평-50내외 -열람석 10석 이상 -인터넷용 PC2대 이상	-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 료		-단행본 3,000권, 정기간행물 10종 이상 -연간 자료구입비 300만원 이상	장서 1,000권 이상
기능	자료 선택	○	△
	자료 열람・대출	○	○
	참고・정보봉사	△	×
	교육・문화프로그램	○	×

특히 수행기능에서 작은도서관 A형은 자료 선택, 열람 및 대출, 최소한의 참고봉사와 문화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표의 세모표시(△)는 완전한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보고서 6장을 참조한다.[38)]

38) 본 보고서 p.111. <표 47> 시설 및 운영규모에 따른 기능적 차이

4. 작은도서관의 특성화

작은도서관의 특성화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지역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서비스와 시설, 자원을 바탕으로 이를 운영하는 특화전략을 의미한다.

4.1 특성화 전략

작은도서관의 특성화는 일반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전략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일치하나, 실제 특화결과는 해당 작은도서관이 비치한 장서에 대한 주제 및 형태적 특화를 의미한다. 작은도서관 장서구성에 있어 전문적인 수집이라 함은 작은도서관의 대상에 따라 소장 장서와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특징적인 서비스의 유형과 시행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특성화를 위한 전략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구분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지역별 특성
- 주제별 특성
- 계층별 특성
- 혼합형 특성

즉, 작은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주제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다. 끝으로 각 특성이 혼합된 형태로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특정 계층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작은도서관 특성화 전략으로써 혼합된 형태의 작은도서관 특성화 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다.

4.1.1 지역별 특성화 전략

작은도서관은 80년대 말 관(官)주도의 '문고' 활동이 부진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인 참여운동으로 문고를 설립하면

서 문고라는 명칭 대신 ‘작은도서관’ 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후 ‘92년 종로도서관을 시초로 관에서도 ‘작은도서관’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작은도서관은 자연발생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당 지역주민과 예전의 문고에 그 발전의 뿌리를 두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계층의 주민을 고려하여 설립된 매크로 서비스(macro-service)기관이라면, 작은도서관은 동네 혹은 부락단위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립된 마이크로 서비스(micro-service)모임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작은도서관은 행정단위로 읍면동 혹은 그 이하의 규모에서 운영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농촌과 도시 혹은 어촌과 산악지대로 프로그램 특화서비스를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동일 농촌지역 내에서도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에 접근이 용이한 곳과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4.1.2 주제별 특성화 전략

작은도서관에서 주제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도서관의 특성화 전략을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주제별 특성화 전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 지역에 거주하는 특정 기부자가 자신의 소장품과 소장자료를 작은도서관에 기증한 등과 같은 계기를 기점으로 주제별 특성화가 가능하다. 즉, 주제별 특성화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장서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이 분야에 대한 주제전문사서를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일련의 운영적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주제별 특성화 전략은 지역주민의 협조와 요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1.3 계층별 특성화 전략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도서관은 정보복지적 혜택을 제공하는 창구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확대 정책은 문화소외지역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지식정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정보문화복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을 전국적으로 설립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를 달성하고, 특히 저소득층 및 문화소외지역에 마을단위 작은도서관의 조성・제공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

가내 지역주민의 문화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계층의 개념은 어린이와 노인과 같은 연령별 계층을 비롯하여, 경제적 중산층과 빈곤층과 같은 사회적 계층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을 비롯한 운영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4.1.4 혼합형 특성화 모델

작은도서관 이용자를 설정하는 것은 서비스를 비롯한 운영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정책과 실천적 방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국내 작은도서관은 위의 세가지 방법으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복합적인 서비스대상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서울지역(지역별)의 노인(계층별)을 주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혼합형 특성화 모델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

4.2 특성화 모델

작은도서관 지원의 출발점은 수적으로 현저히 부족한 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작은 규모의 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문고를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 놓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작은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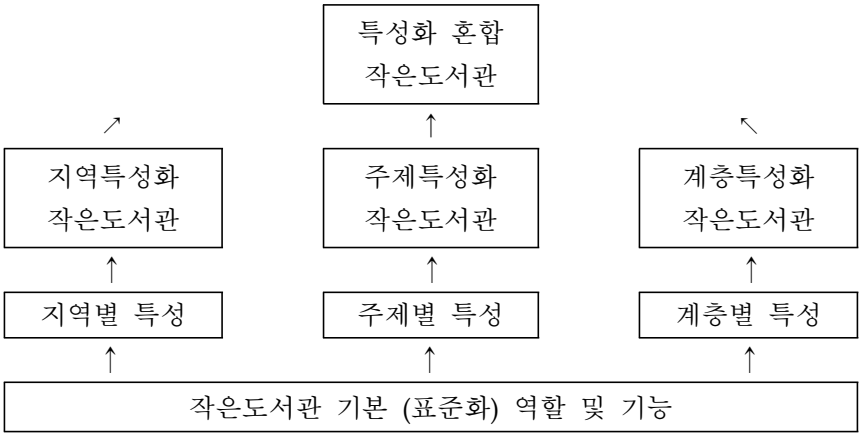
정정식은 작은도서관 설립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자치단체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자세 미흡,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결여, 공공도서관에서의 지도, 지원하고자 하는 자세 미흡, 도서관이원화에서 오는 문제 등과 총체적인 제약에 따라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 하고 있다[39]. 또한 우리나라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하고, 작은도서관 설립에 대한 사업전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40]

한편, 작은도서관은 2004년 이전부터 공공도서관을 비롯하여 단위 개별문고, 도서관인, 시민사회운동가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표준화된 운영과 서비스 전략없이, 해당 작은도서관이 설립되어

39) 정정식.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울시도서관연구회지. 12집. 2005 : 184.
40) 봉사분과위원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 서울시도서관연구회지. 10집. 2005 : 26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맞추어진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갖는 장점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원·개발되어야 하는 특성화 정책이다. 이에 비해 일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의지와 자원을 가졌으나,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서비스 덕목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명시된 일련의 표준화된 절차와 방향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혹은 지역 대표 공공도서관의 지원과 지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다른 측면으로는 작은도서관 형태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장비나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작은도서관마다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역적 혹은 기능적 역할분담에 따라 정보화 지원내용이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지위와 기능적 역할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수행해야 할 디지털서비스의 내용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자칫 획일화된 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정보서비스의 형식과 제공자원의 내용이 제공되면, 정보화의 의미는 반감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주장을 절충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이 기본적 기능과 역할을 완수하고, 지역적 혹은 계층적 외부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시 확인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화 전략의 수립 절차를 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2> 지역적 혹은 계층적 외부 특성에 따른 특성화 전략

즉, 작은도서관의 경우, 사안별 특성화를 추진하여도 기본적인 작은도서관 기능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서비스 추진 방향은 최소 문화적 시설 및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대적으로 특화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2.1 작은도서관 특성화 표준전략

작은도서관의 특성화를 위한 기본 전략은 특성화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및 인력을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심도 있는 특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4.2.1.1 시설

작은도서관의 시설을 파악 혹은 제안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앞의 장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독서진흥과 지역공동체 문화 운동의 수행, 문화 복지의 실현이라는 문화적 명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시설로써 10평 ~ 50평 내외의 공간에 서가를 비롯하여 열람석, 인터넷과 연결된 PC, 모임방 등이 필요하다. 특징적인 것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무실과 서가, 모임방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또한 시설에 대한 투자로써 리모델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작은도서관에 이의 집행과 설치를 일임하고 있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원래 목적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내용과 그 실적을 분석결과에 바탕으로 시설을 운용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에 대해 지역주민은 기본적으로 크게 독서교육과 방과 후 학습, 주민모임, 문화강좌를 수행하는 장소로써 인지하고 있다.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면, 아동을 위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과 성인을 위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은 가변형 벽체를 이용하여 공간을 구획하여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최소한의 열린 공간에서 서가나 책상 등과 같은 시설물을 이용하여 그 공간을 기능 구역(function zone)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공간을 구분하여도,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 공간: 최소한 두개 이상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을 추천한다. 하나는 독서열람을 비롯한 전통적인 도서관 열람기능이 수행되는 공간이며, 하나는 독서 교육을 비롯한 일련의 문화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이다. 열람기능이 수행되는 공간에는 정기간행물이 함께 비치되는 형태가 이용자에게 바람직하며, 독서교육을 위한 자료와 일반 자료로 구별하여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독서교육을 위한 자료는 학령전후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교육과 운영은 부모의 문화적 동선에 가까운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어린이 도서를 열람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부모 혹은 보호자도 함께 참여하던지 혹은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소모임에 참여하여 수시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선이 확보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필수시설은 다음과 같다.

· 자료실(필수공간): 주민 친화형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서가 배열형 공간으로써, 정기간행물 자료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서가와 함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상과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 이 공간에는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사무공간도 함께 비치하여 자료 이용자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서비스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독서열람공간(필수공간): 일련의 어린이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독서토론을 비롯하여 자유롭게 자료를 열람하고, 소리 내어 읽는 공간으로써 모자 혹은 부모-자녀간 독서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능한 자료실과 인접하거나 열린 공간의 형태로 구조화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인터넷이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없을 경우에 이 공간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문화강좌공간(필수공간): 작은도서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써, 최소 20명이상이 강의식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공간에는 컴퓨터 관련 교과목이 강의될 수 있다면, 최소한 10대 이상의 개인용 컴퓨터를 비치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동시에 2개 이상의 문화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강좌공간은 가변형 벽체로써 수강생 규모에 따라 파티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터넷방(선택공간): 이 공간은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허락할 경우에 설치할 경우 매우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공간은 문화강좌 프로그램가운데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이론 및 실습 위주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 방과 후 학습자료실(선택공간): 이 공간은 방과 후 학생들에게 학교 교과목 관련 숙제나 특별 수업을 위한 공간으로써 일반 사설 독서실과 같이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원봉사자 혹은 시설운영자에게 학습지도를 받는 교실 수업과 관련한 연장된 학습공간이다.

· 주민토론방(선택공간): 이 공간은 작은도서관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하여, 작은도서관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 모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등과 같은 일련의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이는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직원중심의 공간이기 때문에 부차적인 시설일 수 있으나,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간으로써 최소한의 토의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련의 지역커뮤니티를 주관하는 사무실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도식화한 예이다.

<그림 12>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4.2.1.2 문화 프로그램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는 문화 프로그램[41]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것이며, 교양을 미술을 비롯한 스포츠, 건강 등과 같이 주민들이 판단하는 실질적인 문화강좌이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서 서울지역 주민은 공공도서관을 일련의 평생 교육과 문화교육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조사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것이나,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

41) 이경민.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및 독서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도서관정보학회지 34(4), 2005 : 127~151

관이나 범주로 볼 경우에, 최소한의 문화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하는 작은도서관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 및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작은도서관의 규모에서 이와 같이 모든 유형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문화프로그램 중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참고로 미술가운데 서예에 대한 주민요구는 서울시 전역의 주민들이 요구하였으나 양천구와 용산구에서는 이에 대한 요구와 주민참여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화는 다른 모든 구에서는 요구와 주민참여도가 없었으나, 송파구와 양천구에서는 상당히 높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에 따라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이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또한 마포구에서는 전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지역주민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노원구의 경우에는 오직 영화감상 프로그램만이 개설되어 주민참여도의 편향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라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공공도서관이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강좌의 개설과목수와 참여도가 크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별로 주민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프로그램 유형가운데 미술관련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외국어, 독서강좌에 대한 주민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교양과 스포츠, 음악 관련 주민 참여도는 특정 지역 내에서 집중되어 백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미술은 서예와 한국화 등 전통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기본 프로그램은 독서교육과 서예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어의 경우, 강사 초빙을 비롯하여 운영에 따른 예산 확보, 자원봉사자의 확보 등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실제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가운데 어린이를 위한 독서교육은 작은도서관진흥을 주도하는 국가기관과 실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말 작은도서관에도 주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개설·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소외 계층의 문화복지 측면에서 노인층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써 서예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작은도서관의 필수 운영 프로그램은 성인을 위한 미술관련 강좌(서예강좌 포함)와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독서관련 프로그램의 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운영체제는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이나 지역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바람직하다.

4.2.1.3 운영인력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도서관운영과 독서교육이라는 측면에서의 전문사서와 주민자치운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비상근 봉사인력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수 인력이나 이에 대한 강제규정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전문사서의 경우, 이를 고용함에 따른 최소한의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자생적인 작은도서관의 경우에 사서채용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전문사서 없이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전문화된 서비스보다 일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독서교육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책임자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많은 작은도서관에서는 전문사서를 배치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로는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집행에 따른 필수조건과 그에 따른 예산 집행규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부천의 경우,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도록 하고, 보수는 계약직 10호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규정화하고 있다. 또한 유급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월 50만원(2-3명)을 보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대략 33,000명 규모의 부천시 상동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시하는 25,000명이하의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자수 규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감안해도 작은도서관에서 요구하는 표준화된 기능과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상근직 사서1인과 유급지원인력 2명이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대민채널로 정의하여, 일부 공공도서관 분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최소한의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순회사서를 일정기간 혹은 매일 일정시간에 작은도서관에 파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이러한 연결방법은 우리나라 440여개 공공도서관들이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정보서비스를 협력하여 제공하는 협력망이 갖추어지면 작은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정보봉사기능도 일부 수행할 수 있는 지역도서관의 분관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LSTA (Library Services & Technology Act)의 집행과정의 지원모델을 원용할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국립중앙도서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사업지침에 근거해 지역 지역대표도서관(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에 자원을 배분할 뿐이고, 도서관사업의 투자와 집행은 지역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역대표도서관(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주도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즉, 공공도서관은 해당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독자적인 정보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지위와 예산규모를 객관화하고 정량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발적인 자원봉사자에 의존적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작은도서관은 지역 공공도서관에서의 지도와 협력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작은도서관은 지역 공공도서관의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이 전문 사서나 상근직 사서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의 교육 프로그램은 도서관 관리 뿐 만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에 대한 홍보 및 동기유여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작은도서관 및 문고의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홍보용 보도자료 작성법과 지방언론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협력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담당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2.2 주제별 특성화 작은도서관 개발 전략

뉴욕 공공도서관은 본관과 지역별 5개의 대표도서관을 선정하고, 이 대표도서관 밑에 81개의 분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때 5개의 대표도서관은 주제별 도서관으로 운영되며, 미술 및 음악관련 전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에서 제안하는 주제별 특성화 전략은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은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 수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주제별 특성화 전략은 크게 기증자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특정 주제에 대한 무료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4.2.2.1 특정주제 기증자료에 의한 특성화

작은도서관의 규모에서 주제별 특성화 자료를 확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나, 특정자료를 외부기증자에 의해 기증받을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주제별로 특화된 작은도서관으로 운용할 수 있다. 주제별로 특성화된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운영주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특정 주제를 오래전부터 수집 혹은 발굴하는 것은 수집가의 개인적 의지와 역량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제별로 특성화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예를 들면, 국립중앙도서관, 지역 공공도서관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지원기관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지원책과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산적인 것보다 행정 혹은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소장 자료에 대한 보존이나 활용에 관한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표나 화폐 관련 작은도서관이 설립될 경우에 해당 자원에 대한 주제별 특성화는 일차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지만, 이차적으로는 해당 자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는 기증자가 그 서비스 대상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료의 손상과 망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체계적인 보존(처리)차원에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때 지원은 공간 혹은 인력 등과 같은 비금전적인 요소도 포함한다. 또한 자료의 특성상 활용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고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자원의 디지털화나 사진자료의 확보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표준화된 메타데이터의 부착과 해당 자원의 확보 등을 위해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4.2.2.2 특정주제 무료자원의 확보에 따른 특성화

작은도서관은 예산 및 인력면에서 상대적으로 일반 공공도서관에 비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고 특정주제로 특화된 작은도서관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료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망라적 수집을 통해 특화된 주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써, 영화관련 포스터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주제 전문 작은도서관으로 개발이다. 국내에서 개봉되는 대부분의 영화는 포스터나 혹은 유인물형태의 작은 소책자(팜프렛)를 발행하여 무료로 배포한다. 이러한 무료 자원을 체계적이며,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특화된 전문 작은도서관을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서(혹은 자원봉사자)가 수작업으로 영화관련 상영정보를 입수하여, 해당 영화제작사나 배포사에 연락을 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자료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의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자료에 대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가 편목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특수자료를 대상으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

는 것은 일반 책자형 자료를 대상으로 목록하는 것에 비해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단위에서 편목작업을 수행하기보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본관으로써 지역공공도서관 혹은 대표도서관이 해당 자료에 대해 편목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특정주제로 특화된 작은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나 인력지원이라는 실제적인 지원보다는 수집·확보된 자원에 대한 보존을 비롯하여 메타데이터의 부착과 같은 2차 가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은 주제 특성화 전략이 수립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유형을 예시한 것이다.

① 건강정보 작은도서관 : 건강에 대한 자료부터 데이터베이스 등 의료정보를 제공하거 나 정부나 지자제, 각종 단체가 발행하는 팸플릿이나 건강관련 강좌를 안내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간하는 건강관련 자료집을 수집하여 정보를 제공. 또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년층을 위한 특화된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작은도서관에서는 문화프로그램으로써 수지침과 같은 건강관련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공공도서관과의 지원 혹은 협력을 염두에 둘 수 있다.
② 비즈니스 작은도서관 : 취직이나 전직을 위한 이력서 작성법에서부터 면접전략 또는 창업을 위한 자료 및 정보제공하고,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를 수집, 제공. 이와 같은 유형의 작은도서관은 상대적으로 대학생이상의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전통적인 작은도서관이 초중등학생을 위한 것과 특화의 차이를 갖고 있는 곳이다.
③ 예술 작은도서관 : 음악회, 작품전시회 등등 기타의 포스터, 팜플렛 등과 같이 특정 문화 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해 발행된 무료 자료를 전략적으로 수집하여 특화한다.

4.2.3 지역별 특성화 작은도서관 개발 전략

농어촌 지역일수록 정보화시설투자가 낮고 주민의 정보수요 또한 부진하다. 국민의 균등한 정보권리를 보장하고 심화된 지역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낙후 지역에 대한 정보화 투자에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42]. 왜냐하면 정보화 수준이 낮은 지역일

42) 김영기. 도서관을 통한 정보격차해소방안. 『제40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수록 공공도서관에 의해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의 혜택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공공도서관 정보화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4.2.3.1 지역 문화복지 복합형 작은도서관

지역 문화복지 복합형 작은도서관은 선진 유럽국가에서 수행하는 농촌사회의 적정 인구를 유지하는 정책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으로써 크게 의료정보서비스와 교육서비스, 문화복지 서비스[43]로써 도서관서비스 등에 나타난 서비스의 복합체로써 역할이다. 예를 들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 및 복지 인프라가 완성되지 않은 농촌지역에 적정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으로 의료서비스와 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농어산촌 지역은 특성상 대부분 주민 산포지역이기 때문에 일정규모이상의 의료기관과 문화·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과 같이 문화 및 복지의 최소기능을 수행하면서 외부 자원과의 연결 접점으로써 확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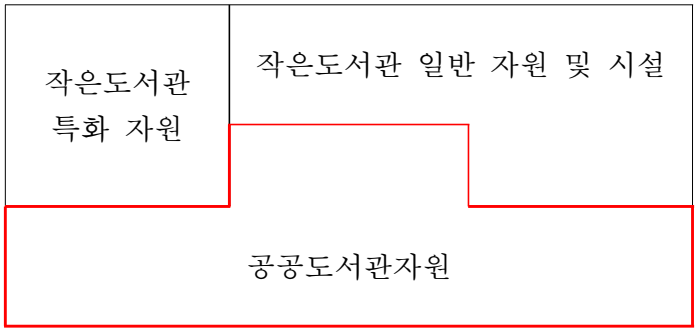
지역 문화복지 복합형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을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농어산촌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포인트이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 갖는 공공재적인 목적이 지역의 다른 공공재적 성격의 기관과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건지소에 작은도서관을 개설하면, 보건지소의 공간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보건지소는 IT인프라가 대부분 구축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그 소재정보를 특별히 홍보하지 않더라도 이의 기능을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개방일시가 보건지소의 근무일시와 거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각 기능의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농어산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예방을 위해 건강 및 의료관련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작은도서관에서 입수하며, 한편 치료를 위해 보건지소의 자원(인적, 물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자연스럽게 해당 작은도서관을 의료분야의 특화된 작은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도서관과 보건지소와의 협력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행정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시설의 공유라는 차원에서 보건지소의 관할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복지정책의 연장선으로써 작은도서관과의 연계 혹은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

2002: 379-400.

43) 농업기반공사. 농촌사회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5.

4.2.3.2 순회·복합형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와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는 여러 가지이다. 특히 이 가운데 정보서비스의 차이는 인력의 부족과 규모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문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수준의 차이도 작은도서관 자원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다. 이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모델로써 극복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이 순회·복합형 작은도서관이다. 즉, 특정 작은도서관에서 주제나 특화 전략, 일시를 지정하면 공공도서관의 자원을 이용하여 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도서관의 자원으로써 이동도서관을 순회·복합형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작은도서관에서 영화관련분야로 특화된 전략을 수행한다면, 공공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도서관 소장 혹은 신규 구입된 유관자원을 작은도서관이 지정하는 일시에 열람 및 면담채널을 확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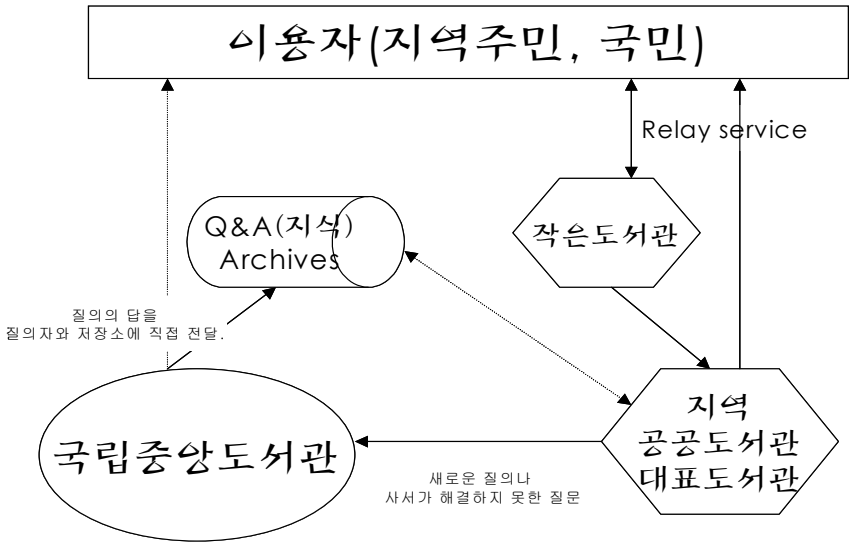


지역내 작은도서관에서 순회하여 공공도서관자원가운데 공유자원으로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사서와 공공도서관 소장 장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역 작은도서관이 포함한 지역 컨소시움내 협의를 통해 순회·복합도서관의 방문일시를 지정고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 공공도서관에세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 그림에서 'ㄱ' 부분은 표준화된 작은도서관 자원이라면 'I'자 부분은 해당 작은도서관만이 집중적으로 소장한 특화 자료이다. 볼록 부분은 공공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자원으로써 인적자원과 함께 작은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그 밖의 모든 자원이 포함될 수 있다.

4.2.3.3 국가 디지털 정보서비스 채널

국가 디지털 정보서비스 채널은 작은도서관을 통해 접수된 정보서비스에 대해 지역

공공도서관 혹은 지역대표도서관, 국가대표도서관과 연계된 명실상부한 국가 디지털 정보서비스 채널을 의미한다. 이는 작은도서관을 정보서비스 포인트로서 적극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전략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디지털 참고봉사(예: 사서에게 물어보기)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소외 이용자들에게는 별도의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 즉 이용자들은 작은도서관에 참고질의를 방문 혹은 전화로 요청하면, 작은도서관 관리자는 인터넷을 통해 유용한 답변을 상급도서관 주제전문사서를 통해 확보하여 질의자에게 전달하는 전략이다. 이는 정보소외계층도 정보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44]이다. 이 서비스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즉,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얻는 참고질의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 도서관이나 지역 대표도서관에 해당 질의를 연결하고(relay), 해당 질의에 대한 답을 지역도서관 혹은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수행한다. 이 때 해당 공공도서관이나 대표도서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질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이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질의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이때 제공된 답은 국가 지식아카이빙 센터에 등록됨으로써 향후 유사한 질문이 이용자에게 나왔을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채널도 확보한다.

44) 남영준, 이향숙.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ASK_a 서비스 모형 개발. 정보관리연구 37(1). 2006 : 57-81에서 아이디어를 재구성함.

제6장.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1. 비전과 목표

1) 시군구(市郡區)에서 읍면동(邑面洞)으로

전국 250여개 시군구 자치단체마다 2개관 수준에 머물러 있는 514개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민간의 풀뿌리 운동으로 자생하는 전국의 작은도서관과 연계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기초행정단위 읍면동 3,500여개 수준에 이르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체제로 전환하며, 특히 작은도서관운동의 시민 참여적 관심을 도서관문화 전반의 성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로 활용한다.

국민 문화생활의 기반시설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중앙도서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도서관서비스체제를, 10분 이내 도보거리의 생활근린 공중시설에서 만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중심의 공공도서관 문화로 전환하는 전기로 삼는다.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시설과 민간의 자생적 작은도서관들을 연계함으로써 선진국에 버금가는 문화기반시설로서 근린생활권 도서관네트워크를 조기에 실현한다.

2) 참여와 봉사의 공동체문화 거점으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지역거점이자 지역주민의 교류와 협력을 구현하는 동네사랑방으로서, 어린이에게는 책을 통해 미래와 꿈을 주는 정보 광장으로서 공동체 생활문화의 구심공간을 지향해 나간다.

작은도서관은 1)지역사회 정보센터, 2)어린이 독서교육시설, 3)여가선용 문화시설, 4)소외계층 문화 복지시설 등으로서 지역커뮤니티를 구현하는 복합목적을 추구한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회비와 후원금, 물품기부, 자원봉사 등의 참여와 헌신을 기초로 운영하며, 공공도서관은 이들의 자생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간접적인 지원체제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꾸려가는 자율적 봉사조직을 지향한다.

3)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적 혜택으로

2006년 복권 지원사업에서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문고형도서관을 말하며,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50평 내외의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작은도서관”으로 정의되었다. 작은도서관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 친화적 문화시설로서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적 측면을 우선하여 개발한다.

4) 지역특성과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정책 수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정책은 크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특성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도에 따라 민간주도형, 민관협력형, 자치단체주도형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상 문고의 규모에 따라 1)공공도서관의 거점서비스공간으로 활용되는 영세규모(10~20평형대)의 자립형 문고와 2)독자적 교육프로그램을 갖는 일정수준(30평 이상)의 작은도서관 등으로 구분하여, 각자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지원/협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신규 전문사서의 사회 활동 기회 확장

작은도서관은 전국 33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매년 2,500여 신규 사서 인력의 전문직 활동공간으로서, 전문직업인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취업기회로 제공되며, 국민들에게 보다 활력 넘치는 고품질의 도서관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 전략

2.1 도서관중장기발전방안과의 전략적 연계

2.1.1 2002년 도서관중장기발전방안과 연계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2011)’에 따라 2011년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인구 6만명당 관으로 800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50여 기초자치단체마다 1개의 중앙도서관과 2개의 분관도서관으로 구성되는 수준이다. 앞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은 중앙관 규모의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생활근린시설에 파고드는 복합시설로서의 지역

분관체제로 개발이 예상되므로, 중소규모 분관중심으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의 보급률은 점차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 통계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간 도서관수 성장추이를 분석한 결과 매년 약 5.4%의 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소규모 공립도서관 중심의 건립지원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도서관법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운영하며,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도서관 건립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의 도서관정책을 책임지도록 위임받고 있다. 국가 공공도서관서비스 체제가 분권화된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자치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관심에 따라서는 이전 보다 유리한 국면으로 그 보급이 가속화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다.

<표 43>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년차별 개발계획(안)

연차계획	건립목표치	연간 증감
1차 계획 (2006-2011)	-공공도서관 800관 -작은도서관 1,000관	-공공도서관 연 50관씩 증가 -작은도서관 연 200관씩 증가
2차 계획 (2012-2016)	-공공도서관 1,200관 -작은도서관 2,000관	-공공도서관 연 80관씩 증가 -작은도서관 연 200관씩 증가
3차 계획 (2017-2021)	-공공도서관 1,700관 -작은도서관 1,800관	-공공도서관 연 100관씩 증가 -공공도서관증가에 따라 작은도서관 자연감소 -200관(10%)

2.1.2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전략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기능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직영분관과는 구별하여야 하며, 민간의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건립노력을 대체하는 것은 될 수 없다. 대신 새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의 공립분관은 민간의 작은도서관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선진국의 공공도서관 발전사례와 저명한 도서관학자 마이클 고어먼(M. Gorman) 조언에 따르면, 민간의 작은도서관 활동은 공공도서관의 성장과 함께 자생력을 잃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작은도서관 운동은 경제성장에 따른 높아진 문화욕구와 공공도서관인프라의 투자부족에서 비롯하는 한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보급과 함께 언젠가는 공공영역으로 편입되어 자치적 문고수요가 감소되어 나가는 것을 전제로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1차적 목표는 1)2008년까지 복권기금 조성기금으로 작은도서관 200관을 조성하고, 2)2009년부터는 국고지원 건립시범사업으로 연간 100관씩 300관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며, 3)기존 공사립문고에서 분관모델에 부합하는 200개의 작은도서관을 개발하고, 4)민간기업 및 자치단체가 조성하는 270여개 작은도서관 등 2011년까지 모두 1000여개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단기과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참조>5.2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계획의 보완).

장기적으로는 전국 3,500여개 기초행정단위 읍면동마다 1관씩 공공도서관을 보급한다는 국가적 문화정책의 목표를 가정하고,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연계하는 공공도서관서비스 인프라로서 결국 공공도서관 보급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상대적 역할로 설정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보급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분관 기능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보급과 관계없이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을 보급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민간협력으로 공공도서관의 지역분관으로 기능하는 작은도서관의 일부는 공립분관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공립분관설치로 대체되어 갈 것이고, 일부는 전문적인 주제도서관으로 민간시설의 생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2 공중시설 유휴공간의 사회적 활용

2.2.1 신규건립보다 공중시설 유휴공간의 임대활용

자치단체 산하 관련기관이나 공중시설 등은 대부분 지역주민 생활공간의 중심에 위치하여 사회적 접근성이 양호하고, 일부 시설에는 이를 이유로 지역주민의 독서교육과 여가선용의 공익적 목적을 두고 공사립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2006년 8월 조사한 결과, 시설유형이 파악된 1,516관의 문고 중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문고는 전체의 약4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44> 문고시설의 소재유형(단위:관)

구분	독립건물	아파트 내	종교시설 내	주민자치센터 내	복지회관 내	학교 내
계	62(4.1%)	201(13.3%)	352(23.2%)	360(23.7%)	104(6.9%)	4(0.3%)
구분	주택	상가건물	기타공공시설	마을회관	기타	계
계	13(0.9%)	158(10.5%)	57(3.8%)	98(6.5%)	107(7.0%)	1516(100.0%)

지역의 공중시설(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33조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시설로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지방문화원, 복지회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공중시설)에 설치된 공사립문고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해당 지역 시민조직에게 작은도서관 운영모델로 위탁 운영하도록 선정함으로써, 자발적인 봉사와 참여를 유인하고, 공공도서관은 이의 관리운영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협력활동으로 지역주민 조직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발적인 사립문고와 달리 공립문고의 대부분은 공간을 할애하는 수준에 그치고, 문고의 관리와 활용에 소극적인 곳이 많아, 형식적인 전시시설로서 사회적 관심과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일부 자발적인 시민조직에게 공립문고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토록 주선하고, 이의 운영과 관리는 자율적 시민조직이 꾸려가도록 하는 방식의 민관파트너쉽 구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2.2 문화 복지 수요가 높은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우선으로

2006년 복권기금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고형도서관을 말하며,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50평 내외의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작은도서관”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념적으로 저소득층밀집지역에 소재하는 문화시설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적 측면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3 공공 디지털자원에 대한 접근시설로의 개발

2.3.1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디지털 접근인프라로서 개발할 필요

3,500개 읍면동 행정단위마다 1관의 공공도서관을 보급한다는 물리적 시설중심의 도서관 확장전략은 새로운 통신기술과 정보서비스기술을 반영하는 새로운 서비스방식의 모색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서비스는 공공도서관자료를 대출해주는 상호대차의 수준을 넘어, 공공도서관이 구독하는 전자책과 전자저널을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지역 내 대학 및 전문도서관 사서들과 연계한 참고 정보서비스

망을 구축 제공하고, 저작권을 해결한 음악 및 영상자료를 스트리밍 서비스한다거나, 학교도서관 사서들이 주축이 되어 웹을 통한 방과 후 과제지도를 서비스하며, 공공도서관이 구축한 주제게이트웨이 및 포털서비스의 공유자원과 국립중앙도서관 혹은 국회도서관 등이 구축한 공공DB에 대한 접근서비스 등으로 기능면에서의 접근인프라로서 역할지우기 위한 정보기술의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3.2 지역문고네트워크에서 광역 도서관서비스망으로 연계

지역자원의 공유와 주민이용의 편의를 위해 구축되는 공공도서관 지역협력망은 1차로 공공도서관 중심의 지역 내 문고 및 작은도서관을 연계하는 지역도서관 서비스망을 우선하고, 2차로 지역대표도서관이 광역 지자체내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연계하는 광역 도서관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주도로 전국적인 도서관서비스 협력망으로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공공정보자원의 사회경제적 활용을 증진하는 디지털 접근기능도 부가되어야 한다.

2.4 주민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의 유연화

2.4.1 주민구성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

작은도서관 및 문고의 역할은 소재 지역의 인구구성과 산업기반, 시민의식 등의 특성 및 변화에 따라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소득수준과 연령구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많은 차이가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특성화전략이 설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형으로 구분되는 지역개발전략이 아니라, 소재지역 주민의 경제활동 현황과 인구구성 실태에 따라 차별화가 요망된다.

중산층 거주지역의 아파트단지에 소재한 작은도서관의 경우, 부녀회 혹은 주부들의 자원봉사조직을 활용하여, 여가활동과 관련한 강좌프로그램의 개발과 어린이 독서교육 프로그램 등의 문화기능이 중심이 된다면, 맞벌이 부부가 많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작은도서관의 경우, 인근 지역 대학생 및 시민 봉사조직을 활용하여 방과 후 어린이 학습지도와 독서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및 복지 기능이 중심

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젊은 층의 비중이 적은 농촌지역의 작은도서관은 노인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취미활동과 정보교육 등으로 복지적 기능을 중심으로 설정하는 등, 작은도서관의 운영전략은 철저히 소재지역의 주민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유연한 설정이 요망된다.

지방마다 특성화된 축제행사에 주제자료전시회나 백일장, 문학의 밤, 시문화전, 동시대회 등으로 적극 참여하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논술대회, 정보탐색대회, 영어백일장, 향토문예선발대회, 향토자료기획전, 도서관자원봉사자의 밤, 지역음악축제, 향토연극제, 책바꿔보기 등 지역주민의 교제와 화합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문화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2.4.2 사회의 고령화를 대비한 서비스 초점의 전환

현재까지의 작은도서관 및 문고서비스 중심이 어린이와 주부였다면, 이제부터 사회의 고령화와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한 취학아동의 급감 현상은 어린이 중심에서 중장년 혹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서비스의 개발에도 적지 않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기능은 어린이 중심에서 노인중심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참작한 유연한 운영전략의 설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작은도서관’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3.1 작은도서관의 행정적 개념 설정

3.1.1 문고와 구별되는 작은도서관 개념

작은도서관은 관주도의 문고운동이 침체된 80년대 말 공공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 등이 주도하는 문고활동과 차별화하고 순순한 민간운동으로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00문고’ 라는 이름대신 ‘00작은도서관’ 이란 명칭을 이용하면서부터 널리 확산된 개념이다.

작은도서관이란 용어를 애용한 것은, 이전의 문고와는 달리 일정수준의 인력과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도서관으로서 부가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은 열람과 대출에 충실하였던 이전 문고와는 달리 독서회운영, 어린이독서지도, 독서캠프, 스토리텔링, 영화상영, 취미교실, 작품전시회, 지역문화축제 참여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부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매워 주는 보완적 역할로서 기대되었다.

3.1.2 이념형적 모델과 행정적 준거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민간주도의 다양한 문고 및 도서관활동을 장려하고 이들의 자발적 봉사와 헌신으로 형성된 작은도서관 운동을 사회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한국적 환경을 반영한 이념형적 모델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복권기금으로 지원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취지는 저소득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적 차원의 기반시설확충이라는 이념적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면적이나 인력, 자료 등의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는 공식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장의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 의해 조성된 일종의 도서관운동을 지칭하는 이념형적 명사로서, 그 범위와 내용에는 일정한 기준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정책 및 행정상의 혼란을 줄이고,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사 공공도서관(문고 및 사립도서관)들의 시설과 운영수준을 계몽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정수준의 운영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2 법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

3.2.1 개정 도서관법 문고 관련조항의 해석

지난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국민독서문화진흥의 목적으로 설정된 문고 관련 조항은 이번 도서관법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문고를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하여 공공도서관 관련규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면서, 문고관련 규정의 해석을 두고 다소의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도서관법 제2조 제4항에서는 문고를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시설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고 역시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그동안 사립문고 활동을 도서관이라 칭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사라지고, 작은도서관의 명칭이 자연스럽게 법적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해석에 따라서는 공공도서관의 범위가 10평 규모의 문고수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작게는 문고에서 크게는 공공도서관 분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편의적인 범주를 오가며 고유영역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였던 문고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지만, 개정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의 해당규정이 모두 문고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문고활동을 근거하는 관련조항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문고활동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때, 문고운영의 제반범위가 공공도서관과는 현저한 차이가 현존하는 실정에서, 공공도서관 관련조항이 모두 문고에 해당한다고 준거하여 해석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제한하는 제30조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33조 등을 문고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지역사회 자발적 운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고와 작은도서관의 활동에서 사서직을 관장으로 내세우는 조항은 실현이 불가능하고, 비영리 독서시설로 제한시켜 놓은 문고에게 사용료 징수를 허용하는 데 따르는 운영상의 혼란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문고설립을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한 과거 조항이 사라진 도서관법에서 문고의 설립과 운영은 사립 공공도서관과 같은 방식으로 시군구에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도서관활동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다만 문고의 폐관시에는 도서관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의 절차에 따라 등록증을 시군구청장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재조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등록 및 폐관업무의 행정적 처리가 원만히 예상되지 못하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2.2 개정 도서관법 문고기준의 상향조정

현재까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의 실질적 혜택은 공사립문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복권기금에 의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의 대상은 공립문고와 민간의 자발적 문고운동으로 운영되는 사립문고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문고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자료지원, 정보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고지원 프로그램이었다. 민간의 문고운동가들이 자칭하여 쓰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명칭은 개념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고형 사립도서관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인식되고 있다.

현재의 도서관법 규정에서, 작은도서관은 시설규모나 운영인력 및 프로그램 등을 고려할 때 문고의 범주에 해당된다. 현행법에서 도서관의 개념으로 설정된 최소기준은 80평 이상의 공간에 3000권 이상의 자료와 3인 이상의 사서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문고는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도서관 기준에 못 미치는 독서시설로 인정되며 작은도서관은 이에 해당한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나, 활동의 규모나 내용면에서 실질적인 정체성은 문고형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의 분관협력이 요망되는 작은도서관으로서는 도서관 기능의 내실화를 위해서 일정 수준의 시설 및 자료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의 문고관련 기준으로는 작은도서관의 분관협력기능을 기대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조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문고운영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문고 수는 공립문고 778관(27.1%)과 사립문고 2,094관(72.9%)으로 모두 2,872개가 집계되었으며, 이들 문고는 평균 24평의 규모로 24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평균 3,288책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실정법상 문고기준인 열람석 6석, 소장 자료 1,000권, 면적 10평 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현재의 문고기준은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제정 시점에서 당시의 새마을문고 활동현황을 근거하여 제시된 기준으로, 독서 및 문화 공간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작은도서관 활동을 반영하기에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현실적으로 영세규모 문고활동의 부실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문고 및 작은도서관 활동의 합리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분관모델 평가지표에 의하면, 현재 작은도서관 활동에 필요한 최소규모는 면적 30평 이

상, 장서 3,000종 이상, 활동가 1인 이상, 인터넷PC 2대 이상, 주당 36시간 이상 개방 등의 제반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개정을 보류하고 차후의 개선과제로 미루어져 있는 문고관련 기준은 최소한 앞서 지적된 분관평가지표의 권장수준 이상으로 상향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3 문고설립 및 분관협력 조항 복원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문고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0조(문고의 운영) 제2항에서 “문고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공립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지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여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협력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아쉽게도 이 조항이 개정 도서관법에서 삭제되었다. 지역대표도서관에 의한 지방도서관서비스체제의 개편이 진행되는 차제에 공공도서관과 문고는 더욱 더 긴밀한 분관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협력활동의 근거조항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협력을 명시하는 문고조항의 복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문고설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9조(문고의 설립)의 조항과 공사립문고의 설립기준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시행령 제32조(공리문고의 설립) 및 제33조(사립문고의 설립)의 조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다른 관계법령에서 문고설치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서관기본법에서는 삭제되었다.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사회적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법령으로 문고 및 작은도서관의 최소기준과 예시를 통해 이전 수준의 조항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3.2.4 자치단체수준의 작은도서관 및 문고지원 조례제정

작은도서관 및 문고의 지원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업무로 귀결되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지적된다.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한 작은도서관 및 문고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54.8%이었지만, 작은도서관이나 문고지원 관련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3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 및 문고지원을 위한 실질적 개선책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공공

도서관 운영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문고지원을 공공도서관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다.

3.2.5 새마을문고와 공공도서관의 행정체계 일원화

새마을문고로 대표되는 문고운동은 80년대 말 까지 새마을운동중앙회 주도의 행정자치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90년대 들어 지방분권화에 의한 자치행정이 확장되면서, 중앙정부의 새마을문고사업에 대한 지원은 약화되었고, 현재 새마을문고의 대부분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한 보조금지원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운영비 지원 등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표 45>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되는 법령

관계법령	해당조항	지 원 내 용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1980.12.13 법률제3269호)	제3조(출연금의 교부 등) 제1항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비영리민가단체지원법 (2000.1.12 법률 제6118호)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②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일부 새마을문고지원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공공도서관업무는 문화과에서 관장하고, 새마을 문고를 포함한 문고지원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이원화된 지원체계가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제에 일부에서는 새마을문고중앙회의 주관부서를 행정자치부에서 문화부로 이관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증진과 정보서비스 체제의 개선을 위한 일원화된 연계체제로 정비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문고활동은 원래 공공도서관의 지역서비스 거점체계로서 강조되는 동일한 성질의 공공인프라로서, 과거 유신정권기 농촌계몽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과도적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과 연계되었던 것으로, 이제 선진국수준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체제구축을 위해 작은도서관 및 문고운동의 조성과 연계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새마을문고의 지원체계는 공공도서관과 함께하는 일원화된 지원체계로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3.3 공공도서관 진흥사업의 부문

3.3.1 작은도서관진흥팀의 상설화

지난 2002년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설치되어 학교도서관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던 학교도서관 진흥팀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실질적 협력을 구현하는 사례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 내 문고 및 작은도서관 조성과 진흥을 추구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이를 중점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각 공공도서관 자체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협력사업을 실현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부 견해를 달리하며 현재의 공공도서관조직으로도 문고 및 작은도서관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한 문고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35관중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방침을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22관으로 16%에 불과하였고, 최근의 협력실적을 보고한 사례는 전체의 37.8%(51관)를 나타내고 있다. 문고지원이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임무로 명시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현실에서 문고협력을 활성화하고, 문고지원 규정마저 사라진 개정 도서관법에서 문고협력을 실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의 재편을 통해 전담인력을 두고 해당업무를 개발하는 방식이 보다 적극적인 실천방안으로 사료된다.

특히 지역도서관서비스체제를 접근성 우선의 생활밀착형 도서관체체로 전환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방도서관서비스체제의 개편과정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문고에 대한 임무를 실천할 작은도서관진흥팀을 통해 인력이 부족한 문고 및 작은도서관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으로 예상된다.

3.3.2 작은도서관 및 문고 관련 업무편람 보급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장기적으로 공공도서관 진흥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정책추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작은도서관과 공사립 영세문고의 표준적인 관리운영지침을 편람으로 작성 제공함으로써, 공공도서관과 연계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작은도서관과 문고의 개발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3.3.3 문고협의기구 혹은 문고센터 중심의 간접지원체제로

지역마다 문고지원체제는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규모의 사립문고는 우수문고가 중심이 되어 협력운영계약서를 체결하고, 지역협의기구가 중심이 되어 공동자료구입과 자료교환, 공동행사, 공동교육 등의 협력활동을 통해 상호 발전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토록 하고, 지역 내 모든 문고활동을 일일이 관여하는데 따르는 행정적 부담을 덜도록 한다.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는 문고는 공공도서관과 연계된 지역봉사 거점(Service-Point)으로 활용하되, 문고의 규모와 운영실태에 따라 협력의 수준도 다양하게 설정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3.3.4 공동체 통합에 기여하는 지역문화 주도기관으로

생활밀착형 근린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1)지역사회 정보센터, 2)어린이 독서교육시설, 3) 지역정보화 체험 및 교육시설, 4) 지역주민 여가선용시설, 5) 지역주민의 교류센터 등으로서 지역커뮤니티를 구현하는 문화시설로서 지향한다.

주민 스스로 자료를 선정하고 정리하고 규칙을 만들어 실행하는 자율적 작은도서관 운영과정에서 형성되는 참여와 봉사의 협동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기부를 촉진하고, 지역주민 교류의 사랑방으로 기능함으로써, 공동체 통합과 친목에 기여하는 유익한 시설로서 사회적 공감을 만들어 나간다.

3.3.5 정기적인 평가와 포상을 통한 도서관문화 진흥사업

전국적인 규모의 도서관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운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은 물론 이들과 협력하는 작은도서관 및 공사립문고 등을 참여시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도서관을 선발 포상하여 모범사례를 널리 보급하며, 국가적 도서관정책의 당면현안과 추진과제를 개선(feedback)하는 정기적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한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문고 등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표준모델을 지표화하여 평가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모델에 부합하는 기초적 여건을 갖추도록 촉진하며, 성과가 우수한 포상기관에게는 시설개선비용이나 직원해외연수기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주민친화적인 경쟁적인 서비스분위기를 조성하여 전반적인 도서관문화의 생활화를 촉진한다.

3.4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평가모델

3.4.1 공공도서관 분관체제의 확대전략

지역의 공사립문고 중 일정수준이상의 기준모델평가를 거쳐 선별 지정된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 기능으로 활용하고, 기준이하의 영세한 문고들은 지역협의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체제하에 열람과 대출 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국 250여개 시군구 자치단체마다 2개관 수준인 514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민간의 작은도서관을 소규모 분관으로 연계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촉진하고, 특히 작은도서관 운동의 시민 참여적 관심을 도서관문화 전반의 성장으로 유인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30평 이상의 공사립문고 634개(2006년 현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평가과정을 거쳐 공공도서관 분관체제로 편입하되, 앞으로의 공공도서관 건립은 3,500개 읍면동 행정단위에 보급될 수 있는 봉사인구 25,000명 기준의 분관규모를 기본으로 생활밀착형 근린시설로서 개발하도록 권고한다.

3.4.2 작은도서관 분관모델의 정립

공공도서관 및 문고와 비교한 작은도서관의 표준모델은, 1)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1] 도서관및문고의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제3조관련)과, 2)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03), 3)공공도서관서비스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4)Wisconsin Public Library Standards 등 국내외 공공도서관 및 문고 관련 법과 기준을 참고로 하여 분관모델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46> 분관모델의 운영조건

	공공도서관 분관	작은도서관	공사립문고
시 설	(인구2만 미만 일 때) -면적 264㎡(약80평), -열람석 60석 이상	(인구5000명 일 때) -연면적100㎡(약30평)이상 -열람석 10석 이상 -인터넷용 PC2대 이상	-면적33㎡(약10평)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 료	-장서 3,000권 이상 -연증가 300권 이상	-단행본 3,000권, 정기간행물 10종 이상 -연간 자료구입비 300만원 이상	장서 1,000권 이상
직 원	-330㎡(약100평)이하 사서직원 3인	-상근직원 1명 이상	규정 없음
기 능	분관	작은 분관	서비스거점
<참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1] 도서관및문고의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제3조관련)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2003) -'공공도서관서비스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Wisconsin Public Library Standards'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1] 도서관및문고의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제3조관련)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공공도서관의 분관기능으로 설정하되, 공공도서관 분관과도 시설 및 운영규모에서 현저한 차이가 실재하므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분관기능보다는 한 수준 낮은 소 분관으로서 설정한다. 공공도서관, 분관, 작은도서관, 문고 등의 기능적 차이는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가정한다.

<표 47> 시설 및 운영규모에 따른 기능적 차이

주요기능	공공도서관	분관	작은도서관	문고
-도서 열람 및 대출	0	0	0	0
-참고봉사	0			
-편목 및 DB구축	0			
-정보이용교육	0			
-사회교육 및 문화교양 프로그램	0	0	0	
-전시 및 공연	0	△	△	
-향토자료실	0			
-지역특화주제정보실	0			
-상호대차	0	0	0	
-학습실	0	0		
-도서관소식지 발간	0	△	△	
-인터넷이용	0	0	0	0
-전자책(e-book) 및 멀티미디어 열람	0	0	0	
-원문복사서비스(DDS)	0	0		
-지역공공DB서비스	0	0	0	0
-국립중앙도서관 원문DB보기	0	0	0	
-식당 매점 등 휴게실 공간	0			

3.4.3 작은도서관 분관모델 평가지표 설정

공사립문고 중 30평 이상의 시설을 모두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은, 해당 도서관들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선행되지 못한 현재에는 무리한 설정으로 평가됨. 따라서 대상 문고 중 지역의 공공도서관 분관 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선별하여 지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작은도서관의 바람직한 모델을 설정하여, 권장요소를 가중치로 배분하여 일정수준에 도달한 문고를 우선으로 협력형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평가항목은 작은도서관 제안모델에서 제시되었던 시설, 자료, 직원, 운영의 4분야로 구분하여 바람직한 권장요건을 설정하며, 항목마다 평가비중을 달리하여 중요도에 따라 8점부터 2점까지 가중치를 할당하여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가중치 할당 평가방식은 운영에 필요한 최저기준을 내세우면서도 편의에 따라 가중치를 변경하고, 기준점수를 낮추어 운영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고, 바람직한 운영조건의 각 항목을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각각의 기준항목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작은도서관을 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선별방식이다.

<표 48> 작은도서관 분관모델 평가모형

구 분	최소기준(봉사인구 5,000명 기준)	가 중 치	기준 충족 여부	점수
시 설	-면적 100㎡(약30평) -열람석 10석 이상 -인터넷검색용 PC 2대 이상 -별도 8~10명 규모의 모임 공간 -어린이 공간 비중 30% 이상	8 3 4 2 3	기준충족 x 3점 기준미달 x 1점	
	소계	20		최고60,최저20
자 료	-단행 3,000권 이상 -정기간행물 10종 이상 -전자책 등 비도서 자료 구비 -검색 및 대출시스템 -연간 자료구입비 300만원 이상	8 3 2 4 3	기준충족 x 3점 기준미달 x 1점	
	소계	20		최고60,최저20
직 원	-상근직원 1명이상(*) -상근직원의 자격유무 -상근직원의 임금수준(최저생계비) -보조인력 1명 이상 -자원봉사자 참여 5명이상	8 3 2 3 4	기준충족 x 3점 기준미달 x 1점	
	소계	20		최고60,최저20
운 영	-주당 36시간 이상 개방 -운영 매뉴얼 -독서교육프로그램 -주민행사 및 모임 -회원제 운영	8 3 4 3 2	기준충족 x 3점 기준미달 x 1점	
	소계	20		최고60,최저20
합계(최고240점, 최저80점) 000점 이상				
* 인력부문의 상근직원 1명은 필수조건				

평가점수는 시설, 자료, 직원, 운영 범주별로 5개 항목에 20점 가중치를 배정하여, 합계 최고 240점부터 최저80점이 되도록 하였다. 항목별 가중치 배분에서는 각 범주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면적과 단행본 소장수, 상근직원여부, 주당36시간이상 개방 등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점하되, 문고와 차별되는 도서관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상근직원의 항목을 필수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선별기준의 최저점은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정도와 지원/협력의 예산규모에 맞게 일정수준을 임의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마다 지원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장 모델에 따른 항목별 가중치로 합산하는 방식은, 필요에 따라 최저 기준점을 변경하여 대상 지역의 문고활동 수준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공도서관 마다 지역의 문고활동을 고려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문고를 선별하여 작은도서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적합하다.

4. ‘작은도서관운동’의 범사회적 추진전략

4.1 민관협력 파트너쉽 정립

4.1.1 시민단체와 연대사업으로 추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생명력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에 좌우되는 민간주도 혹은 민관협력모델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역문고협의회’, ‘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책읽는사회를만들기위한국민운동’, ‘어린이도서연구회’, ‘동화를읽는어른들의모임’ 등등 독서문화진흥에 관심을 함께하는 시민단체와의 연대적 협력이 사업성패의 선결 조건이 될 수 있다.

부천의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사례와 같이 해당지역 시민단체, 기업인, 시의원, 지역언론, 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협력기구를 통한 사업의 주도가 바람직하며, 자발적 시민조직에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예산전액을 위탁함으로써, 주민자치문화의 조성과 자율적 도서관운영의 자원봉사와 기부운동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창원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사례와 같이, 지역시민단체들에게 작은도서관 설립운영을 위탁하여 지역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시민운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도서관인프라 투자에 유리하도록 정치적 우호세력을 포섭해 가는 방식으로 시민단체와의 연대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4.1.2 시민단체의 참여와 책임을 존중하는 협력방식

지역주민의 자생적 시민조직으로 활성화되어 온 작은도서관의 자치문화를 존중하여, 공공도서관 분관으로 지정된 작은도서관에게는 1년 단위 사업평가를 거쳐 지원을 제도화하되, 인사 및 재정 등 관리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조직이 갖도록 하여,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연계사업에 참여하는 작은도서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한다.

4.1.3 참여의 혜택을 가시적으로 제시

지역시민단체들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협력 파트너로서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작은도서관사업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1)도서구입비 지원이나, 2)상호대출서비스 뿐만 아니라, 3)직원공동교육과 4)해외연수, 5)자동화목록관리, 6)독서문화 공동행사, 7)국립중앙도서관 보유원문DB 접근개방, 8)전자도서 및 디지털자원 공동보급, 9)시설개보수지원, 10)우수운영사례 포상 등의 다양한 혜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4.1.4 영리사업으로 변질된 지역협의기구의 배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영세한 공사립문고의 활성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도 관심을 두어, 지역마다 기 구성되어 활발한 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문고협의조직을 활용하되, 일부 영리 사업으로 변질된 지역문고협의체와 협력에는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망된다.

4.1.5 2001년 학교도서관살리기 국민운동의 사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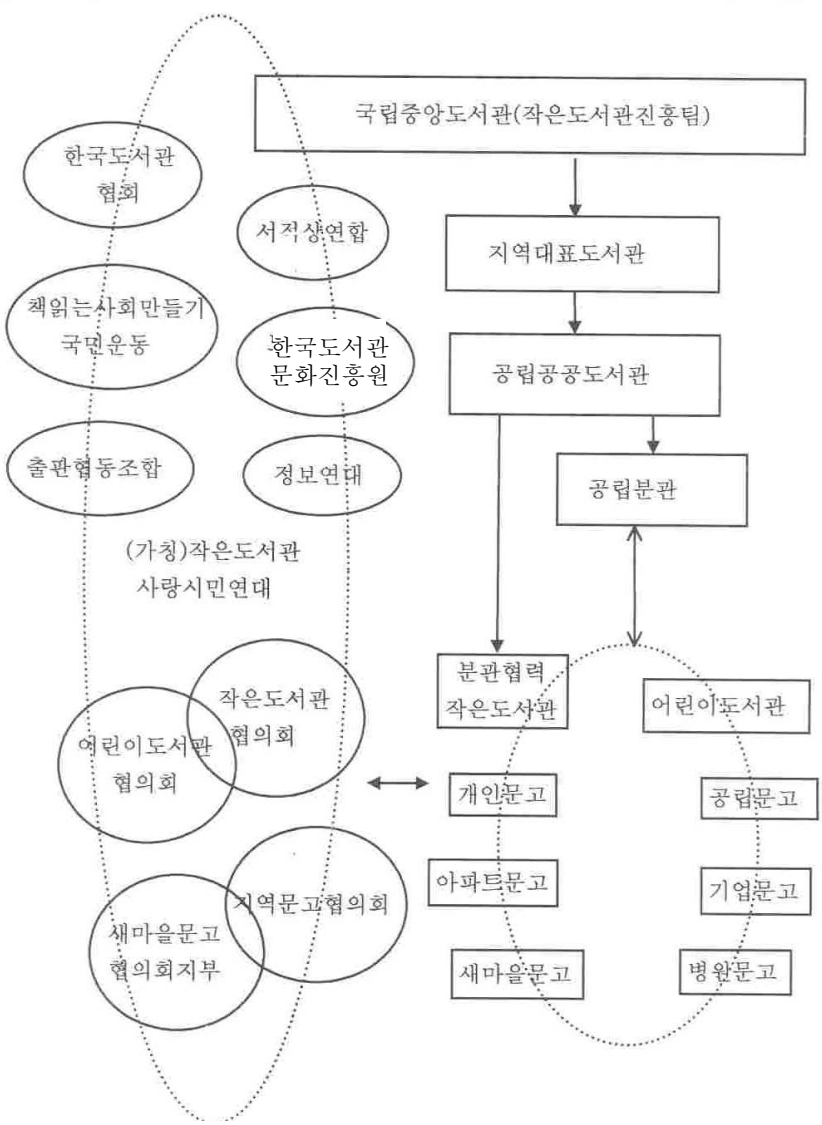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어린이도서연구회, 한국출판인회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 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를 통한 100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도서관협회, 문화개

혁 시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족문학작가회의 등 8개 단체가 참여하는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약칭 국민운동) 사례에서와 같이, 도서관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시민 연대조직의 발족이 필요하다.

4.1.6 “(가칭)작은도서관 사랑 시민연대” 주도의 민간운동 추진

도서관 및 독서문제에 관심을 갖는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가칭)작은도서관 사랑 시민연대 “를 출범시키고, 문화관광부나 한국도서관협회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재정의 일부를 회원기구로 참여하고, 교보문고, 출판사, 서적유통회사, 도서관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전자책 및 전자정보서비스 업체 등 도서관주변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아, 정기적인 작은도서관 관련 학술포럼, 작은도서관운동 주제사이트 운영, 작은도서관운동 소식지발간, 작은도서관 전국대회, 현장 활동가 워크숍, 매스컴과의 기획프로그램 등 조성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특성상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민관협력을 사업의 기본모양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 주도의 계몽운동으로는 시민운동으로서의 사업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추측되며, 민관협력의 파트너쉽을 강조하는 협력사업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적의 도서관의 사례에서와 같이 민간의 참여적 봉사를 내세우는 민간단체 주도가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체계

4.2 민간 도서관운동의 자율성 보장

4.2.1 농촌 마을문고 운동의 교훈

1951년부터 10여 년간 농촌에 책보내기 운동을 주도하였던 엄대섭 선생은 1968년 신동아 7월호 인터뷰기사에서, 농촌에 책을 보내는 것이 '주는 사람 본위'의 사업이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자책하며, 농촌에 문고를 조성하는 사업은 농민들에게 책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책을 사보는 자율적인 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술회한 바 있다.

그는 농촌의 마을문고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행정지원, 둘째, 민간의 운동조직 셋째, 전문적인 지도기관 넷째, 뜻있는 농어촌 활동가 다섯째, 마을단위의 시설 여섯째, 좋은 자료 등이 유기적으로 갖추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마을문고운동 이래 반세기가 지난 지금,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서 예상되는 시행착오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행정적 계도위주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지역 활동가 주도의 자율적인 민간운동에 생명을 불어넣은 간접지원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4.2.2 자율성을 조성하는 행정지원

작은도서관은 주민 스스로 도서를 기증하고 자원봉사하며, 각종 기부활동이 생활화 할 수 있는 자생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도서관은 일정한 평가방식에 따른 작은도서관 지정제도 혹은 지역문고협의회 등을 통한 간접지원체제를 통해 주민의 자율적 참여문화를 조성하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과 모퉁이어린이도서관과 같은 작은도서관 우수운영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도서관의 다양하고 풍부한 서비스는 열성적인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자치조직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자들을 재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주민스스로 민주적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적 운영원리를 존중하는 지원방식이 되어야 한다.

4.2.3 선지원 후평가 방식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참여하는 작은도서관들에게 일정한 조건을 두고 지원/협력사업에 참여시키되, 사업의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며, 사후 지원사업의 성과를 1년 단위로 면밀히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선지원 후평가 방식의 지원제도가 바람직하다.

4.2.4 영리사업 부속시설 배제원칙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작은도서관운동의 본래의 기본적 취지를 훼손

하는 일부의 영리적 사업가들의 무임승차를 제도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고사업이 활발한 지방도시의 경우 지역문고협의회에 참여하는 문고의 대부분이 교회와 학원, 혹은 개인논술교습소에서 설치한 것으로, 이중 일부는 학원과 개인논술교습소 등에서 영리적 취지에서 독서교육 혹은 논술지도,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의 개인사업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사업목적을 유인하기 위한 부설문고가 대부분으로 지역문고로서의 개방성에는 제한적인 경우가 적지 않고, 이들을 공공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4.3 대중매체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캠페인

4.3.1 도서관문화에 끼친 언론의 영향력 활용

1977년 마을문고의 소관부처가 문교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된 것이나, 1990년 도서관전담부서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는 과정, 2001년 학교도서관살리기 운동에 의한 학교도서관 진흥법안의 제기 등에서 도서관계의 여론을 반영한 중앙언론의 보도와 매스컴의 관심은 도서관 현안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기본 취지는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동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조직으로 연계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선진서비스 모델로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민관의 기존인프라를 연계하여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사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선결조건이며, 민간의 작은도서관들을 공공도서관서비스체제로 유인하는데 따르는 민간의 거부감과 부정적 시각을 순화하고 민관협력의 파트너십모델로서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는데 중앙 및 지방 언론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4.3.2 대중매체와 연대한 기획물의 제작요청

대중적 호응이 컸던 도서관 및 독서관련 기획프로그램(예. “TV 책을 말하다” ,“북스타트운동” 등)을 참고로 독서교육의 위력과 선진 도서관문화의 실상을 체험적으로 탐구한 기획연재물 가편집안(선진국의 독서교육, 생활 속의 도서관문화, 도서관의

친구들과 자원봉사, 뉴욕공공도서관의 기부문화, 한 도시 한 책 운동, 빌 게이츠재단의 도서관기금 등)을 제안하여, 기업(교보, 삼성, 삼보, SK, KT 등)의 후원을 받아 제작 방송함으로써, 도서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4.3.3 작은도서관 활동관련 보도자료 작성 교육

지역 작은도서관 및 문고의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홍보용 보도자료 작성법과, 지방언론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협력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지자체 문화와 혹은 공보실 등과 협력하여 세세한 활동과정을 지방언론에 제공한다.

4.3.4 작은도서관 공동행사주간 설정

한국도서관협회와 공동으로 독서주간과 같이 4월 넷째 주 혹은 10월 넷째 주를 “작은도서관 공동행사주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 규모의 공동행사와 작은도서관 대회, 우수사례포상 및 홍보 등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지방과 중앙에서 집중화된 참여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한다.

4.3.5 인터넷 포털 네이버(Naver)를 통한 집중홍보

네이버 등을 비롯한 인터넷 포털을 통해 지역소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문고 등의 매핑(mapping) 및 활동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아이러브 작은도서관” 캠페인, 자원봉사자 활동소개, 기부금모집 등을 안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참여를 유인하고, 생활근린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의 유익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간다.

4.3.6 민간우수사례 및 지역혁신사례의 확산·보급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동안 사회적 명성을 얻어 성공사례로 부각되는 민간 우수사례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도서관서비스체제의 개선을 이룩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례 등을 모아 작은도서관 우수운영사례집을 발간 보급함으로써, 관계분야 관심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운영지침을 제공하고, 독서 및 문화운동의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며, 참여와 봉사의 문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민관협력모델을 널리 확산 보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민간 작은도서관 우수사례는 도서관서비스 활동의 진작에 초점을 두되, 이를 통해 조성되는 사회적 화합과 공동체 통합의 순기능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운동의 바람직한 참여모델을 부각함으로써, 사회적 의미와 관심을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4.4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 혜택의 중점개발

4.4.1 사회 양극화 해소지원을 중심의제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및 문화기반시설의 여건이 불비한 낙후지역의 저소득 및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문화적 혜택을 우선하여 개발함으로써, 주류문화와 상업문화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적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공동체 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확장한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한다.

4.4.2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임무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의 경우처럼, 작은도서관은 정보서비스와 문화프로그램의 주된 기능이외에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 후 학습지도 및 유소년 생활지도 등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빈곤층 자녀교육의 일부분을 책임지는 사회복지 임무로서 지역사회 복지 거점망의 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

4.4.3 문화 및 복지의 복합적 혜택으로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공공도서관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채택되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지역의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의 의미를 넘어,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 및 복지적 실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의 “문화 사랑방”, 지역 어린이들에 대한 “동네공부방”, 주민자치 및 참여와 봉사를 실현하는 “자원봉사모임” 등의 복합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서비스 거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복지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지역 주민의 실용적 생활문화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문화 복지적 복합공간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추진체계

5.1 국가도서관정보정책 추진체제와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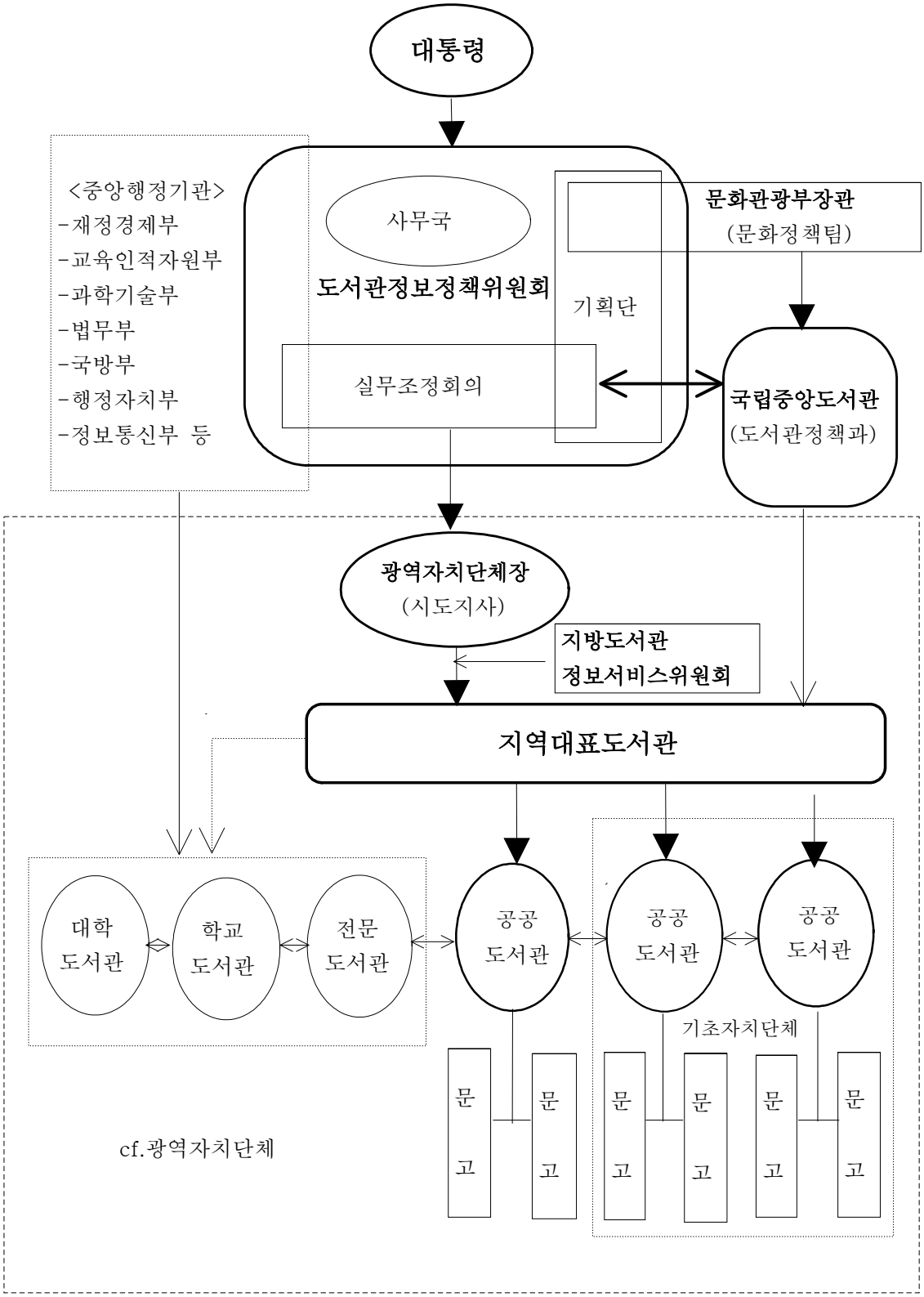
- 지방분권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강화

문화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누리는 주민 참여적 생활문화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요 문화인프라에 대한 지원행정이, 지방분권정부로 이관되었으며, 지역대표도서관은 주민자치문화의 대표적 공공시설로서 도서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임무로 부여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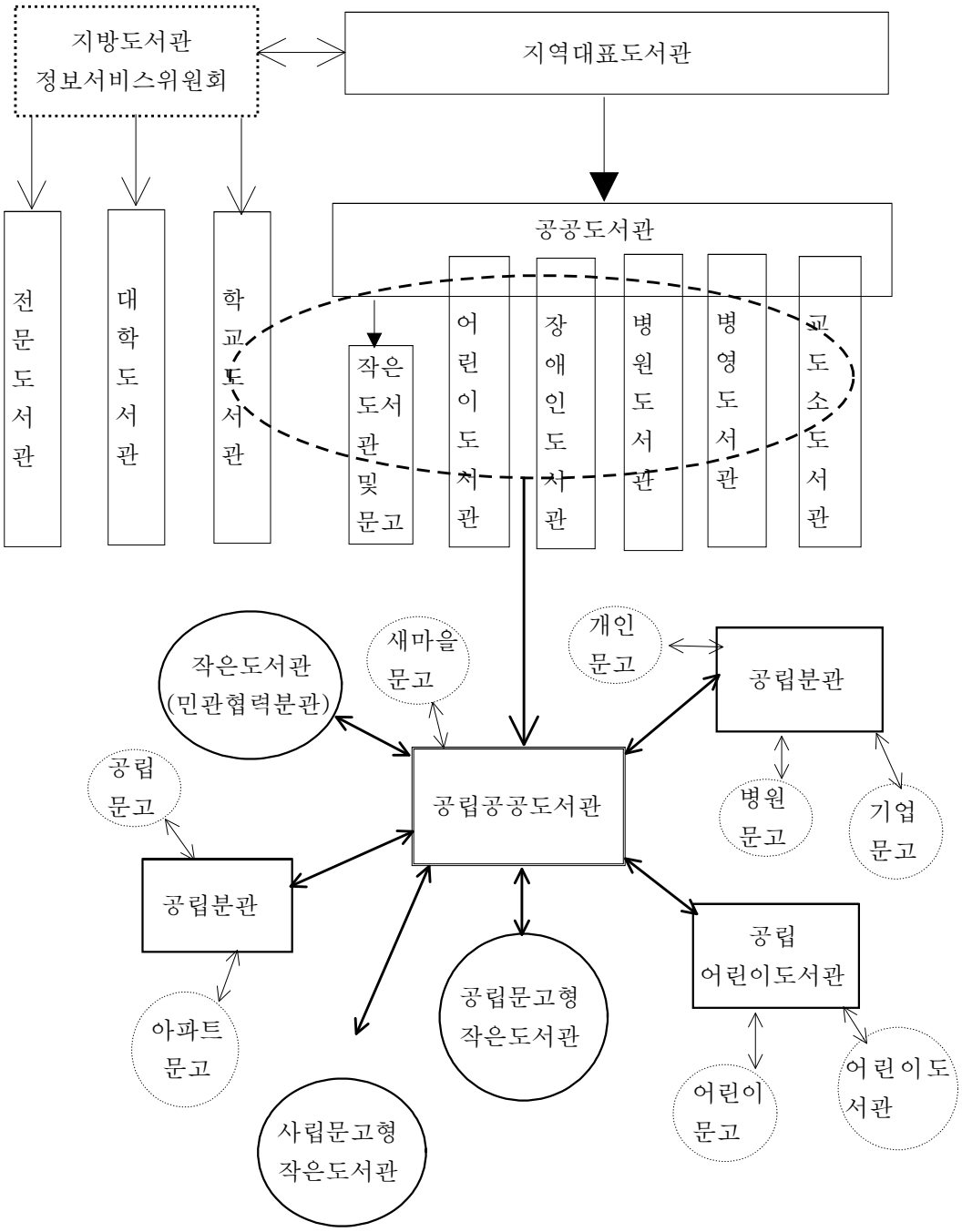
지역 도서관서비스체제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 지역 공공도서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협력활동을 선도하며, 도서관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지역대표도서관과 지역공공도서관의 역할분담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 공공도서관서비스체제의 균형과 개선을 주도하고, 공공도서관은 문고 및 작은도서관을 통한 생활밀착형 다거점서비스체제를 지향함으로써, 지역사회 도서관서비스 네트워크를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분관체제로 실행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기대되고 있다.



<그림 19> 국가 도서관정보정책 추진체계



<그림 20>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지원/협력사업의 추진체제

지역도서관 서비스시스템의 개선은 일차로 공공도서관이 지역 내 다른 관종의 도서관들과 수평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 문고 및 작은도서관들을 개발하고 협력하여 생활공간에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수직적 협력의 확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 지방도서관위원회를 통한 작은도서관 진흥계획 수립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마다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역도서관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중점 심의하도록 부여된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역할에 비추어 보아,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의 보급을 위한 문고와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은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중요한 소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도서관위원회에 문고 혹은 작은도서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문고와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확장봉사시스템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도서관정보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명문화의 노력이 요망된다.

- 공공도서관 주도의 조성사업 지원체계

문고 및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핵심적 의도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근접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활동역량을 공공도서관의 확장봉사 영역으로 연계하는데 있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공공도서관 발전의 추동력으로 삼아,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민관협력모델을 조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조성사업의 기본적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고, 지역주민과 협력사업의 성패는 공공도서관의 사업의욕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지역 내 문고 및 작은도서관 활동의 기본적 동기가 근접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수요에 대한 갈증에서 비롯하고 있는 점을 주시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의 활동역량을 공공도서관 봉사거점의 확장기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5.2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5.2.1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작은도서관의 모델을 도보로 가정에서 10분 이내, 장서 3,000권, 30평 이상 근린시설로서 기초행정단위 읍면동 3,573곳에 인구 2만5천 명당 작은도서관 1개관 보급을 목표로 2020년까지 추진되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추진개요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성사업으로 건립되는 작은도서관의 최종 목표가 전국 3,500여개 읍면동 행정단위마다 1관씩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별도의 서비스체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거점망을 보완하는 의미가 강하므로, 장차 공립공공도서관의 건립이 증가하면 민간의 작은도서관 수요는 점차 공공도서관활동으로 대체 혹은 흡수되고 그 활동영역이 축소될 것을 예상하여 발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체 3,573관(100%)중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복권기금(5%)과 국고지원(14%)의 비중이 전체의 1/5(675관)도 되지 않고, 지자체 및 민간참여 의존율이 63%(2,265관)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 결국 사업의 성패를 지자체와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셋째, 30평 이상 기존 공사립문고 중 일부는 복권기금 시범사업 참여와 중복될 수 있고, 특히 이들 634개관의 운영여건에 대한 면밀한 사전평가 없이 면적만 기준에 부합한다고 이들 모두를 작은도서관으로 편입하도록 계획하는 것은 무리한 설정이다. 634관 중 일부는 영리적 수익사업에 동원되는 부속시설이 적지 않게 예상된다.

넷째, 기존문고를 공공도서관의 분관기능으로 연계하는 협력 사업에 아무런 예산지원이 없다는 것은, 이 연계사업에 대한 재정 및 행정지원의 부담을 전적으로 공공도서관에게 부담시키게 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지역사업을 주도하는 공공도서관에게 인력과 재정지원의 보완 대책이 요망된다.

다섯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전체비중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과중하게 설정되어 있다. 국고지원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자체부담이 50%(1,250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2008년부터 15년간 2,265관 조성에 민간참여와 더불어 2,265억을 설정한 것은, 만약에 민간 참여가 부진할 경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책임으로 돌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판단된다.

여섯째, 특히, 자치단체 부담과 관련하여, 정작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효과가 기대되는 농산어촌 오지 및 벽지나 소외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조성사업 참여가 매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고지원과정에서는 특별히 소외지역 작은도서관 조성에 중점을 두는 지원가이드라인이 요망된다.

5.2.2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의 보완

검토소견에 비추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 49>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구 분	04년 조성	2006~2008	2009~2017(2021)	소 계
복권기금 (8.8%)	-리모델링중심 시범사업 -1관 1억	-리모델링중심 시범사업 -1관 7천만원 -1년 50~70관씩		
	25관 (25억)	190관 (150억)		215관 (175억)
국고지원 (25%)			-리모델링중심 시범사업 -1관 5억(2억5천) (지자체매칭50%) -1년50관씩(125억)	
			500관 (1,250억)	500관 (1,250억)
기존문고 (25%)		-기존 공사립문고 중 30평 이상 ***634관 중 500관 선별지정*** ***-1관당 협력사업비 2,000만원 100억***		
		500관 ***(100억)***		***500관*** ***(100억)***
지자체, 민간참여 (41.3%)		-지자체 및 민간 참여(2006~2020, 15년) -삼성,책사회,한겨레 공동사업 06년 100억 (작은도서관50억, 학교도서관 50억) -1관 1억		
		785관(1년 / 50관씩) ***(785억)***		***785관*** ***(785억)***
합계 (100%)				***2,000관*** ***(2,310억)***

구미선진국의 공공도서관 발전사례와 저명한 도서관학자 마이클 고어먼(M. Gorman) 조언에 따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보급과 함께 언젠가는 공공영역으로 편입되어 자치적 문고수요가 감소되어 나가는 것을 전제로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1차적 목표는 2002년 도서관중장기발전방안에 따라 2011년까지 공공도서관 800관 건립에 부응하여, 모두 1,000여개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단기과제로 하고, 2016년 2단계 2,000관 조성을 최고점으로, 마지막 3단계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보급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오히려 1,800관으로 감소될 것을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정으로 판단된다.

전국적 공공도서관서비스체제를 작은도서관 중심의 생활밀착형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현재의 공공도서관 조직에 작은도서관 및 문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진흥팀을 구성하여 협력시스템체제로 전환하며, 그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편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립지원비 지원예산만으로 책정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기본재원은, 공공도서관의 지원협력활동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협력사업 예산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 건립은 국가 및 민간에서 일부 부담하더라도, 이의 지속적인 운영재원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며, 따라서 지자체의 공공도서관사업예산의 일부로서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통한 작은도서관운동에 대한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체제의 구축이 무엇보다 요망된다.

5.3 건립 및 운영재원의 안정적 확보

5.3.1 민간참여와 공공지원의 조화로 이루는 민관협력모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것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의한 조성된 민관협력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 조달 및 확보에 달려있다. 일부 비판적인 의견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연계되는 분관모델은 모두 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으로 편입되는 것과 동시에 공립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전환되어, 공공도서관 재원범위에서 공존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이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취지는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재원을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활성화되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서비스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고립분산적으로 산개되어 활동하는 지역문고활동을 지역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거점으로 개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보다 생산적인 도서관서비스체제로 발전하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강조점이 주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에 자생하는 작은도서관은 스스로 사업비를 마련하여 주민의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되는 자율적 자치조직의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들이 민주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선양하는 체험의 광장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의 의미와 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3.2 지원/협력모델에 따른 고유한 지원방식의 조성

공공도서관 분관편입에 의한 민간문고의 흡수나 통합은 공공도서관 재원의 무리한 팽창 및 부담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직접적 재정지원 방식은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지원협력의 방식은 시민자치조직으로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간접적인 지원체제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조성하는데 역점이 두어져야 하며, 민간의 작은도서관 활동이 자율적으로 활발한 지역은 민간주도모델을,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와 협력이 적합한 지역은 민관협력모델을, 작은도서관의 관심과 참여를 견인해야 할 지역에는 자치단체주도모델을 각각 적용하되, 지역사회의 시민의식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유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5.3.3 장기적 발전계획과 민간참여 유도

정부의 시범사업을 모델로 시작하여, 지자체 및 대기업,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계획이므로, 전국 읍면동 단위 3,500개관 조성에는 지역소재 대표기업 및 중소상공인 조직의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 로타리클럽, 라인온스클럽 등 지역사회 봉사에 관심이 많은 지역유지들의 봉사조직과 적극적인 결연이 시도되어야 한다.

삼성사회복지재단, 한국고등교육재단, 에스콰이어문화재단, 포스코청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대산문화재단, LG복지재단, 혹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서 각종 문화재단 등에게 비영리 목적사업으로 채택하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참여를 공식 건의하도록 하고, 특히 전경련을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소재 기업마다 직원봉사 조직을 1관씩 작은도서관 조성과 후원 사업으로 추천함으로써, 지속적인 후원세력을 확보한다.

5.3.4 작은도서관 참여자들의 자원봉사와 기부 활성화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주민조직을 우선으로 선정함으로써, 자원봉사와 기부 등으로 꾸려가는 자생적 운영조건을 전제로 하되, 사업의 지속적 생명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소재 기업 및 시민조직의 관심과 후원을 세금공제나 지역문화시설

이용우대 등의 제도적 보상으로 연계하는 자치단체 수준의 인센티브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은 지원협력의 인센티브로서 일정금액의 도서비나 장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제공, 자원공유 등의 간접적 지원을 통해 민간 활동의 자생력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선도적 협력이 요망된다.

5.3.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한 운영예산 확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체제에서 지역주민의 정보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공공도서관서비스체제 구축의 일환으로서 문고 및 작은도서관 협력사업비의 기본재원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문고 및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그 사업비용은 기왕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예산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이 되고 따라서 작은도서관 협력사업비용은 공공도서관 운영예산의 증액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문고와 작은도서관의 건립은 국가와 민간에서 일부 부담하더라도, 이들의 운영사업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사업예산의 일부로서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재원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지원과 관련한 조례에서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을 명문화한 해당조항을 제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재원의 제도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제7장 결론적 제언

1. 실정법상 문고의 범위에서 운영

최근의 실태조사와 개정 도서관법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은 규모에 있어서 문고형 도서관활동이라는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며, 자랑스러운 문고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발전된 형태의 도서관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문고의 정의를 벗어나는 별도의 법적 개념으로 설정되기보다는, 도서관과 문고의 개념적 혼란을 줄이고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념형적 모델로서 실정법상 문고의 범위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립 공공도서관의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공공도서관 활성화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도서관의 발전 및 확장과 함께 지역의 공립도서관서비스체제로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 분관평가지표에 따라 공공도서관 분관으로 지정되어 협력하는 작은도서관은 장기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공립분관으로 편입하는 방식이 감안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 내에 작은도서관 진흥팀을 두고 지역 내 협력을 주도하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서비스의 지역거점망 확장을 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브라질의 외국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도서관 서비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공공도서관 발전경험에 기초한 저명한 도서관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민간의 작은도서관운동은 공립공공도서관의 보급과 함께 공공서비스영역으로 편입되어 축소되어 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중장기전략에 있어 깊이 유념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된다.

3.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추진

현재의 민간부분에서 활성화된 작은도서관과 문고 등을 공공도서관의 분관협력 및

서비스거점체제로 편입하여 활용하는 방식은, 민간의 자생력과 활력을 훼손하지 않는 간접지원형식으로 운영주민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시민자치적 방식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도서관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시민들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지자체 공공도서관 등의 지원과 관심(22.2%)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24.2%)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민간의 자율운동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성격과 특성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4. 시민조직을 전위로 하는 사회운동으로 추진

전국적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전면에 나서는 사업방식보다는,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가지는 민간단체와 시민운동조직들을 연합한 전위조직을 통해, 이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압력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적의 도서관'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주민 관심을 이해하고, 공공도서관서비스체제의 확장서비스로서 문고 및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론조성을 주도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5.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

작은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은 지역의 경제활동, 주거환경 및 인구구성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장차 공공도서관의 확장과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등 서비스여건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지역사회의 서비스수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예산 및 인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소재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성화, 특정 주제에 집중화되는 주제특성화, 그리고 특정 계층을 겨냥한 계층특성화 등으로 추진될 수 있다.

6.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사업으로 추진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서비스가 현저히 부족한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로 운영되는 자생적 문고활동을 우선으로 지원하되, 사회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저소

득 생활보호대상 주민,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에 대한 문화·복지적 공공서비스로서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자치단체 주도의 조성사업방식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문화소외계층에게는 도서관을 통해 보급되는 공공정보서비스의 가치와 의미가 더욱 긴요하다. 전 국민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사회통합기제로서 작은도서관의 지원은 경우에 따라 시민의 자생적 활력이 부진한 소외지역에 대해 인근 활성화 지역의 활동가를 연계하거나 공립 공공도서관서비스의 지역거점화를 통해 문화·복지적 투자로 고려되어야 한다.

7.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모델로 추진

작은도서관 운영모델은 지역주민과 행정관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직접지원방식의 민관협력모델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며, 영세규모의 문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문고협의기구를 통한 간접지원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및 문고를 포함하는 지역 내 도서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각에 합당한 중층적인 지원전략이 요망된다.

8. 지자체 조례를 통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기본재원은 공공도서관 운영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며,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는 지역도서관서비스체제의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문고 및 작은도서관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제정의 근거로서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과 문고협력 관련조항과 문고설치 및 지원 관련조항을 복원하여 명시하는 것도 요망된다.

9. 협력망 연계로 국가디지털자원에 대한 접근시설로

공공도서관은 지역 내 작은도서관과 문고의 운영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을 제공하여, 이들을 공공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디지털자원에 대한 지역 접근점으로서 활용

토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관종별 협력망 및 국가 도서관망과의 연계를 통해 국민의 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공공지식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지역거점으로 활용토록 한다.

10. 도서관중장기발전방안과 연계한 실현가능한 전략수립

전국 읍면동 단위 3,500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최종목표는, 문화부 도서관중장기발전방안의 2011년 공공도서관의 보급목표 800관과 추후에 추진되는 도서관건립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되어야 하며, 과도하게 설정된 민간부분의 조성규모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공공부문에서 1,215개관(약60%), 민간부문에서 785(약40%)개관의 보급을 목표로 최대 2,000여관 조성으로 현실성 있게 검토·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김세훈. 2002. 『도서관중장기발전방안』.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관광부. 2004. 『문화비전21 : 창의한국』. 서울 :문화관광부.

서울도서관연구회 봉사분과위원회. 1994.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 『서울시도서관연구회지』. 10 : 22-28.

이병목. 2005. 『도서관법규총람』. 서울 : 구미무역 출판부.

이용남. 2000. 『마을문고운동의 초기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4) : 27-47.

이용남. 2001. 『새마을문고운동40년사 1961-2000』. 서울: 새마을문고중앙회.

이용남. 1979. 『마을문고의 이념과 원리 : 공공도서관 운동의 측면에서』. 국회도서관보 16(3) : 63-69.

이용남. 2002. 『마을문고 운동 추진전략과 행태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새마을운동 체제로의 통합 이전까지를 중심으로-』.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 91-109.

이정미. 2006. 『지역커뮤니티의 장인 작은도서관』. 도서관계 147 : 12-21.

정동열 외. 2002.『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13(2) : 5-28.

정정식. 1996.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울시도서관연구회지, 12 : 183-206.

정현태. 2006.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집 제21집. 217-253.

한국도서관협회. 2004.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한윤옥, 곽철완. 2004.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협력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 337-357.

Gorman, Michael. 2006. 『미국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구축방안 국제세미나자료집.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주최. 2006.8.25.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IFLA & UNESCO. 2002. 『공공도서관서비스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혜란 번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McCabe, Ronald B. 2001. 『Civic Librarianship -Renewing the social mission of the public library』. Lanham: Scarecrow Press.

Thorhauge, Jens. 2006.『덴마크 도서관 시스템』.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

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 자료집.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주최. 2006.8.25.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Weingand, D. E. 1992. 『Administration of the Small Public Library』. 3rd. ed. Chicago: ALA.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2005. 『Wisconsin Public Library Standards』 Fourth edition. Madison, WI. <http://dpi.wi.gov/pld/standard.html> [cited 2006.9.9]

Bernard, J. 1973. 『The sociology of community』. Scott, Foresman and company.

<http://www.readersclub.or.kr/sub/campain/campain_library.html>[cited 2006.11.13]

日本図書館協会. 1996.『Someday--いつかはきっと図書館に--ちいさな公民館図書室から』

日本図書館協会. 1978.『公民館図書室の問題点について』

月刊社会教育. 1971.『公民館図書室の運営をどう考えるか』

図書館問題研究会. 1988.『公民館図書室にかかわって』

日本図書館協会. 1985.『公民館図書室の現状--公民館と図書館の連携を求めて』

図書館問題研究会. 1990.『公民館図書室に協力車の巡回を行って』

文部科学省『公立図書館の設置及び運営上の望ましい基準』

Murakami, taiji. 1969.『On the 'KATEI-BUNKO' and 'CHI-IKI-BUNKO' in Mitaka city, Tokyo』

日本図書館協会. 1979.『家庭文庫から“図書館づくり運動へ--その問題点とこれからの課題』

家日本図書館協会. 1951.『庭文庫について』

教育と医学の会. 1997.『子どもと楽しむ家庭文庫』

埜上衛. 1986.『世界の公立図書館』全国学校図書館協議会.

家庭文庫との出会い. [cited 2006.10.16].
<http://www003.upp.so-net.ne.jp/poplar-bunko/essay/essay1.html>.

家庭文庫 · 地域文庫など. [cited 2006.10.16].
<http://www.kosodate.mitaka.ne.jp/tokushu0303-bunko/bunko.htm>.

大沢家庭文庫. [cited 2006.10.16].
<http://www.kosodate.mitaka.ne.jp/tokushu0303-bunko/oosawakatei.htm>.

アトム文庫. [cited 2006.10.16]

<http://www.kosodate.mitaka.ne.jp/tokushu0303-bunko/atom.htm>.
自然の中に『家庭文庫』(2004/11/21) [cited 2006.10.16].
<http://www.yomiuri.co.jp/e-japan/shizuoka/kikaku/014/72.htm>.
子どものための家庭文庫「笠舞若竹文庫」を開く. [cited 2006.10.16].
<http://hokuriku.yomiuri.co.jp/hoksub7/sukoyaka/ho_s7_05092001.htm>.
大沢家庭文庫に文部科学省子ども読書活動表彰. [cited 2006.10.16]. <http://www.city.mitaka.tokyo.jp/koho/backnumber/20030518/p12.htm>. [cited 2006.10.16]
<http://ja.wikipedia.org/wiki>.